

Islamic Center



137-46 Itaewon1-Dong, Yongsan-Gu,
Seoul South Korea(140-858)
Tel 0082-2-794-0968 Email:
islaminkorea@yahoo.com
www.islaminkorea.or.kr
www.islaminkorea.net

우물림받은 무함마드를 숭배하는가?

일부다쳐

이슬람은
예상을 억압하는
종교인가?

'알라'는
누구인가?

이슬람은
칼에 의해
전파 되었는가?

무사람림들은 그분(주)의 자들이며
테러리스트들이가~

편자 Huseyin KIRDEMIR
옮긴이 이형주(Fathullah)

한국인들이 이슬람에 대해 궁금해 하는 33가지!



아담출판사

한국인들이 이슬람에 대해 궁금해 하는 33가지!

편자 Husayin KIRDEMIR
옮긴이 이형주 (Fathullah)



아담출판사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Allah,
Most Gracious, Most Merciful.

한국인들이 이슬람에 대해
궁금해 하는 33 가지!

목차

머리말	7
일러두기	12
1. 무슬림들은 다른 하나님을 숭배하는가?	13
2. '알라'는 누구인가?	16
3. 무슬림들은 무함마드(S.A.W.)를 숭배하는가?	22
4. 무함마드(S.A.W.)가 꾸란을 썼나?	25
5. 꾸란은 사탄의 작품인가?	28
6. 꾸란은 어떻게 기록되었나?	31
7. 이슬람은 아랍인들만의 종교인가?	37
8. 무슬림들은 카아바를 숭배하는가?	39
9. 이슬람의 다섯 기둥은 무엇인가?	42
10. 이슬람은 칼에 의해 전파 되었는가?	52
11. 여성들이 착용하는 히잡	63
12. 이슬람은 여성을 억압하는 종교인가?	74
13. 일부다처	97
14. 일처다부	105
15. '지하드'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108
16. 무슬림들은 근본주의자들이며 테러리스트들인가?	111
17. '이슬람의 테러'라는 용어는 과연 맞는 것인가?	116

18. 돼지고기는 왜 금지됐나?	129
19. 술은 왜 금지됐나?	137
20. 이슬람은 금욕의 종교인가?	145
21. 동물들을 도살하는 이슬람식 방법은 무엇인가?	150
22. 이슬람식 상속은 무엇인가?	152
23. 모든 종교들은 사람들에게 의로움을 가르치는데, 왜 오직 이슬람만을 따라야 하는가?	155
24. 이슬람과 무슬림들의 실천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167
25. 이슬람에 있어서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170
26. 이슬람에 있어서 내세는 무엇인가?	176
27. 무슬림들은 예수(A.S.)를 인정하지 않는가?	185
28. 이슬람에서는 원죄를 어떻게 보는가?	189
29. 꾸란은 무슬림들에게 모세오경(토라), 시편(자부르), 그리고 복음서(인질)를 믿도록 가르치는가?	192
30. 한국에서는 이슬람이 어떻게 보급, 발달되어 왔는가?	195
31. 한국에서는 이슬람교를 왜 '회교' 라고 부르는가?	199
32. 별과 초승달은 무슬림들의 상징인가?	200
33. 이슬람으로 개종한 사람들의 진술로부터 끌어낸 결론은 무엇인가?	203
참고문헌	209
이슬람 용어 사전	211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	216
이슬람 및 한국 이슬람에 대한 홈페이지 주소	217
영어로 된 이슬람에 대한 홈페이지 주소	217
한국이슬람성원안내	218

머리말

종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인류에게 보내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법입니다. 종교는 인간에게 인간이 창조되어진 목적에 대해 알려줍니다. 이를 통해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한 번뿐인 삶이 목적 없는 무의미한 것이 아님을 깨닫고 더불어 그를 창조한 창조주를 알고 그 분을 숭배하여 현세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 후의 삶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인간을 가장 올바르게 평화로운 길로 인도하며 더 나아가 민족과 인종간의 평화와 화합을 이루어, 온 인류가 공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슬람¹⁾은 모든 인류를 위한 보편적인 종교입니다. 이슬람은 평등의 종교이며 성별, 인종, 피부색, 빈부 등의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종교입니다.

1) 아랍어로 '이슬람'이란, '하나님에 대한 복종'이라는 뜻과 '그 분의 인도에 헌신함으로써 자신의 평화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과의 평화를 획득함'이라는 뜻을 가진다. 보편종교는 대체로 종교의 창시자(불교나 기독교)나 소속 지명(힌두교) 혹은 인종명(유대교)으로부터 그 이름이 비롯되었다. 그러나 이슬람은 이슬람이라는 종교의 고유이념인 '순종'과 '평화'의 뜻을 그대로 담고 있는 단어인 '이슬람'을 그 이름으로 한다고 경전 꾸란에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서양에서 이슬람교를 칭할 때 쓰이는 '마호메트교'나 동양에서 이슬람교를 '회교(回教)'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슬람은 하나의 새로운 종교가 아니며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인류에게 계시하신 똑같은 진리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계인구의 1/4을 차지하는 이슬람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뜻에 복종할 때 인류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종교입니다. 인간이 자기 삶을 올바르게 영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항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생활을 유지하며, 개인과 사회의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자원이며, 둘째는 인간이 자기완성을 실현하고 생활 속에 정의와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개인과 사회 행동의 원칙에 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풍족히 마련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연 속에 모든 종류의 자원을 마련하셔서 인간이 마음껏 이용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정신적·사회적·문화적 욕구에 응하여 사람들 중에 선지자들을 택하여 인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생활의 규범을 계시하셨습니다. 이 생활규범이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들이 전파한 종교인 이슬람인 것입니다.

이슬람은 현대 사회에 있어서 이국적으로 또는 심지어 극단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오늘날의 비무슬림 사회에서는 종교가 매일 매일의 삶을 지배하지 않는 반면에 무슬림들은 그들의 삶 자체가 종교이며 항상 종교를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일상의 삶과 신앙생활 사이의 구별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터키와 형제나라인 한국에 유학 온지 거의 11년이다 되

었습니다. 터키에서 이슬람이란 제게 있어 너무도 자연스러운 저의 종교이자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와서 저는 이슬람을 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는 한국 사람들로부터 이슬람에 대한 많은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한국사람들이 이슬람의 진리에 대해 올바르게 알고 싶어하며, 인간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진리로서 이슬람을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모습들을 많이 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그들의 마음 속에 존재하는 이슬람에 대한 몇 가지 의문점들에 대한 해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점에 가서 이슬람과 관련된 책들을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슬람을 올바르게 알리는 책들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서점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이슬람 관련 책들은 진실한 이슬람을 알리기에는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 신분이었지만, 한국사람들에게 이슬람을 올바르게 알릴 수 있는 책들을 만들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여러 권의 책들이 출판되었고, 이 책은 한국사람들이 자주 제게 질문하는 이슬람에 대한 내용들을 간추린 것입니다.

한국사람들이 이슬람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들의 대부분은 TV, 라디오, 인터넷, 신문, 잡지, 책 등의 매스미디어를 통해 전해지는 언론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그러한 언론은 서구 세계의 시각에 의한 것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나라들도, 전세계 인구 중 17억 명이 믿고 있는 이 종교를 단순히 서구의 시각으로만 보아왔고 받아들여왔습니다. 그로 인

해 이슬람에 대한 올바르게 진실된 사실들이 왜곡되어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은 세계 각 곳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9.11 사건 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미국에서만도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의 수가 9.11 사건 이전보다 더욱 증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종한 이들의 상당수는 지식층이었습니다. 우리는 질문해봅니다. 도대체 이슬람의 무엇 때문에 사람들은 이슬람을 자신의 종교로서 또한 진리로서 받아들이는 걸까요?

이 책은 Zakir Abdul Karim Naik의 '20 Most Common Questions About Islam(이슬람에 대한 가장 흔한 질문 20가지)' 과 월간 잡지 '아름다운 이슬람' 에 실린 글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졌으며 여기에 13가지 질문들을 추가하여 총 33가지의 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질문들에 대한 답변은 이 책을 읽는 여러분에게 이슬람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여 줌과 동시에 이슬람을 진정으로 올바르게 알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책을 펴낸 본인의 바람입니다.

이 책을 펴낼 수 있도록 해주신 지고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바입니다.

이 책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이형주 Fathullah 형제, Muneer형제, 항상 큰 용기와 희망을 주며 저의 한국말 표현에 도움을 주는 저의 사랑하는 아내 윤은노 Aliyah, 김은수 Karam 형제, 이혜진 Hiba 자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신 다른

모든 분들께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진지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고 진리를 추구하는 분들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2005년 11월

후세인 크르데미리

일러두기

1. 이 책에서 사용되는 '선지자(Prophet)' 라는 말은 구약과 신약 성경(성서, The Bible)에서 나오는 말인 '예언자' 와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2. 이슬람에서는 선지자들(예: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 무함마드)의 이름 뒤에 덧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지자 무함마드(그분에게 평화가 깃드시기를), 이 말은 아랍어로 '쌀랄 라후 알라히 와쌀람(Salla' llahu Alayhi Wa sallam)' 입니다. 그분을 제외한 다른 모든 선지자들의 이름 뒤에는 '평화가 그분에게' 라는 말을 덧붙이며 아랍어로는 '알레이히 쌀람(Alayhi' s-Salam)' 입니다. 이렇게 이름 뒤에 그 분들을 존경하는 말을 덧붙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무슬림들에게 꾸란 33장 56절을 통해서 그렇게 하기를 지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실로 하나님과 천사들이 선지자를 축복하여 주셨으니, 믿는 자들이
여 그 분께 축복을 드리고 정중한 인사를 하라."

(꾸란 33장 56절)

선지자 무함마드와 다른 선지자들의 이름 뒤에 붙이는 말이 조금 다른 것은 단지 무슬림들이 그렇게 습관처럼 말하여왔기 때문이며, 선지자들을 차별하여 존경하는 것은 아님을 밝혀둡니다. 이 책에서는 모든 선지자들의 이름 즉, 선지자 무함마드 뒤에는 약자로 'S.A.W.',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의 이름 뒤에는 'A.S.' 로, 축약하여 표기하였습니다.

3. 이 책에서 꾸란 말씀과 성경(성서) 말씀은 녹색으로, 선지자 무함마드(S.A.W.)의 말씀은 파란색으로 표기하였습니다.

1. 무슬림들은 다른 하나님을 숭배하는가?

질문

무슬림은 다른 하나님을 믿는가?

대답

첫 번째로 우주와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심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역사를 돌아보면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거짓 우상들을 만들어왔다. 또한 하나님은 진실로 단 한 분이시며, 오직 홀로 경배 받으실 분이라는 것에도 불구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거짓된 생각들을 만들어 내곤 했다.

불행히도 몇몇의 사람들은 무슬림이 믿는 하나님은 유대교나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과 다르다고 여긴다. 이것은 무슬림이 하나님을 “알라”라는 이름으로 말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더 큰 이유는 수 세기에 걸쳐 이슬람을 어떤 이유에서든 지 해(害)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퍼진 이슬람에 대한 거짓과 왜곡 때문이다.

무슬림이 믿는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이자 선지자이신 아담을 비롯하여 선지자 노아,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예수(그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드시기를)를 보내신 하나님, 즉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다.

‘알라(Allah)’ 라는 말은 하나님을 칭하는 아랍어이다. 그러므로 아랍계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칭할 때 그들 또한 ‘알라’ 라고 칭한다. 마치 한국에서는, ‘하나님’ 이란 호칭을 쓰고, 미국에서는 하나님을 ‘God’ 라는 이름으로 칭하듯이 각각의 나라와 언어에 따라 하나님을 칭하는 명칭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 만약 당신이 아랍어로 번역된 성경(Bible)을 본다면, 당신은 영어 ‘God’ 라는 말 대신 ‘Allah(알라)’ 라는 말이 쓰여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매스컴이나 책 등 각종 글에서 이슬람교에 관한 내용을 접할 때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이 ‘알라신’ 이라는 명칭이다. 번역서의 경우에도 원문에는 알라(Allah) 혹은 신(God)으로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말 번역본에는 ‘알라신’ 으로 되어 있다. 그만큼 ‘알라신’ 이라는 명칭은 한국에서 널리 관행적으로 쓰이고 있고, 무슬림(이슬람을 믿는 사람)이 아닌 독자들은 그 호칭에 별다른 견해나 의문을 품지 않는다. 하지만 ‘알라신’ 이란 말은 곧 ‘하나님신’ 이란 뜻이 되며 이것은 크나큰 오류이다. 즉 한국에서 자주 잘못 쓰이고 있는 “알라신” 이란 칭호는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유일신의 개념에 완전히 어긋나기 때문에 매우 잘못된 표현이다.

알라에 대한 개념은 무엇인가?

비록 무슬림, 유대인 그리고 기독교인이 같은 하나님을 믿는

다고 할지라도 사실 하나님에 대한 각각의 개념은 꽤 다르다. 무슬림은 하나님이 세 분(성부, 성자, 성신)이라는 삼위일체설과, 하나님의 성육신화(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내려오셨다)하여 세상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이슬람의 가르침들은 그러한 신비나 역설들에 의존하고 있지 않다. 이슬람의 가르침들은 모호하지 않으며 매우 분명하다. 이슬람에서는, 하나님을 가장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사랑이 가득한 분이라고 가르친다. 또한 그 분은 그 분 자체로 전지전능 하시기에 어떠한 이유로도 인간으로의 육신화가 필요하지 않다고 가르친다.

이슬람의 가르침 중 다른 종교와 비교되는 독특한 점은, 인간 개개인이 중간적 매개자 없이도 얼마든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사적이고 충만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슬람에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은 인간일 뿐, 신성에 대한 모호함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무슬림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중개자 없이 인간과 직접적으로 교류하신다고 믿는다. 이것이 이슬람의 진실되고 명료한 가르침이다. 그리고 이 가르침들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믿음과 하나님께서는 어떤 속죄양이나 희생양 없이도 그 분의 창조물들에게 그 분의 영광과 자비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믿음에 근거를 두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슬람은 사람들에게, 단 한 분이신 진실한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 분만을 홀로 숭배할 것을 말하고 있다.

2. '알라'는 누구인가?

질문

무슬림들은 또 다른 신을 숭배하는가?

대답

많은 비무슬림들이 이슬람에 대해 갖는 가장 커다란 오해는 '알라(Allah)' 라는 말과 관련이 있다. 그들은 무슬림들이, 기독교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믿는 신과는 다른 '알라' 라는 신을 숭배한다고 믿고 있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알라' 라는 말은 '하나님' 을 뜻하는 아랍어이기 때문이다.

영어권에서는 하나님을 'God' 라고 하는데 이 'God' 라는 단어는 그 형태와 의미가 쉽게 변형될 수 있다. 반면 아랍어 단어인 '알라' 는 순수하며 독특하고 그 의미와 형태의 변형이 불가능하다. 'God' 에 's' 를 붙이면 'Gods' 가 되어 여러 신을 뜻하는 'God' 의 복수형이 된다. 반면 '알라' 는 복수형으로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한 'God' 에 'dess' 를 붙이면 'Goddess' 가 되며 그 의미는 '여신' 또는 '숭배의 대상이 되는 여성' 이 된다. 반면 '알라' 는 '남성 알라' 나 '여성 알라' 라는 의미로 변형될 수 없다. 알라는 성을 가지지 않는다. 'God' 의 앞에 접두

사 'tin' 을 붙이면 그것은 'tin-God' 즉 '거짓 하나님' 이 된다. 알라는 독특한 낱말로서 전지전능하시고 한 분뿐이신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떠한 것도 '알라' 라는 이름으로 불리어지지도 않으며 불릴 수 없다. 때로는 무슬림들이 비무슬림들과 대화를 할 때에 '알라' 대신 'God (하나님)' 이라는 단어를 써야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대화를 나누는 비무슬림이 '알라' 라는 단어에 대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경우이다.

무슬림에게 알라(Allah)는 전지전능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셨으며, 그것을 유지하시는 분이시다. 그 분은 어떤 누구와도 닮지 않으시며, 어떤 것도 그분과 비교될 수 없다.

하나님에 대한 가장 간결한 정의

선지자 무함마드(S.A.W.)께서 사람들로부터 알라(Allah)께서 어떤 분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꾸란 112장에서 그에 대한 답을 직접 선지자 무함마드(S.A.W.)에게 계시하셨으며, 이 꾸란 112장은 이슬람의 유일신 사상이 가장 잘 나타나고 있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 가장 잘 정의 내리고 있는 장이다.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라.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낳지도 않으시고 낳아지지도 않으셨으며, 그분과 대등한 것은 세상에 없도다.”

(꾸란 112장 1-4절)

하나님은 인간이 되지 않으신다

이슬람은 하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묘사한다든지 또는 하나님을 민족이나 인종에 따라 어떤 개인이나 국가를 선호하시는 분으로 묘사하는 것을 금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만드셨으며 그가 속한 민족이나 인종, 그가 가진 부나 명예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향한 믿음과 올바른 삶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하나님께서 천지창조의 일곱 번째 날에 휴식을 취하셨다든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병사들 중 한 명과 씨름을 하셨다든지, 하나님께서는 인류에 대항하는 질투심 많은 책략꾼이라든지 혹은 하나님께서 어떤 인간의 모습으로 형상화하신다든지 하는 개념들은 이슬람의 관점에서 보면 모두 신성 모독적인 것들이다.

하나님의 특질과 인간의 특질은 절대 양립될 수 없다. 하나님은 불멸이나, 인간은 필멸이다. 우리는 신인(神人) 즉 불멸의 인간이 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시작이 없으시나 인간에게는 시작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끝이 없으시나 인간에게는 끝이 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나 인간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음식을 필요로 한다.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름으로 오직 '알라(Allah)' 라는 단어만을 유일하게 사용하는 것으로써 이슬람이 모든 선지자들의 메세지의 핵심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순수한 믿음을 강조하는 것을 잘 보여준다. 이 믿음 때문에 이슬람은, 하나님을 어떤 다

른 성령이나 인간과 연관 짓는 것을 가장 치명적인 죄로 간주한다. 하나님께서는 꾸란에서, 다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 할지라도 이 죄만큼은 결코 용서하시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의 창조물과 닮지 않았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창조하신 피조물과는 다른 성격을 가진다. 만일 창조주께서 그 분께서 창조하신 피조물과 같은 본성을 갖는다면, 그분 또한 일시적인 것이며, 스스로를 위한 또 하나의 다른 창조주를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온 우주의 어떤 것도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서는 스스로 존재하신다

창조주가 일시적이지 않다면, 그분은 영원하심에 분명하다. 그분께서 영원하시다면, 어떤 것도 그분을 낳을 수 없다. 어떤 것도 그분을 낳을 수 없다면, 또한 어떤 것도 그분을 존재하게 하는데 관여할 수 없다. 즉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며 어떤 이의 도움도 필요치 않으시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존속을 위해 다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으심은 그분의 존재가 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최초이자 마지막 존재이시다.” 이슬람은 사람들에게 한 분이신 진정한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말하며 하나님만을 숭배하라고 가르친다.

위대한 예술가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가정에는 가장이 있고, 학교에는 교장이 있으며, 도시에는 시장이 있고, 주에는 주지사가 있으며, 국가에는 국가의 원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모든 생산물은 그것을 만든 이가 있으며, 모든 훌륭한 예술품은 어떤 예술가가 창조해낸 결과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들이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궁금증과 진리에 대한 의문에 대한 답이 되지 못한다. 수려하고 절묘한 경치를 보여주는 자연의 미, 끝없이 펼쳐진 하늘의 지평선, 그리고 그 지평선 멀리의 아스라함, 쉬지 않고 질서 정연하게 이루어지는 낮과 밤의 교대, 해와 달과 행성의 궤도, 생물계와 무생물계, 인간의 탄생과 죽음, 대대로 이어지는 인간의 부단한 진보와 그 과정, 이 모든 것을 보고 느끼며, 경험하는 인간은 종종 경탄해 마지 아니한다. 우리가 더불어 살고 있고, 무한히 항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도대체 누가 만들었으며, 유지시켜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 인간은 매우 자주 커다란 의문에 사로잡힌다. 그리고 또한 인간은 이러한 거대하고 신비스러운 자연 앞에서 스스로의 존재의 목적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창조해낼 수 없으며 완전히 이해할 수도 없는 이 우주의 삼라만상을 만들어 낸 그 어떤 존재가 있음에 틀림없다. 이 존재는 모든 존재 중 가장 강한 존재이며, 이 존재를 예술가에 비유하자면 가장 위대한 예술가일 것이다. 진실하고 선하며 사리(事理)에 밝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진리를 추구하며 마침내는 이 위대한 존재에 대해 깨닫고 믿으며 그 분을 곧 '하나님(알라)'이라 부른다.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은 그 분은 창조자이시며 생명의 창시자이시며 만물의 존재를 유지시키는 부양자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다른 인간을 창조하거나 만들 수 없기에, 그분은 인간이 아니다. 그분은 어떤 동물이나 식물 또는 태양, 달, 별과 같은 것도 아니며 우상도 아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스스로 생겨날 수도 다른 것들을 창조해 낼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하나의 거대한 체계에 의해 통제되며 그것을 통제하는 이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은 이 모든 것들을 만들고 유

지시키는 분이기에 이 모든 것들과 구별된다. 만든 자는 만들어진 것과는 다르며 그보다 위대하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우리는 또한 그 어느 것도 스스로 생겨날 수 없으며 경이로 가득 찬 이 세계가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안다.

우주 안에 있는 온갖 사물과 현상을 창조하시고 유지시키는 분, 인간을 창조하고 부양하시는 분, 자연의 질서를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이시는 분, 이 모두에 해당되는 그 분이 곧 '알라 (하나님)' 이시다. 이 분이 야말로 신비중의 신비이며, 만유 중에서 가장 지고한 분이시다.

3. 무슬림들은 무함마드(S.A.W.)를 숭배하는가?

질문

무슬림은 선지자 무함마드(S.A.W.)를 숭배하는가?

대답

주의

이슬람을 '무함마드 주의(Mohammedism)'로 간주한 18세기와 19세기 서양의 신학자들의 생각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다.

이슬람에 따르면 무함마드(S.A.W.)는 하나님의 마지막 선지자다. 그는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그 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드시기를)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선지자들 중 한 분이었다. 과거로부터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예수(A.S.)를 신으로서 섬기는 것처럼 무슬림들도 무함마드(S.A.W.)를 신으로서 섬긴다고 잘못 유추하고, 그것을 일반화시킴으로써 큰 오류를 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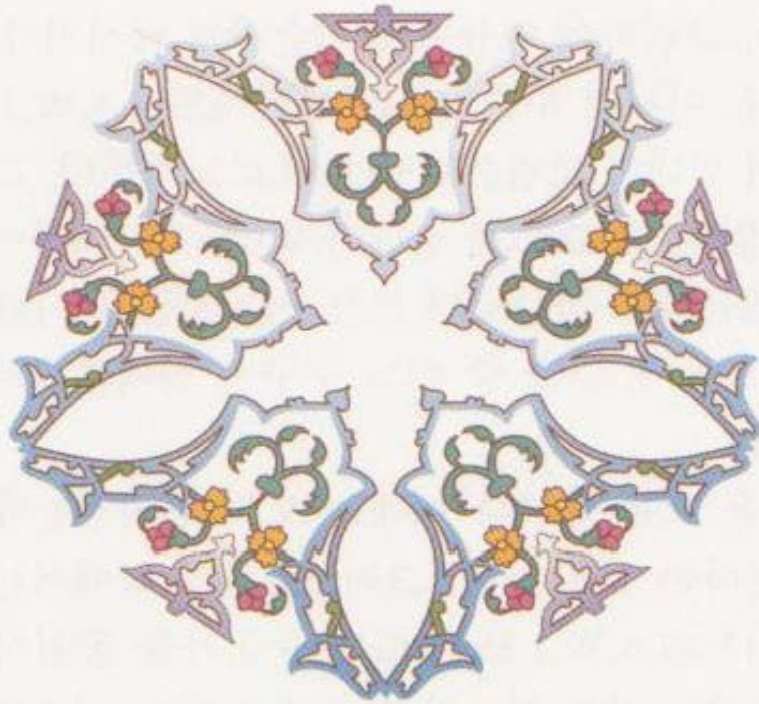
이것이 바로 그들이 아주 오랜 동안 무슬림들을 잘못된 이름인 "모하메단(무함마드를 숭배하는 사람들)"이라고 부른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무함마드(S.A.W.)는 그의 생애에서 단 한번도 그가 신과 같은 능력이나 권리를 가졌다고 주장한 적이 없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숭배할 것을 권고했다. 그리고 그는 무슬림들로 하여금 기독교인들이 예수

(A.S.)를 신격화함으로써 범했던 오류들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인간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사람들이 그를 신격화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항상 그 자신을 “하나님의 선지자며 종”이라는 말로 언급하였다. 무함마드(S.A.W.)는 하나님에 의해 보내어진 복음의 전달자로서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는가를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예로서 선택된 마지막 선지자였다. 무슬림들은 그를 사랑하고 존경한다. 왜냐하면 그는 한 시대 최고의 인격자였고 이슬람의 진리인 유일신 사상을 하나님께로부터 가져왔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선지자 무함마드(S.A.W.)를 인류에게 보내심을 통해서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셨다. 그리하여 인류에게 이슬람의 메시지가 널리 퍼지도록 하셨다. 이처럼 무슬림들은 무함마드(S.A.W.)의 삶의 모습을 하나의 위대한 모범으로 따르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그들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를 숭배하지 않는다. 덧붙이자면 이슬람은 무슬림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들을 사랑하고 존경할 것을 가르치며,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신격화시켜 숭배하는 것을 금한다.

무슬림들은 모든 숭배와 예배는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만 드려진다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이슬람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무함마드(S.A.W.) 또는 다른 누군가를 동일시하거나 숭배한다고 말하는 것은 최악의 죄로 간주된다. 이슬람에서 신앙 선언이란 곧 ‘오직 하나님만을 숭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선언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으며, 무함마드는 하나님의 선지자다.”

불교가 ‘부처’ 를,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 를, 조로아스터교가 ‘조로아스터’ 를 지칭하듯이 다른 종교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사람의 이름을 따서 종교의 이름이 정해졌다. 결국 ‘마호메트교’ 라는 명칭은 번창했던 이슬람세계의 역사와 문화를 적대시해 온 서구인들이 이슬람을 격하시키기 위해 이슬람이 마치 샤머니즘을 떨 종교인 것처럼 왜곡하려고 사용한 것일 뿐이다.



4. 무함마드(S.A.W.)가 꾸란을 썼는가?

질문

선지자 무함마드(S.A.W.)께서 꾸란을 쓰셨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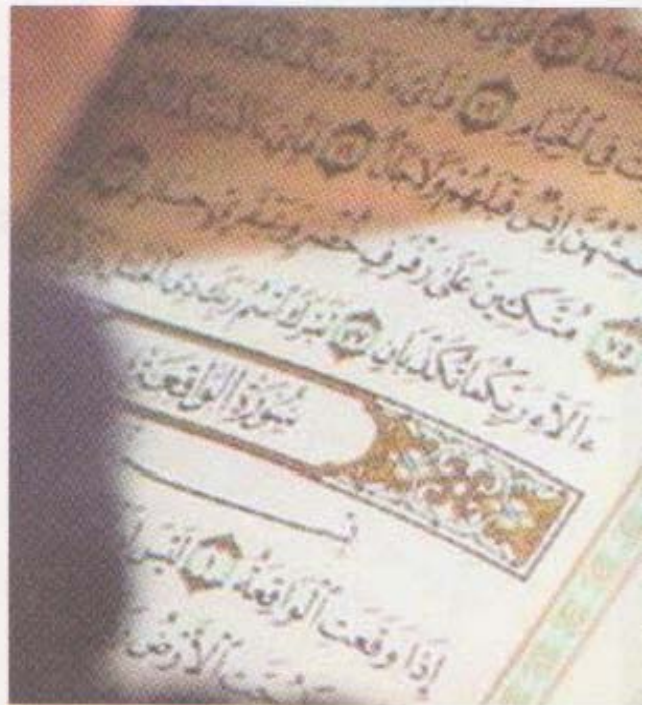
대답

선지자 무함마드(S.A.W.)가 꾸란을 썼다는 오해를 불식시킴에 있어서, 꾸란에서는 매우 분명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왜 그들은 꾸란을 속고하지 않느냐 만일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왔다면 그들은 그 안에서 많은 모순을 발견했으리라.”

(꾸란 4장 82절)

꾸란이 계시된 당시에, 아랍인들은 아름다운 시를 구사하는데 뛰어났으며, 그들에게 있어 꾸란의 언어는 매우 독특한 것으로서 그것은 문맹자였던 선지자 무함마드(S.A.W.)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선지자 무함마드(S.A.W.)는 읽고 쓸 줄 모르는 사람임을 꾸란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만일 이것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그와 동시대의 사람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한 그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의 말이 거짓이라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사실상 선지자 무함마드(S.A.W.)에게는 수 천명의 충성스러운 추종자들이 있었고 그들의 노력의 결과로서 이슬람은 단 일세기 동안 스페인에서 중국까지 전파되었다. 꾸란이 계시된 이후로 많은 아랍인들이 시를 쓰는 일을 포기하는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는 꾸란이 아랍의 그 어느 문학 작품 보다 뛰어나며, 선지자 무함마드(S.A.W.)와 동시대의 사람들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인 꾸란을 능가할만한 어떠한 글도 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게다가, 선지자 무함마드(S.A.W.)는 꾸란 속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는 역사적 사건들, 이전의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당시의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자연현상과 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이것은 꾸란의 몇몇 구절들에서 확인되는 바이다.

꾸란에 대한 몇 가지 재미있는 사실들은 다음과 같다.

- ▶ 꾸란은 선지자 무함마드(S.A,W.)에 관한 전기적 정보를 전혀 포함하지 않는다.
- ▶ 사실상 선지자 무함마드(S.A,W.)의 이름은 꾸란 전체에 4번 언급 뿐이다.
- ▶ 꾸란에는 선지자 무함마드(S.A,W.)의 친구들이나 친척들 또는 자식들의 이름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 ▶ 꾸란에는 선지자 무함마드(S.A,W.)와 그의 행위를 혼계하는 몇 개의 구절이 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뜻이라 하되 그대가 잊었을 때는 주님을 염원하라 내가 바라보니 나의 주님께서 이것보다 더 가까이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 말하라.”

(꾸란 18장 24절)

“선지자께서 눈살을 찌푸렸고 등을 돌리셨나니 장님이 그분께 다가와 방해하였기 때문이라.”

(꾸란 80장 1-2절)

이러한 구절들을 통해 선지자 무함마드(S.A,W.)가 꾸란을 저술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꾸란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암송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가장 잘 보전된 성서일 뿐만 아니라, 그 메시지의 명료함, 언어의 완벽함 그리고 진리의 순수성에 있어서 그 어느 것과도 비교될 수 없을 것이다.

5. 꾸란은 사탄의 작품인가?

질문

꾸란이 사탄의 작품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대답

선지자 무함마드(S.A.W.)가 사탄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는 메카의 이교도들이 제기한 주장에 대한 대답으로 다음의 절들이 계시되었다.

“이것이 성스러운 꾸란이라 잘 보호된 성서로 청결한 자 외에는 아무도 스치지 아니한 만유의 주님으로부터 계시된 것이다.”

(꾸란 56장 77절-80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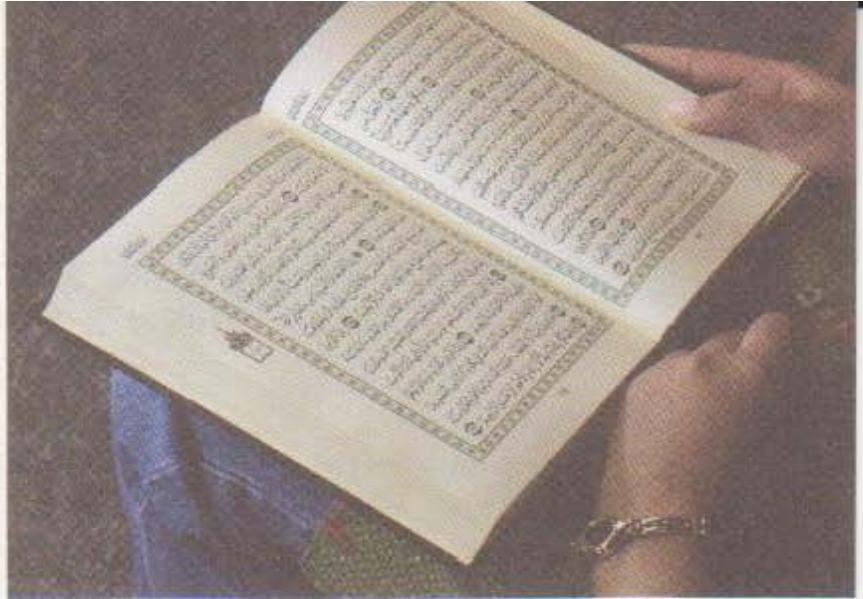
즉, 꾸란은 사탄이 건드릴 수 없는 것으로 꾸란의 절을 사탄이 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꾸란의 다음 절들을 또 들어보자.

“사탄이 이 계시서를 가지고 오지 아니했으며, 그것은 사탄들에게 적합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그것을 만들어낼 능력도 없나니, 진실로 그들은 그것을 듣는 기회마저 박탈당하였노라.”

(꾸란 26장 210-212절)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 대해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탄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몇 가지를 제외하고

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그들은 사탄의 힘이 하나님보다 약간 아래라고 생각한다. 꾸란이 기적의 계시서임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꾸



란을 사탄의 작품이라고 말한다. 만일 사탄이 꾸란을 썼다면, 다음의 말을 언급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꾸란을 낭송하려 할 때 저주받은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하나님께 보호를 구하라.”

(꾸란 16장 98절)

사탄이 꾸란을 썼다면, 사탄은 꾸란을 읽는 이들에게 “너희가 내 책을 읽기 전에 하나님께 나로부터 너희를 구해달라고 부탁하라”고 경고한단 말인가?

꾸란에는 사탄이 꾸란의 저자가 아니라는 증거를 충분히 보여주는 몇몇 절들이 있다.

“사탄으로부터의 어떤 암시가 너희 마음을 괴롭힐 때 하나님께 피난처를 구하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아시니라.”

(꾸란 7장 200절)

사탄이 자신을 추종하는 인간들에게 어떤 암시를 줄 때, 그의 적인 하나님께 피난처를 구하라고 말할 것인가?

“사람들이여 지상에 있는 허용된 좋은 것을 먹되 사탄의 발자국을 따르지 말라 그는 실로 너희들의 반역자라.”

(꾸란 2장 168절)

“아담의 자손들이여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사탄을 숭배하지 말라 그는 너희들의 분명한 적이라.”

(꾸란 36장 60절)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을 설득하여 그가 꾸란을 썼다고 생각하도록 만들 만큼 교활한 존재이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사탄은 실로 보잘것없는 존재이다. 하나님은 사탄의 사악한 의도를 아시고, 꾸란 속에 꾸란이 사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보여주는 많은 증거들을 제시해 놓으셨다.

6. 꾸란은 어떻게 기록되었나?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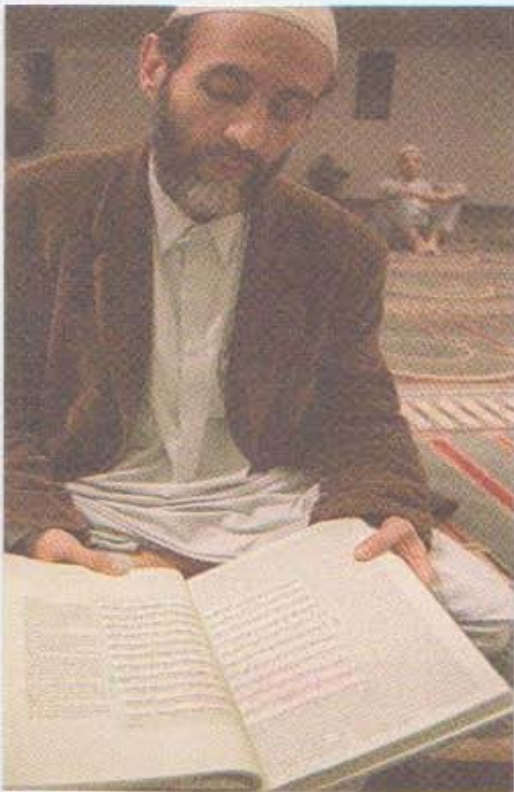
꾸란의 기록은 언제 어떻게 되었나?

대답

꾸란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정확한 출처 때문에, 계시서 중 구약성서나 신약성서와는 비교되는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오늘날 현존하는 형태로 전해지기 전의 구약성서와 복음서에는 변질된 점이 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하지만 선지자 무함마드(S.A.W.) 당시 바로 기록되었다는 명백한 이유 때문에, 꾸란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구약성서의 경우, 그 내용들이 기독교 이전 시대부터 변질되어 있었다. 성서의 이야기를 전하는 저자들의 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내용은 부정확하고 모순된다. 복음서가 예수(A.S.)에 대한 충실한 어록, 또는 그분(예수)의 행동이 변질되지 않고 사실대로 기록되어 있다고는 어느 누구도 확실히 주장할 수 없다. 이 경전의 연속관에서는 정확한 출처가 빠져있으며 그 저자들이 바로 서술한 내용들의 직접적인 목격자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계시 기록서로서의 꾸란과, 선지자 무함마드(S.A.W.)



의 언행을 수집해 놓은 하디스¹를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하디스에 대해 이야기해보면, 그 분이 돌아가신 순간부터 하디스는 선지자의 교우들에 의해 기록되기 시작했다. 인간의 실수가 담겨있을 수 있으므로, 그 선집에 있어서 다양하고 공정한 비판과 관정을 거친 뒤에야 그 집대성된 내용들을 실제로 믿고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었다. 복음서처럼 하디스의 출처는 다양하다. 어느 복음서도 예수(S.A.)

님 당시에 기록되지 않았으며(그분이 지상에서 사명을 끝낸 오랜 뒤에야 기록되었다), 어떤 하디스도 선지자 무함마드(S.A.W.) 당시에 수집되지 않았다.

꾸란은 천사 가브리엘이 선지자 무함마드(S.A.W.)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선지자가 그분의 나이 63세(서기 632년)에 사망할 때까지 23년 동안의 긴 기간, 즉 이슬람력 이

1 하디스란 선지자 무함마드(S.A.W.)가 일생에 걸쳐 이슬람을 선교하는 동안(서기 610년 - 634년)에 보여주었던 그의 행동 및 사례들을 수록 편찬한 '언행록'을 말한다. 선지자 무함마드(S.A.W.) 생존시 그의 교우들은 선지자의 말과 행동 및 사례들을 세밀하게 기록하였다. 이를 선지자 사후 이슬람 초창기의 헌신적이고 독실한 신학자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 심혈을 기울인 연구 조사를 통해 집대성했다.

꾸란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전(原典)이지만, 하디스는 꾸란에 대한 해설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뜻과 교훈을 완전히 이해함에 있어서 하디스의 연구는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하디스의 도움 없이는 꾸란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 13년부터 이후 10년까지 계속되었다. 꾸란 말씀의 계시가 계속됨에 따라 선지자 무함마드(S.A.W.)와 그분의 추종자들은 그 내용을 암송하였으며 이것은 반복적으로 행해졌다. 또한 그들 중 일부는 이를 기록하였다. 이렇게 꾸란 구절을 암송하고 기록하는 일은 선지자가 사망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 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글을 쓸 수는 없었지만 머릿속으로 기억하여 외울 수 있었으며, 계시된 모든 꾸



란 말씀들을 모아 한 권의 묶음으로 편집할 때 이러한 암송은 기록된 꾸란과 암송된 꾸란을 비교할 수 있게 함으로서 그 신빙성을 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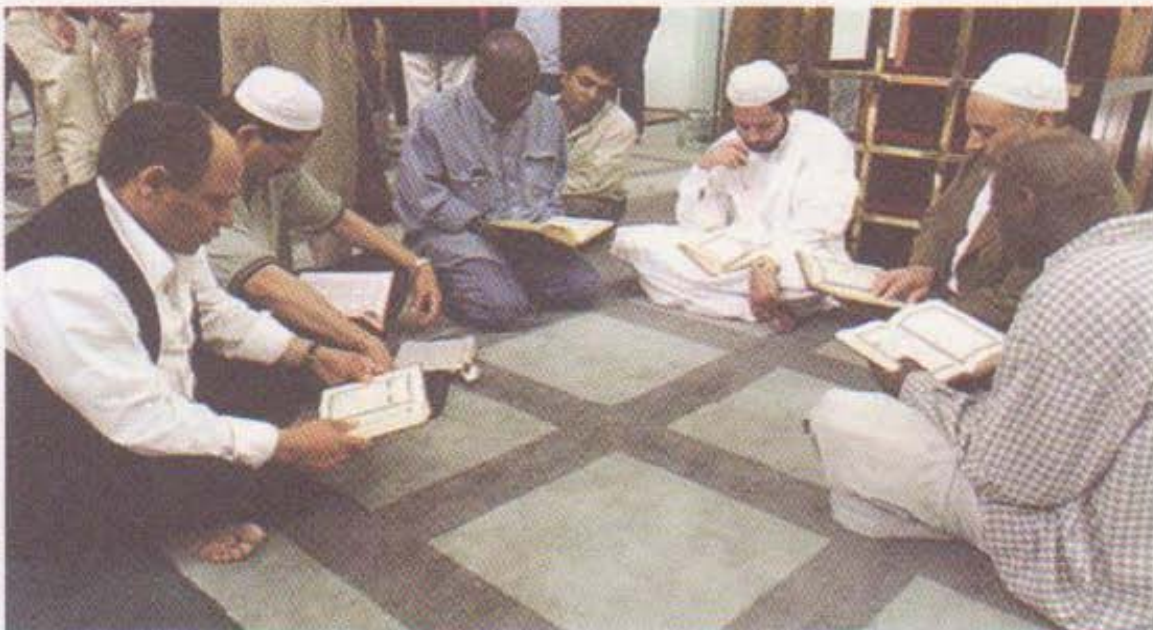
이슬람학자인 하미들라(Hamidullah) 교수는 “선지자는 꾸란의 기록자에게 받아쓰게 한 것을 다시 읽게 하여 어떤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였다”는 언급이 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또한 “매년 라마단 달(단식을 행하는 달)에 선지자는 (그 때까지 계시 받은) 꾸란을 전부 가브리엘 천사 앞에서 암송했으며, 선지자가 사망하기 전 마지막 라마단 달에 가브리엘 천사는 그분께 두 번 암송해 주었다. 선지자 생시 이래로 무슬림들은 라마단 달 밤에 드리는 특별한 예배 중에 꾸란 전부를 암송하는 습관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꾸란을 최초로 기록할 당시에는 종이가 없었기에 매우 다양

한 재료들이 그 기록을 위해 사용되었다. 양피지, 가죽, 나무판, 낙타 어깨뼈, 매끄러운 돌 등이 그것이다.

선지자 무함마드(S.A.W.)는 기록과 동시에 충실한 신자들에게 꾸란을 암송하라고 권하였다. 그들은 예배 중에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분을 암송하였으며 점차적으로 꾸란을 전부 암송하여 남에게 전하는 하피즈(꾸란 암송자)가 생겼다. 그리하여 꾸란경전은 그것을 기록함과 동시에 암송하여 이중으로 보존되어 전하여졌으며, 21세기인 지금에도 꾸란의 전부를 암송하는 이들은 어느 나라에서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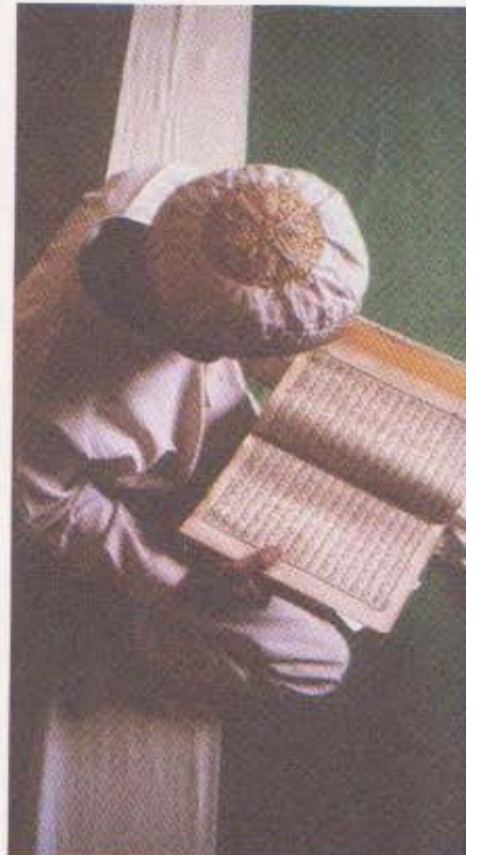
선지자 무함마드(S.A.W.)가 돌아가시고(632년)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슬람의 초대 칼리파(계승자)인 아부 바크르(Abu Bakr)는, 선지자 무함마드(S.A.W.) 곁에서 꾸란의 기록을 주로 맡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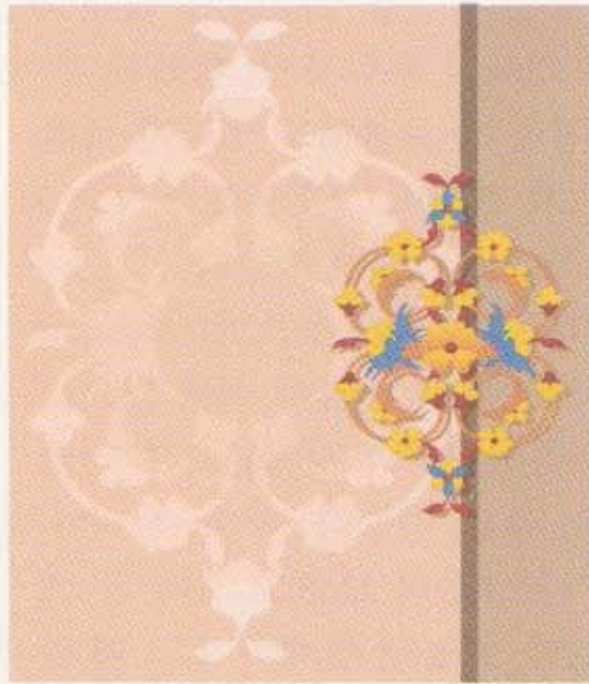
던 자이드 이븐 사비뜨에게 모든 꾸란 구절들을 집대성하여 한 권으로 만들라고 명령했다. 우마르(Umar)(차기 칼리파)의 제안으로 자이드는 메디나에서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구하였다. 즉 하피즈(꾸란 암송자)가 암송하고 있던 꾸란말씀 전부와 각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여러 재료(양피지, 가죽, 나무판, 낙타 어깨뼈, 매끄러운 돌 등)에 적힌 꾸란 말씀 전부를 모두 모아 한 권으로 만들면서 생길 수 있는 실수를 없앴다. 그리하여 매우 믿을 만한 꾸란 경전을 소장할 수 있게 되었다.

634년 아부 바크르의 후임자인, 칼리파 우마르는 처음에 만들어진 꾸란 경전을 잘 보존하고 있다가 죽을 때 그분의 딸이자 선지자 무함마드(S.A.W.)의 미망인, 하프사(Hafsa)에게 주었다.

이슬람의 제3대 칼리파인 우스만(Uthman)은 644년에서 655년까지 칼리파 직에 있으면서 꾸란 경전 원본을 7권의 필사본으로 만들어 메카, 이집트, 예멘, 바스라, 쿠파, 시리아, 바흐레인으로 각각 1권씩 보냈고, 원본은 메디나에 보관하였다. 오늘날 현재까지 그 때 만들어진 필사본 두 권이 남아있는데 한 권은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토프카프(Topkapi) 박물관에 있으며, 다른 한 권은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쉬켄트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현재 전세계에 있는 모든 꾸란은 7권의 꾸란 필사



본으로부터 복사된 것으로, 파리 국립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서기 8, 9세기 즉 이슬람력 2, 3세기의 꾸란 경전을 포함하여 오늘날까지 일 획 일 점의 차이도 없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



7. 이슬람은 아랍인들만의 종교인가?

질문

이슬람은 아랍인들만을 위한 종교인가?

대답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위해서 우리는 전세계 무슬림들 중 오직 15% 내지 20%만이 아랍인들이라는 사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

다. 세계의 무슬림 인구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인도네시아의 무슬림들이다. 이슬람이 오직 아랍인들만을 위한 종교라는 잘못된 믿음은 이슬람 역사의 초기 시절 이슬람을 반대하는 이들에 의해서 잘못 전파된 사실이다. 아마도 1 세대 무슬림들의 대부분이 아랍인들이었고, 꾸란이 아랍어로 되어있으며, 선지자 무함마드(S.A.W.)가 아랍인이었다는 사실로 인해 그러한 추측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슬람의 가르침과 그 전파의 역사를 살펴보면, 초기의 무슬림들이 진리의 메시지를 아랍인들에게뿐만 아니라 전세계 모든 민족과 모든 인종에게 전달하고자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모든 아랍인들이 무슬림이 아니며 또한 모든 무슬림들이 아랍인이 아님은 분명한 사실이다. 아랍인 중에는 무슬림뿐만 아니라 기독교인, 유대교인, 무신론자 또는 그 밖의 온갖 다른 종교나 이데올로기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터키나 이란 같은 나라들을 아랍국가라고 착각하며 그들의 뿌리가 아랍에 있다고 쉽게 간주해 버린다. 그러나 터키나 이란에 사는 사람들은 아랍어가 아닌 그들 자신의 고유언어(터키어, 페르시아어)를 갖고 있고 아랍인들과는 다른 종족적 유산을 갖고 있다. 선지자 무함마드(S.A.W.)의 시절에 그의 추종자들의 구성원들은 아주 다양한 개인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들 중에는 아프리카의 노예인 빌랄, 로마인 수하이브, 유대교의 랍비였던 이븐 사일람, 그리고 페르시아인 살만 등이 있었다.

인류의 뿌리는 하나이며 모든 인종과 민족은 한 형제인 까닭에 이슬람은,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계시가 언제나 한결같고, 분명하며, 보편적인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슬람의 진리는 인종, 국적, 또는 언어적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다. 수많은 유럽인들과 미국인들이 자신들의 인종과 민족적인 배경을 떠나 이슬람의 품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과 나이지리아에서 보스니아까지 또 말레이시아에서 아프가니스탄까지 무슬림들의 세계를 한 번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이슬람이 모든 인류를 위한 보편적인 메시지임이 증명된다.

8. 무슬림들은 카아바를 숭배하는가?

질문

이슬람에서는 우상 숭배를 금하는데, 왜 무슬림들은 예배를 할 때에 카아바를 향하여 절하는가?

대답

카아바는 무슬림들이 예배시에 향하는 방향이다. 이렇게 하는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으며 무슬림들은 카아바를 숭배하지 않는다. 무슬림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숭배하며 하나님께만 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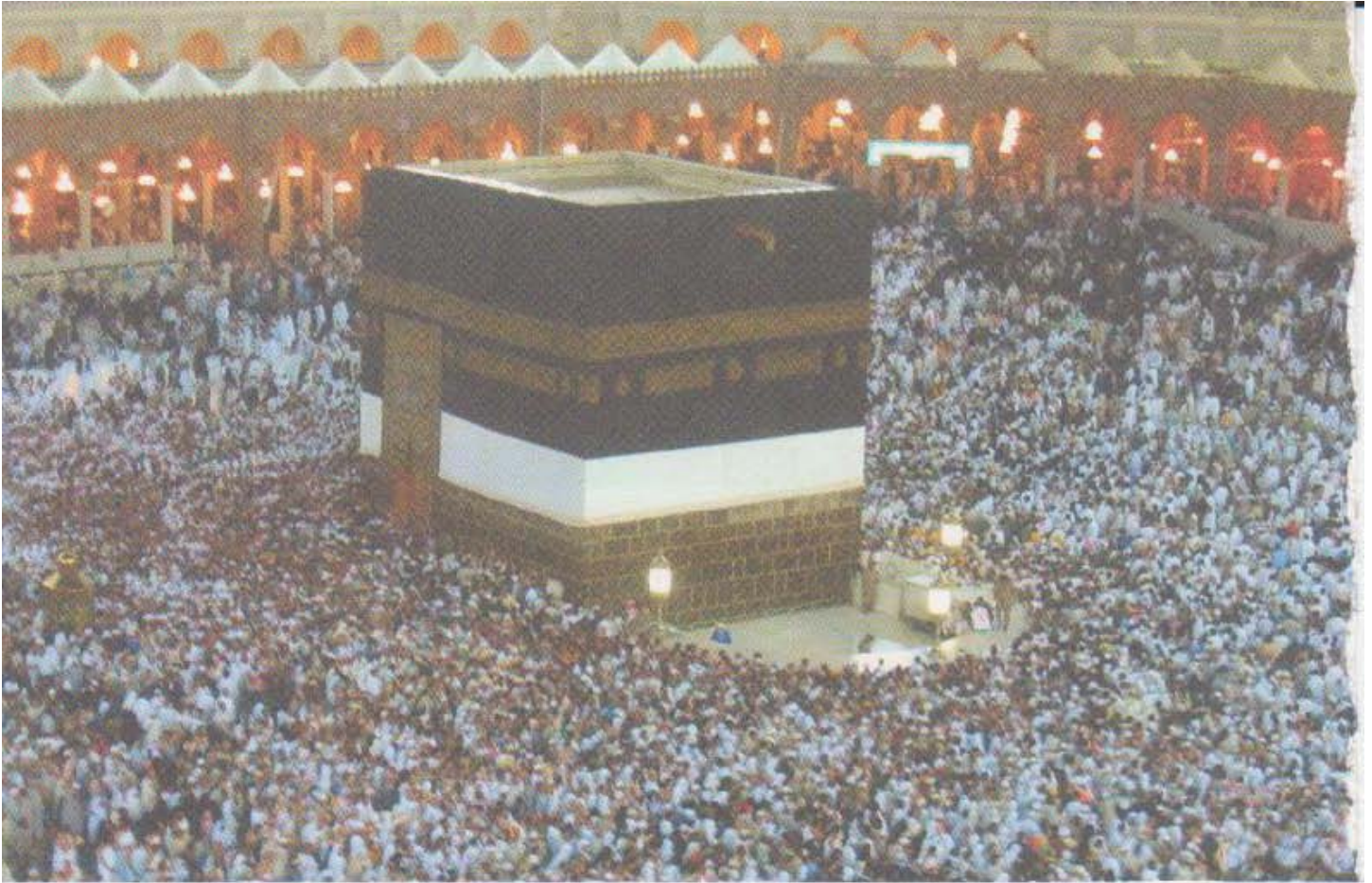
꾸란에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향한 그대의 얼굴을 보고 있었노라 그대가 원하는 기도의 방향을 향하게 하리라 그대의 고개를 영원한 경배의 장소로 향하라 어디에 있든 그 쪽으로 고개를 향할지니...”

(꾸란 2장 144절)

1. 이슬람은 통일성을 장려한다

만약 각각의 무슬림들이 예배를 혼자 드릴 때나 함께 드릴 때에 각기 다른 방향을 향한다면, 한 분이신 진정한 하나님을 숭배함에 있어서 그 통일성이 약화될 뿐만 아니라 혼란이 야기되



기 쉬울 것이다. 무슬림들은 그들이 전세계 어디에 있건 오로지 한 방향 즉 카아바를 향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카아바의 서쪽에 사는 무슬림들은 동쪽을 향하면 되고, 카아바의 동쪽에 사는 무슬림들은 서쪽을 향하면 되는 것이다.

2. 카아바는 세계지도의 중앙에 있다

무슬림들은 세계지도를 최초로 그린 사람들이다. 그들은 남쪽은 위쪽으로 향하고 북쪽은 아래쪽을 향하도록 지도를 그렸다. 그 때 카아바는 지도 중앙에 있었다. 나중에 서양의 지도 제작자들은 북쪽은 위쪽으로 향하고 남쪽은 아래쪽으로 향하도록 거꾸로 지도를 그렸다. 그러나 카아바는 여전히 세계지도의

중앙에 있다.

3. 타와프 (Tawaf, 카아바 주위를 돌면서 걷기)

무슬림들이 메카에 있는 하람 성원(Masjid al-Haram)에 가게 되면 그들은 타와프 즉 카아바 주위를 돌면서 걷기를 한다. 이 행위는 모든 원이 구심점을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숭배를 받을 가치가 있는 분은 원의 중앙에 계시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뿐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숭배를 상징한다.

4. 과거에 사람들은 카아바 위에 올라가서 아잔을 불렀다

선지자 무함마드(S.A.W.)의 시절, 사람들은 심지어 카아바 위에 올라가서 아잔을 부르기도 했는데, 무슬림들이 카아바를 숭배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숭배하는 우상 위에 오르겠는가?

카아바는 무엇입니까?

카아바는 무슬림들에게 가장 신성한 곳이다. 카아바는 사우디 아라비아의 메카에 있는데, 원래 최초의 인간이자 선지자인 아담(A.S.)에 의해 건립된 제단으로서 이후에 선지자 아브라함(A.S.)과 그분의 아들 이스마엘(A.S.)에 의해 재건축 되어졌으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아브라함(A.S.)에게 모든 인류가 이 곳을 방문하도록 명하셨다.

카아바는 경배의 장소일 뿐 그 자체가 경배의 대상은 아니다. 학자들과 역사가들은 카아바가 5번에서 12번에 걸쳐 재건축 되었다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꾸란의 3장 96절에서 "이것은 하나님을 숭배하기 위해 인간에게 지어진 최초의 집이었다" 라고 말씀하셨다.

9. 이슬람의 다섯 기둥은 무엇인가?

질문

이슬람의 기둥이란 무엇인가?

대답

이슬람의 다섯 기둥은 이슬람의 기초이며 무슬림이라면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다. 이 다섯 가지 기본 율법들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서 무슬림들의 신앙생활에 뿌리이다. 그 기둥들은 중요성의 순서에 따라 열거된다. (1) 신앙의 선언, (2) 예배, (3) 회사, (4) 단식, (5) 성지순례이다. 무슬림들은 이 율법들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실천한다.

1. 첫 번째 기둥으로서 가장 중요한 기둥은 '신앙의 선언(샤하다:Shahada)'이다

이것은 '하나님(알라)외에는 신이 없으며, 무함마드(S.A.W.)는 하나님의 선지자다' 라는 선언인데, 누구나 이슬람을 받아들여 할 때에 이 구절을 입으로 소리 내어 말한다. 무슬림들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며 무함마드는 마지막 선지자로서 인류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음을 진실로 믿는다.

2. 두 번째 기둥은 '예배(살라:Salah)'이다

무슬림들은 하루에 다섯 번 예배를 드려야 한다. 무앗진(mu'adhhdhin)은, 마스진(이슬람 성원)의 미나렛(탑:minaret)에서 사람들에게 예배하러 올 것을 알리는 사람인데, 그는 '아잔(예배 시간을 알리는 소리:Adhan)을 부른다. 예배는 새벽, 정오, 오후, 저녁, 밤의 정해진 시간에 근행된다. 예배는 무슬림과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고리이다.

예배를 할 때 무슬림들은 하나님에 대한 복종의 표시로 엎드려 절한다. 예배는 아랍어로 낭독되는 꾸란의 말씀을 포함한다. 매 금요일 정오에는 마스진(이슬람 성원)에서 근행되는 합동 예배가 있다. 이 예배 때는 하나님 앞에 모든 무슬림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미한다. 또한 예배 후에는 한 주 동안의 서로의 안부를 묻는 등 형제애를 돈운다.

미약한 인간으로서 위대한 존재를 숭배하고 그에 의지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이다. 이러한 본능을 충족 시켜주는 것이 바로 예배이며, 그것은 또한 인간의 성향을 가장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한다.

이슬람에는 위계질서적 권위가 없기에 사제가 없다. 이슬람에서의 예배는 각 무슬림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고귀한 순간이므로 어느 누구도 중간에 매개자 역할을 할 수 없다. 예배는 해가 뜨기 전, 정오,



오후, 저녁, 밤의 시간에 행해지는 것으로 그것은 하루 생활을 계획적으로 만들어주며 무의미하게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막는다. 예배는 되도록이면 마스진(이슬람 성원)에서 행하는 것이 좋지만 직장, 사무실, 공장, 학교, 들판 그 어디에서건 장소에 관계없이 행할 수 있다.

이슬람에서의 예배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예배는,

1. 하나님께 대한 인식과 감사의 표시이다.
2. 하나님과 그분의 선을 상기시킨다.
3. 하나님과 모든 가치 있는 목적에 대한 헌신이다.
4. 인생의 가장 곧은 길로 안내한다.
5. 영적 수양과 윤리적 건전성의 씨앗이다.
6. 마음의 평온과 안정을 위한 열쇠이다.
7. 인내와 용기, 희망과 자신감의 풍부한 원천이다.
8. 심신 단련과 의지력 향상을 돕는다.
9. 모든 악한 마음과 행동에 대한 방어이다.
10. 진정한 평등과 확고한 통일성과 형제애의 시현(示顯)의 바탕이다.
이것이 이슬람의 예배이며, 예배를 드림으로서 인간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이다.

3. 세 번째 기둥은 '단식(사움:Sawm)'이다

단식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한 지침으로서 선지자 무함마드(S.A.W.)에게 계시를 내리시어 꾸란을 주신 라마단 달에 행해진다.

단식은 하나님께서 그의 종복들에게 정해 놓으시고 그들로



하야금 수행할 것을 명하신 의무적 계율들 중의 하나이다. 단식은 다른 숭배들과 다른 특별함을 가지고 있는데, 단식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보이지 않는 관계의 정도까지 영혼을 고양시키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위한 대부분의 숭배는 인간을 위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행해진다. 그러나 단식을 통한 숭배는 하나님과 그의 종복 사이에서 하나님만이 보시고 아시는 비밀로 남는다.

무슬림들은 해 뜨기 전 미명의 새벽부터 일몰까지 단식을 행하여 그 시간 동안 모든 음식(물은 물론 사람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음식을 비롯, 담배도 포함)을 금한다. 그러므로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이 시간 동안에는 성관계를 제한하며, 자신의 욕구충족을 위해 행했던 평소의 모든 행위에 대한 절제를 해야 한다. 이는 라마단 달 한 달간 매일 계속되며, 사람이 느끼는 모든 근본적인 욕구를 이 기간 동안 철저히 제한함으로써 우리가 평소 너무나도 쉽게 누리는 모든 것들에 대한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가? 또 어디로부터, 왜 나에게 오는가를 생각하길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때론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 매 순간 부족하다 느끼며 더 가질 수 없음에 불평한다. 그럼으로 인해 주변에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 무관심하게 되고 때로는 그들의 존재조차도 느끼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한 인간이 일생 동안 얼마나 가질 수 있을까? 그리고 가진다 하여도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가? 인간은 풍요로운 삶의 영위와 사회적인 명성의 획득을



위해서 노력한다. 이슬람에서는 내세의 삶뿐만 아니라 현세의 삶의 가치 또한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기를 권고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차이점이 있다. 즉, 삶에 대한 진정한 가치와 이해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며 그것이 삶의 전제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아홉을 가지고도 하나를 가지지 못해 부족하다 느낀다면 우리는 하나마저도 갖지 못해 절망하며 고통 받는 우리의 이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이슬람에서는 라마단 달 동안의 단식을 통해서, 스스로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함을 느낄 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타인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단식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 기간 동안 무슬림은 매 순간 절제하며 스스로가 끊임없는 유혹과 싸워야 한다. 이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가면서 단식을 시작하기 전에 누리고 있던 것들에 대한 진정한 가치와 감사함에 대해 깨닫게 되며, 눈앞에 가진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게 됨으로써 자신이 가진 것을 타인과 나누려는 마음을 갖게 된다.

이슬람에서 가르치는 단식의 의미는 이와 같이 단순한 개인 수양의 단계를 넘어선 스스로를 인내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나눔을 배우는 사회적 훈련인 것이다.

임신이나 아기 양육 등의 이유로 단식을 행할 수 없는 무슬림



여성은 라마단 달이 끝난 후 단식을 하지 못한 날 만큼의 단식을 보충해야 한다. 또한 건강상의 이유로 단식을 행할 수 없는 무슬림은 단식을 하지 못한 날 만큼에 해당하는 식사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여야 한다.

라마단 달이 끝나면 모든 친지들이 함께 모여 선물과 인사를 나누는 축제가 벌어진다.

이슬람에서의 단식의 영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이슬람에서의 단식은,

1.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가르쳐 준다. 단식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2. 삶의 희망과 긍정적 인생관을 갖게 해 준다. 단식을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려 그분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3. 진정한 덕, 즉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마음가짐을 심어 준다.
4. 건전하고 깨끗한 양심을 배양시킨다.
5. 인내심과 비이기심을 고취시킨다.
6. 절제력과 의지력의 효과적인 실습이다. 단식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자신의 욕구를 통제하고 육체적인 유혹에 초연할 수 있게 된다.
7. 투명한 영혼으로 초월의 경지에 들게 하고 맑은 정신으로 사고할 수 있게 하여 경쾌한 몸으로 행동할 수 있게 한다.
8. 단식함으로써 물질적인 소비는 자연스럽게 줄어들며 더 나아가 물질에 대한 통제 또한 가능하게 한다.
9. 어려움에 처할 경우에 정신적 신체적으로 잘 적응할 수 있게 한다.
10. 같은 기간 같은 시간 모두 함께 단식을 행함으로써, 사회적 귀속, 화합과 형제애, 하나님과 법 앞에서의 평등의 참다운 정신을 진작시킨다.



4. 네 번째 기둥은 '희사(자카:Zakat)'이다

'희사(자카)'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그 뜻은 '청결'이다. 이슬람에서의 희사는 단순히 자기 재산의 일부를 타인에게 기부하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가진 재물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이며, 그 재물을 소유한 자의 의무는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슬람에서의 희사는, 그것을 행하는 자의 마음에 청결을 바탕으로 하며, 이를 사회적 의무로 연결지음으로서 진정한 의미의 공평한 부의 재분배를 이루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능력이 있는 무슬림들은, 한 개인 당 일정액의 재산을 1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가 버는 순수익의 2.5%를 희사함을 의무로 하고 있다.

이슬람에서 희사는,

1. 가진 자의 재산을 가지지 못한 타인에게 일정량을 분배함으로써 그의 재산을 정화시킨다.
2. 재물에 대한 인간의 과도한 욕심과 이로 인한 부정행위, 가난한 사람이 부자에게 가질 수 있는 시기와 질투로부터 우리 마음을 정화시킨다. 결국 사회 전체가 정화되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의 차별과 악감, 계급투쟁과 의혹, 불신, 부패와 분열, 그리고 이런 류의 모든 해악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3. 사회에서 가난하고 불쌍한 이들의 경제적 고통을 최소한으로 덜어 준다. 하지만 희사는 그들을 위한 영원한 경제적 지원이 아니며 가난한 이들이 스스로를 보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의 방법이므로

여기에 무조건 의존하여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4. 이기적 탐욕과 사회적 불화, 파괴적 이데올로기의 침투에 대한 건전한 형태의 내부적 방위 수단이다. 기부자에게는 사회적 책임감을, 수령자에게는 안전감과 귀속감을 길러 주는 효과적인 구실을 한다.
- 5. 개인과 사회가 서로 화답하여 상호 작용하는 영적 인도주의적 정신의 생생한 시현(示現)이다.

이슬람에서의 회사는, 개인과 사회, 국민과 국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물질주의와 정신주의 사이에 온건하고 중도적이긴 하지만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노선(路線)을 취하는 이슬람의 일반 철학을 나타낸다.

5. 마지막 다섯 번째 기둥은 '하지(Hajj)'라고 불리는 메카로의 '성지순례'이다

매년 이루어지는 메카로의 성지순례는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수행 가능한 사람에게만 부과되는 의무이다. 매년 약 2백만 명의 사람들이 전세계로부터 메카를 찾아오며 이는 이슬람력으로 12월에 시작된다. 순례자들은 모두 흰 천으로 몸을 두르는 복장을 함으로서 국적과 인종, 문화, 사회적 지위에 구별이 사라지며 모든 순례자들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게 서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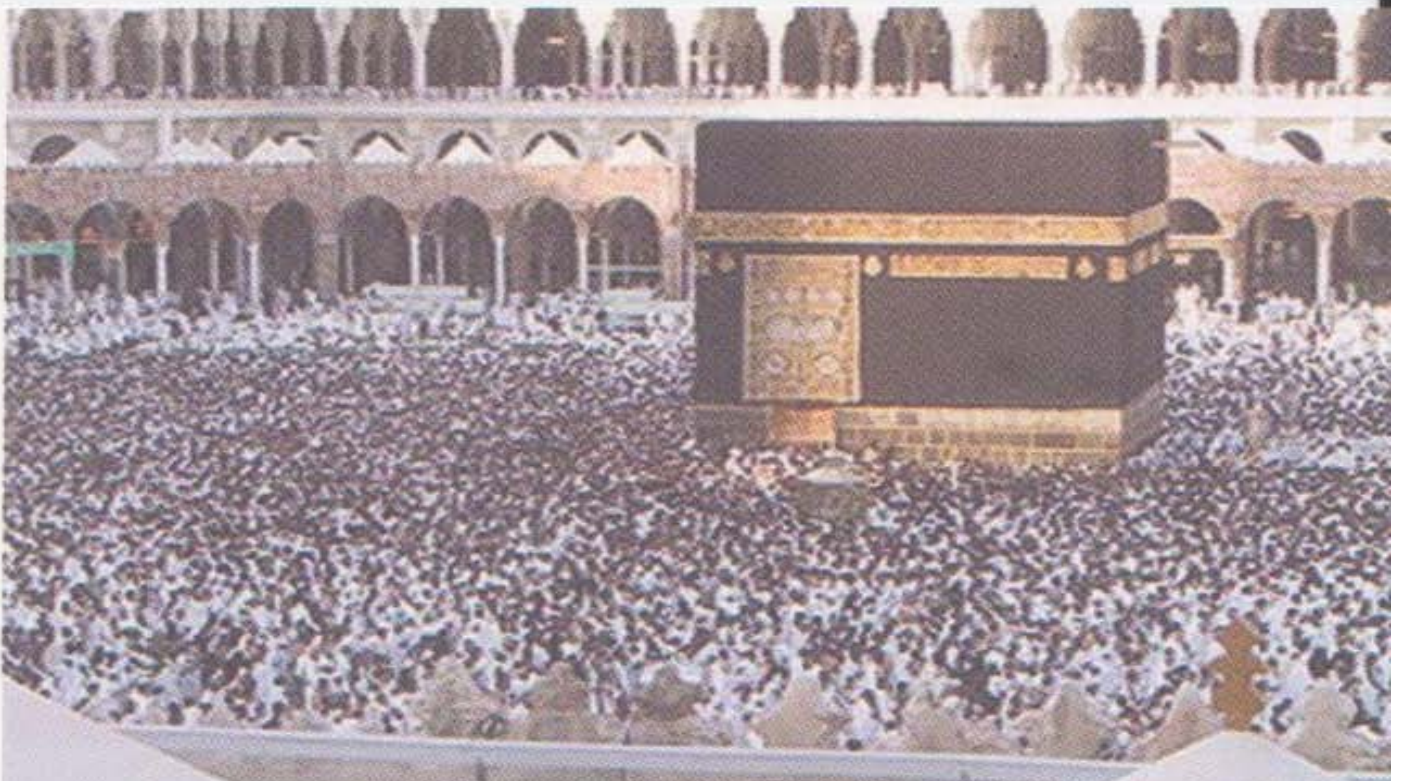
선지자 아브라함(A.S.)으로부터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는 성지순례 의식에는 카아바 주변을 7차례 순회하는 일과 하갈(Hagar, 아브라함의 부인)이 물을 찾아 헤매었던 것처럼 사파와 마르와 이 두 산 사이를 7차례 갔다 왔다 하는 일이 포함된다. 그 다음, 순례자들은 아라파트(Arafat)의 넓은 평원 위에 모두 함께 서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에 동참하는데 이것은 심판의 날에 대한 예행연습으로 흔히 생각된다.

성지순례는 여러 목적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서 명하신 바, 그 목적들 가운데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성지순례는,

1. 무슬림들이 만나 서로가 서로를 알고 공통의 문제의 해결과 복지를 증진시키려고 노력하는 연례 최대의 신앙적 만남이다.
2. 무슬림의 형제애와 평등사상을 건전하게 실현시킨다.
3. 하나님께로 향한 믿음으로 현세의 삶의 물질적 욕구를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겸허한 마음가짐을 더욱 강하게 한다.
4. 순례자들은 선지자 무함마드(S.A.W.)의 영적, 역사적 환경을 경험하여 신앙심이 강해진다.
5. 선지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신성한 의식을 상기한다.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은 인류 최초의 하나님의 성전 곧 메카의 카아바를 최초로 순례하였다.
6. 심판의 날을 상기시킨다. 이 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모두 평등하게 서서 자신들의 심판을 기다리게 될 것이다. 인종이나 혈통의 우수성은 이 날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

이슬람의 다섯 기둥은, 무슬림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복종의 표시이다. 이것은 지켜져야 할 율법일 뿐만 아니라, 생활양식이다. 하나님을 굳게 믿는 무슬림들은 최선을 다해 이 다섯 기둥을 실천한다. 어떤 이는 이슬람의 다섯 기둥이 왜 그렇게 무슬림들에게 신성한 것이냐고 물을 수 있다. 그 대답은 간단하다. 그것은 바로 이 다섯 기둥의 실천을 통해서 무슬림들은 이슬람 안에서 하나님을 따르며, 올바르게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며, 그 어느 누구도 제한시킬 수 없는 강한 신앙심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 있는 하람성원안에 카아바와 성지순례자들



성지순례 장소 중 하나인
아라파트(Arafat)산



성지순례자들

10. 이슬람은 칼에 의해 전파 되었는가?

질문

만약 이슬람이 칼에 의해 전파되었다면, 어떻게 이슬람을 평화의 종교라고 할 수 있는가?

대답

이슬람은 역사적으로 타종교를 가진 이들에게 자신의 종교를 강요한 적이 없다. 이슬람이 페르시아, 아프가니스탄, 중앙아시아, 그리고 인도까지 확산되었을 때 피정복지인들에게 자신들의 종교를 지키도록 종교적 자유를 주었던 것이 이슬람의 정책이다. 이와 같이 그들은 이슬람을 다른 이들에게 강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회에 들어가 마치 흙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물과 같이 이슬람을 받아들이게 했다. 일부 비무슬림들은 흔히, 이슬람이 폭력에 의해 전파되지 않았더라면 전 세계에 걸쳐 그 신봉자가 수백만 명이 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음의 내용들은 이슬람이 빠르게 전파된 이유가 칼에 의해서가 아니라 진리, 이성, 논리의 내면적인 힘의 결과로 인하였음을 분명히 밝혀줄 것이다.

1. 이슬람은 '평화'를 의미한다

이슬람은 '살람(Salaam)'이라는 아랍어 말에서 나온 것으로 그 의미는 '평화'이다. 이슬람은 또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복종'을 뜻한다. 따라서 이슬람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복종을 통한 평화'를 의미한다.

2. 때로는 평화 유지를 위해 힘이 사용 되어져야 할 때가 있다

이 세상에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평화를 깨뜨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들을 제재(制裁)하기 위해서는 힘의 사용이 불가피한 것이다. 우리사회에 경찰제도가 존재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이슬람은 평화를 촉진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에서는 믿는 이들에게 그들을 억압하는 상대권력에 대한 방어와 투쟁을 허락한다. 만약 무슬림이 정의롭지 못한 압제에 시달리게 되면 그는 힘을 사용하여 그러한 상황에서 투쟁하고 평화를 촉진해야만 하는 것이다.

꾸란에서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너희에게 도전하는 하나님의 적들에게 도전하되 그러나 먼저 공격하지 말라 하나님은 공격하는 자들을 사랑하지 않으시니라.”

(꾸란 2장 190절)

이슬람에서는 힘은 오직 평화와 정의를 유지하기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다.

3. 역사학자 De Lacy O'leary의 의견

이슬람이 칼에 의해서 전파되었다는 오해에 대한 가장 훌륭한 대답은 저명한 역사학자 De Lacy O'leary의 '갈림길에 선 이슬람 (Islam at the Crossroad)' 이라는 책의 8쪽을 보면 알 수 있다. "피정복민들에게 칼끝을 겨누어 이슬람을 강요하며 전세계를 휩쓸고 다니는 미친 무슬림들에 대한 전설은 역사학자들이 이제껏 반복해온 가장 터무니없는 이야기임을 역사 스스로가 분명히 밝혀준다."

4. 무슬림들은 스페인을 800년 동안 지배했다



스페인의 꼬르도바 성원

무슬림들은 스페인을 800년 동안 지배하면서, 스페인 사람들을 개종시키기 위해 칼을 사용한 적이 결코 없었다. 오히려 나중에 십자군들이 스페인에 들어와 무슬림들을 남김 없이 모조리 살해하였다.

5. 1,400만 명의 아랍인들은 기독교인들이다

영국인들이 몇 년간 그리고 프랑스인들이 한동안 아라비아(중동지역, 북아프리카)를 지배한 적이 있었지만, 1,400년이란 오랜 기간 동안 아라비아를 지배했던 주인은 바로 무슬림들이었다. 오늘날에 아라비아에는 1,400만 명의 아랍인 기독교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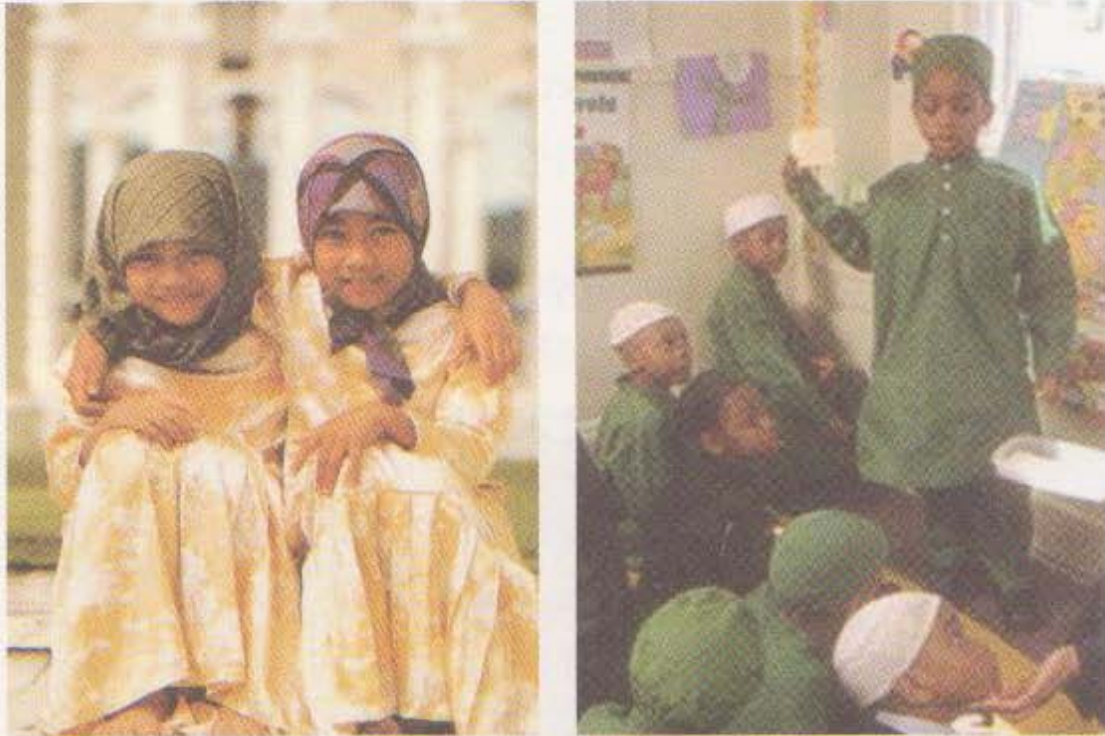
데, 그들은 이슬람이 오기 전에 이미 그곳에 존재했던 이들이었다. 만약 무슬림들이 무력을 사용하여 이슬람을 전파했다면, 현재 아라비아에는 기독교인 아랍인이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래의 표는 2005년 현재 일부 이슬람 국가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다른 종교들을 믿는 사람들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지역명	국가명	각 종교를 믿는 이들의 비율 (%)
북아프리카	모로코	무슬림 98.7%, 기독교인 1.1%, 유대인 0.2%
	알제리	무슬림 99%, 기독교인 및 유대인 1%
	튀니지	무슬림 98%, 기독교인 1%, 유대인 1%
	리비아	무슬림 98%, 기독교인 1%, 카톨릭교인 1%
	이집트	무슬림 84%, 기독교인 및 기타종교인 8%
중동 지역	요르단	무슬림 92%, 기독교인 6%, 기타종교인 2%
	이라크	무슬림 97%, 기독교인 및 기타종교인 3%
	이란	무슬림 98%, 조로아스터교인, 유대인, 기독교인 및 바하이교인 2%
	시리아	무슬림 90%, 기독교인 10%
	레바논	무슬림 70%, 기독교인 30%
	수단	무슬림 70%, 원시종교인 25%, 기독교인 5%
	쿠웨이트	무슬림 85%, 기독교인, 힌두교인, 파시교인 및 기타종교인 15%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무슬림 96%, 기독교인, 힌두교인 및 기타종교인 4%	
아시아대륙서쪽	터키	무슬림 99.8%, 기독교인 및 유대인 0.2%
인도양도해동부	방글라데시	무슬림 83%, 힌두교인 16%, 기타종교인 1%
동남아시아	브루나이	무슬림 87%, 불교도 13%, 기독교인 10%, 원시종교인 10%
	인도네시아	무슬림 83%, 기독교인 5%, 카톨릭교인 3%, 힌두교인 2%, 불교도 1%, 기타종교인 1%

출처 : <http://www.factmonster.com/ipka/A0855613.html>

만약 이슬람이 칼로 전파되었다면, 즉 그 당시에 무슬림들이 비무슬림들을 강제로 이슬람으로 개종시키려고 했다면, 어떻게 지금까지 기독교, 유대교, 힌두교, 불교 등 다른 종교들이 이슬람과 함께 공존하겠는가?



세계에서 현재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인 인도네시아의 경우, 이슬람교 88%, 기독교 5%, 카톨릭교 3%, 힌두교 2%, 불교 1%, 기타종교 1%와 같이 이슬람과 함께 다른 종교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가장 큰 지방에는 무슬림이 대다수이다. 그러나 몇몇 지역에서 무슬림들은 소수인데, 파푸아지방, 동 누사 텡가라와 발리지방이 바로 그러한 지역이며 이곳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힌두교와 불교를 믿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이슬람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종교를 지닐 수 있도록 존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인도 인구의 80%이상이 비무슬림이다

무슬림들은 인도를 약 천년 동안 지배하였다. 그 당시 그들은 모든 비무슬림 인도인들을 이슬람으로 개종시킬 수 있는 힘이 있었다. 오늘날 인도 인구의 80% 이상이 비무슬림이다. 이들이 바로 오늘날 이슬람이 칼에 의해 전파되지 않았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7.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무슬림 인구가 많은 나라이다. 말레이시아의 대부분의 인구는 무슬림이다. 과거에 어떤 무슬림 군대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를 침략한 적이 있었는가?

8. 아프리카 동쪽 해안

마찬가지로, 이슬람은 아프리카의 동쪽 해안에 급속히 전파되었다. 만일 이슬람이 칼에 의해 전파되었다면 어떤 무슬림 군대가 아프리카 동쪽 해안을 침략했는가?

9. 종교에는 강요가 없다

과연 어떤 칼로 이슬람이 전파되었는가? 무슬림들은 꾸란의 다음 말씀 때문에 이슬람을 전파하기 위해 결코 칼을 사용할 수 없었다.

“종교에는 강요가 없나니, 진리는 압혹으로부터 구별 되니라.”

(꾸란 2장 256절)

만일 이슬람에서, 무슬림이 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은 죽어야 한다고 가르쳤다면, 이슬람 제국이 그렇게 오랫동안 번창하던 때에 어떻게 그 모든 비무슬림들이 생존할 수 있었겠는가? 뿐만 아니라, 맨 처음 스페인과 모로코로부터 인도와 중국으로 이슬람을 전파하려 간 무슬림들의 숫자가 너무 적었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슬람이라는 한 종교를 믿으라고 강요하기에는 무슬림의 숫자가 너무 적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무슬림들에 의해 설립된 위대한 제국과 문명은 오랫동안 건재하였으며, 그 국민들은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슬람의 전파는 기독교인들의 기독교 전파와 크게 대조되는 바, 일부 기독교인들은 콘스탄티누스 대제 시대 이래로 흔히 그들의 행동의 기초를 성경의 구절들에 두면서 마음껏 칼을 휘둘렀던 것이다. 이 사실은 특히 남미와 아프리카를 식민지화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나타났으니, 그곳의 원주민들은 개종하지 않으면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몽골인들이 이슬람 제국들을 침략하여 정복하였을 때, 그들은 이슬람을 소멸하기는 커녕 이슬람을 자신의 종교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또한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다. 이것은 역사상 매우 특이한 사건이었으니, 정복자들이 피정복자들의 종교를 받아들인 것이다. 그들은 그들 자신들이 바로 정복자이며 승리자들이었기에, 무슬림이 되도록 강요 받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현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17억이 넘는 무슬림들에게 그들이 강요 받았는가를 물어보아라!

10. 지성의 칼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을 정복하는 것은 지성의 칼이다. 꾸란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혜와 아름다운 설교로 모두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되 가장 훌륭한 방법으로 그들을 맞으라 하나님은 그분의 길을 벗어난 자와 바른 길로 가는 자를 알고 계심이라.”

(꾸란 16장 125절)

11. 1934년부터 1984년까지의 세계 종교의 증가

1986년판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린 한 기사는 1934년부터 1984년까지 반세기 동안의 세계 주요 종교 즉,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 불교, 힌두교 등의 증가율에 관한 통계를 제시하였다. 이 기사는 또한 잡지 'The Plain Truth' 에도 실렸다. 가장 많이 증가된 종교는 이슬람이 235% 성장하였고 기독교는 47% 증가했다. 도대체 1934년부터 1984년까지의 기간 동안에 이렇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이슬람으로 개종시킨 어떠한 무력이나 강요가 있었는가?

12. 이슬람은 미국과 유럽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종교이다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종교는 이슬람이다. 유럽 또한 마찬가지이다. 도대체 여기에 어떤 칼이 그렇게 많은 수의 사람들을 이슬람으로 개종시키기 위해 사용되고 있던 말인가? 도대체 그 누가 이슬람처럼 정신적 보상을 주는 종교를 고수하도록 강요 받았는가?



무슬림아이들



무슬림아이들



미국의 무슬림 여학생



무함마드 알리, 미국의 유명한 권투선수



말콤 엑스(Malcom X)



영국의 유명한 가수였던 Cat Stevens는 이슬람으로 개종하여 Yusuf Islam이 되었다.

이 현상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오늘날 누가 비무슬림에게 무슬림이 되라고 강요할 수 있겠는가? 무슬림들은 이슬람을 선교하기 위해 길거리에서 이슬람에 대한 팸플릿을 건네거나 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단지 그들은 그들의 삶에서 이슬람을 실천하고 무슬림으로서 살아갈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무슬림들, 즉 타종교를 가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무신론자들까지도 스스로 이슬람을 자신의 종교로서 또한 진리로서 발견하고 받아들이고 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이슬람이 이성적이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선지자 무함마드(S.A.W.)께서 6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시기 전 아라비아반도의 대부분이 이슬람화 되어 있었다. 그 당시 전 세계의 나머지 인구와 비교해 볼 때, 아랍 민족은 아주 소수였다. 무함마드(S.A.W.)께서 세상을 떠나신지 100년이 채 못 되어 이 소수의 무슬림들이 아라비아 사막의 경계를 넘어, 로마와 페르시아 제국까지, 스페인과 말라카 이 해협까지, 그리고 극동아시아의 중국까지 뻗어 나갔다. 이슬람의 빠르고 평화적인 전파의 이유들 중 하나가 바로 이슬람 교리의 진실성과 명료성 때문이다.

영국의 시의원인 아흐메드 홀드(Ahmed Hold)가 이슬람의 전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슬람의 칼이란 강철로 만들어진 칼이 아닙니다. 나는 경험을 통해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의 칼이 내 심장을 꿰뚫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제게 죽음이 아닌 하나의 새로운 삶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하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는지에 대해 인식을 가져오고 일깨워주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권투선수 무함마드 알리 클라이가 이슬람의 평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내 인생에서 수많은 즐거운 순간들을 기억하고 있다. 그렇지만, 성지순례의 날 아라파트 산 위에서 있던 순간의 느낌만큼 특별했던 순간은 없다. 나는 거기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적인 분위기에 고무되었다. 150만 명이 넘는 무슬림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시라고 기도했다. 그것은 각기 다른 피부색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흥분되는 경험이었다. 인종, 국적, 왕, 국가의 수장들, 그리고 매우 가난한 나라에서 온 평범한 사람들까지 모든 인종이 두 개의 단순한 하얀 천을 두르고 어떤 오만함, 우월의식 또는 열등감 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그것은 이슬람의 평등의 개념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캐나다의 Junior 백과사전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이슬람은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종교이다.”

11. 이슬람에서 여성들이 착용하는 히잡(Hijab)

질문

왜 이슬람에서는 여성들을 베일로 가리는가?

대답

수녀가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가리는 옷을 입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바치는 존경 받는 자가 되는데 무슬림 여성이 그와 같이 하면 왜 억압 받는 여성이라 하는가?

무슬림 여성들의 걸모습은 매스 미디어에서 흔히 비판과 공격의 목표가 된다. 히잡(hijab: 가리다, 덮다 등)은 이슬람법의 여성들에 대한 억압의 상징으로서 비무슬림들에 의해 자주 거론 되어진다.

우선 걸으로 보여지는 히잡 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존재하는 가치와 의미에 대한 자세한 설명에 앞서, 이슬람이 도래하기 전의 사회에서 여성들의 지위가 어땠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자.

1. 과거에 여성들은 정욕(情慾: 성적욕망)의 대상이었다

다음의 예들은 역사적으로 초기 문명사회에서 여성들의 지위가 기본적인 인격마저 존중되지 않을 정도로 낮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증명해준다.

ㄱ. 바빌로니아 문명

바빌로니아의 법률 하에서 여성들의 지위는 매우 낮았으며

여성의 권리 자체가 존중되지 않았다. 남자가 여자를 살해했을 경우, 살인을 저지른 남자는 처벌받지 않고 대신 그 남자의 아내가 죽음에 처해졌다.

ㄴ. 그리스 문명

그리스 문명은 모든 고대 문명들 중 가장 영광스러운 문명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그리스 문명의 여성들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멸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성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박탈당하여졌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판도라' 라는 이름의 상상의 여자는 인간의 불행의 근원이었다. 그리스인들은 여성을 인간 이하이며 남성들보다 열등한 존재로 간주하였다. 후에 그리스인들은 성적 도착중에 걸리게 되었고, 매춘은 그리스사회의 모든 계층에서 정기적인 이루어지는 관행이 되었다.

ㄷ. 로마 문명

로마 문명이 그 영광의 정점에 달했을 때, 남성은 심지어 자기 아내의 목숨을 취할 권리마저 가지고 있었으며, 매춘과 별거 벗음이 만연하였다.

ㄹ. 이집트 문명

이집트인들은 여성을 사악한 존재이자 악마의 징후로 간주했다. 이슬람 이전에 이집트인들은 '라' 라는 신을 믿고 경배하고 있었는데 그 믿음에 따라 그들은 매년 여성을 산 채로 나일 강에 버렸다. 그 이유는 '라' 라는 신에게 감사하기 위해서였다.

□. 이슬람 이전의 아라비아반도

이슬람이 아라비아반도에 전파되기 전 아랍인들은 여성을 멸시하였고 여아가 태어나면 산 채로 매장해버리는 일이 아주 빈번했다.

2. 이슬람은 여성들의 지위를 고양시켰고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갖게 했으며 여성들이 그들 자신의 지위를 타락시키지 않도록 촉구한다

이슬람은 1,400년 전에 이미 여성들의 지위를 고양시켰고 그들에게 공평하고 정당한 권리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권리와 지위는 서구사회에서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다.

남성들의 정숙함

사람들은 흔히 정숙함이 여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꾸란에서는 여성들에 대한 정숙 이전에 남성들에 대한 정숙에 대해 먼저 언급하고 있다.

“민는 남성들에게 일러 가로되 그들의 시선을 낮추고 정숙하라 할지니 그것이 그들을 위한 순결이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하고 있는 것을 아시니라.”

(꾸란 24장 30절)

남성이 여성을 쳐다보는 순간, 그 여성을 상대로 어떤 안 좋은 생각이나 상상이 떠오른다면, 그는 더 이상 그 여성을 쳐다보지 않고 자신의 시선을 낮출 것을 이슬람에서는 권고한다.

여성들이 착용하는 히잡

“믿는 여성들에게 일러 가로되 그녀들의 시선을 낮추고 순결을 지키며 밖으로 나타내는 것 외에는 유혹하는 어떤 것도 보여서는 아니 되니라. 그리고 가슴을 가리는 머리 수건을 써서 남편과 그녀의 아버지, 남편의 아버지, 그녀의 아들, 남편의 아들, 그녀의 형제, 그녀 형제의 아들, 그녀 자매의 아들, 여성 무슬림, 그녀가 소유하고 있는 하녀, 성욕을 갖지 못한 하인, 그리고 성에 대한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어린이 외에는 드러내지 않도록 하라. 또한 여성이 발걸음 소리를 내어 유혹함을 보여서는 아니 되나니 믿는 사람들이여 모두 하나님께 회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번성하리라.”

(꾸란 24장 31절)

3. 히잡에 대한 6 가지 기준

꾸란과 순나(선지자 무함마드(S.A.W.)의 모범적인 언행)에 의하면, 히잡을 착용하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6 가지 기준이 따른다.

- 1) 몸의 어느 정도까지를 가려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이것은 남성과 여성의 경우가 다른데, 남성의 경우 드러내서는 안 되는 부분은 배꼽에서부터 양쪽 무릎까지 전부다. 여성의 경우에는 얼굴과 손을 제외한 신체의 전 부분을 가려야 한다. 여성 개인이 원할 경우에는 얼굴과 손도 가릴 수 있다.
- 2) 입은 옷이 몸에 딱 붙지 않아 몸매를 드러내지 않는 헐렁한 것이어야 한다.
- 3) 입은 옷이 몸이 들여다보이거나 비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 4) 입은 옷이 이성의 눈길을 끄는 관능적인 것이어서는 안 된다.
- 5) 입은 옷이 이성의 옷을 닮은 것이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남

성이 여성만이 입는 의상을 입는다거나 여성이 남성만이 입을 수 있는 의상을 입는 것 등이 이에 포함된다.

- 6) 입는 옷은 타종교의 옷을 닮은 것이어서는 안 된다. 즉, 타종교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옷(예: 기독교, 유대교, 불교 등의 사제들이 입는 의상)을 입어서는 안 된다.

4. 히잡은 무엇보다도 그 마음가짐과 행동을 중요시 한다

완전한 히잡이란 착용하는 옷에 관한 위의 6 가지 기준과 함께 각 개인의 의도와 행동까지도 포함한다. 단지 옷의 착용에 관한 6가지 기준만을 이행하는 무슬림은 좁은 의미에서의 히잡을 착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완전한 히잡은 외면뿐만 아니라 내면 즉, 타인을 바라볼 때의 눈빛이나 마음가짐, 생각 그리고 의도까지도 올바른 것이어야 한다. 또한 여기에는 걸음걸이, 말투, 태도도 포함된다.

5. 히잡은 남녀 모두를 악으로부터 보호해준다

이슬람은 남녀 무슬림 모두에게 과도한 혹은 불필요한 신체노출을 금하고 있다. 이슬람에서는 남녀 서로에게 '성적인 유혹'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의 부분을 가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의 본질적인 목적은 간음을 막는데 있다. 이슬람에서 말하는 '간음'이란, 옳지 못한 방법으로 성욕을 해소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슬람은 의도와 마음 가짐을 가장 중요시하므로 자신의 합법적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에게 성적 욕구를

마음으로 갖는 것까지도 '간음'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남녀를 불문하고 모든 무슬림들은 이성을 성적으로 유혹할 수 있는 모든 언행을 삼가야 한다. 반면에 자신의 내면과 사상을 표현하는 기회는 충분히 보장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이슬람에서 히잡이 갖는 본질적인 의미인 것이다.

서유럽이나 미국의 무슬림 여성들 즉, 무슬림 집안에서 태어난 경우가 아니라 나중에 이슬람을 자신의 종교로 선택한 여성들은 '히잡을 왜 쓰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했다.

“히잡의 본질적인 의미를 파악한 뒤에, 나는 히잡을 쓰는 것이 당연하게 되었다. 히잡을 쓰면서부터 나는 내 몸이 완전히 내 것이 됨을 느꼈다. 이제야 나는 다른 남성들이 내 육체가 아닌, 내 내면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로 인해 나는 진정으로 존중 받으며 나는 더 이상 나의 에너지를 외모에 신경 쓰는 데 불필요하게 낭비하지 않고 나의 내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눈에 보이는 육체가 너무도 많은 것들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았다.”

이것이 바로 히잡의 본질이자, 이슬람에서 히잡을 강조하는 근거인 것이다.

6. 비슷한 두 여성의 경우

외모가 매우 아름다운 비슷한 두 여성이 거리를 걷고 있다. 한 명은 히잡을 착용하고 있고, 다른 한 명은 신체의 노출이 심한 스타일의 옷을 입고 있다. 길 모퉁이를 막 돌아서자



한 무리의 건달들이 있었고, 그들은 이 두 여성에게 접근한다. 이 때 그들 중 어느 여성에게 더 쉽게 접근 할 수 있을까? 몸매가 드러나지 않는 정숙한 차림의 옷에 머리카락을 스카프로 가린 여성일까? 아니면 노출이 심해 성적으로 매력을 느끼게 하는 여성일까? 히잡은 하나님께서 여성과 남성 모두의 육체를 악과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주시기 위하여 지시하신 것이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점점 여성에게 위협한 곳이 되어 가고 있고 이러한 시점에서 히잡은 특히 여성을 위한 최고의 보호라고 할 수 있다.

7. 서구사회는 여성들을 고양시켰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일까?

서구사회는 여성을 해방시켰다고 주장하는 데 그들이 말하는 해방이란 무엇일까? 여성의 육체는 상업적으로 이용되며, 그들의 영혼은 물질주의와 함께 타락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은 세련되게 포장되고 위장되어 여성들 스스로가 그러한 흐름에 휩쓸리고 조종당하고 있다. 서구 사회에서 여성들의 지위는 고양되었고 남녀평등이 이룩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그 이면에는 여성들을 예술과 문화라는 화려한 스크린 뒤에서 돈과 쾌락을 위해 이용하고 있으며, 성 매매조차도 몇몇한 전문적으로 여길 정도로 여성들은 스스로의 지위를 타락시키고 있다.

8. 미국은 가장 높은 강간 범죄율을 가진 나라 중의 하나이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된 나라 중의 하나로 생각된다. 그러나 미국은 또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강간 범죄율을 가진

나라 중의 한 곳이기도 하다. 1990년 FBI의 보고서에 의하면 매일 평균 1,756건의 강간이 미국에서 발생했고 정확한 년도가 언급되지 않았지만 1992년이나 1993년의 보고서로 추정되는 기록에 의하면 매일 평균 1,900건의 강간이 발생했다.

예를 한 번 들어보자. 만약 미국에서 모든 여성들이 히잡을 착용하고 남성들도 이슬람에서 지시하는 옷차림과 태도를 행한다고 가정해보자. 남자는 다른 여성을 쳐다보는데 있어서 그의 눈길을 낮추며, 모든 여성은 얼굴과 손을 제외하고 몸매가 드러나지 않게 정숙한 옷을 입고 성적인 매력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리고 강간이 일어났을 때 강간범은 사형에 처해진다. 미국사회가 이렇게 바뀐다면, 미국의 강간 범죄율은 현재 상태를 유지할 것인가, 증가할 것인가, 감소할 것인가?

9. 이슬람 율법의 시행은 강간 범죄율을 최소화시킬 것이다

이슬람 율법이 시행되면 그 즉시 성범죄는 현저히 줄어들 것이며, 사회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결과가 일어날 것이다. 이슬람 율법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그것이 시행되는 순간부터 그 사회는 숨쉬기가 훨씬 쉬워질 것이다.

히잡은 여성을 억압하거나 지위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키며 여성의 정숙과 순결을 보호해 주는 것이다. 히잡은 남성들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강한 성적인 욕구가 악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여 사회적으로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슬람은 여성을 보호하는 종교이다. 오늘날의 사회에서 여성의 성적매력은 TV광고나 패션세계에서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어린 소녀에서부터 시작하여 수많은 젊은 여성들은 그러한 광고나 사진에서 보여지는 모델들처럼 되기 위해 자신의 에너지를 낭비한다. 때로는 정신적으로 우울해지거나 비참해지는 것을 경험하여 자신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상실하기도 한다. 이처럼 오늘날의 사회에서 여성은 진정 자유로운가에 대한 대답을 '예' 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슬람은 이미 1,400년 전에 여성을 해방시켰다. 여성은 자신의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들의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이슬람에서 여성은 자신의 남편 이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을 함부로 노출시키지 않으며 히잡을 쓴 여성은 하나님께 보여지는 가장 아름답고 올바른 여성의 모습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꾸란에서 여성들은 그들의 정숙함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믿는 여성들에게 말하라 여성들은 시선을 낮추고 그들의 정숙함을 지켜야 하느니라. 여성들은 보통으로 보이는 이상으로 그들의 아름다움과 장식품을 보여주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꾸란 24장 31절)

10. 무슬림 여성들이 착용하는 히잡에 대한 결론 말씀

이슬람은, 남녀에 관계없이 정숙함과 고결함을 인간이 갖추어야 하는 최고의 덕성들로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이 덕성들

이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최고로 고양시킴을 강조한다. 전통적인 무슬림 사회에서 여성이 집 밖으로 외출할 때에는 얼굴과 손을 제외한 신체의 모든 부분을 가리는 것이 관습이다. 그러나 이러한 무슬림 여성의 복장은 한 가지 스타일이나 색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나라마다 상당히 다르다. 어떤 나라는 검은 색을 주로 입으며 또 어떤 나라는 아주 다양한 색의 히잡을 착용한다. 하지만 너무 눈에 띄는 화려한 히잡은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정에서의 무슬림 여성의 복장은, 히잡을 써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우 자유스럽다. 그들은 가정에서 자신이 원하는 옷을 마음껏 입을 수 있다.

무슬림들은 히잡을 억압이 아닌 자유의 상징으로 본다. 정숙하고 위엄있는 복장을 할 때 남성은 여성을 더욱 존중하게 되며, 여성 스스로 또한 마찬가지이다. 또한 상대방을 외관상으로 판단하지 않게 되며, 겉모습보다는 그 내면을 바라보게 된다.

모든 여성의 외모가 같지 않다. 어떤 여성은 매우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고, 또 어떤 여성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히잡은 그러한 차별을 최소화시키며 모든 여성이 히잡 안에서 고귀하고 아름답게 보이게 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이다. 히잡을 쓰는 여성은 그녀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녀 자신도 자신의 그러한 아름답고 고결한 내면으로 인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히잡을 착용하는 그녀에게 부여하신 특별한 아름다움으로 인해 히잡을 쓰는 여성은, 최대한으로 아름답고 화

려하게 꾸민 어떤 여성보다도 진실로 아름답다.

무슬림들은 오늘날 현대인들 특히 여성들의 옷차림이 신체를 노출시키고 강조하는 것임에 대해 그리고 그러한 옷차림과 함께 외모를 가꾸는 것이 사람들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광고에서 등 상업적으로 인간의 성적 매력이 이용되고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무슬림들은 이러한 경향이 남녀간의 부적절한 관계를 야기시키며 올바른 결혼생활을 위협으로 몰고 가는 상황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믿는다. 성적으로 더욱더 매력적으로 그리고 자극적으로 신체를 노출시키는 이러한 사회, 문화적 추세는 상업적으로는 성공을 거둘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추세에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과다한 신체적 노출과 함께 “아름다운 사람들”이 추앙받는 사회와 문화에 합류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은 스스로가 될 수 없는 “완전한” 이미지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 성형수술이나 그 밖에 외모를 위해 현대인들이 투자하는 돈과 시간은 엄청나다.

히잡의 착용에 의한 정숙함과 고결함의 추구는 억압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정신적, 육체적 해방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인간에게 있어 그(그녀)의 삶의 목표는 자신의 신체를 노출시키고 외모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닌 다른 인간을 위한 봉사과 배려, 겸허한 삶의 자세 그리고 순수함과 진실됨을 통하여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이미 많은 여성들은 히잡의 이러한 의미를 깨닫고 삶에서 그 가치를 누리고 있으며 그들은 그 안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있다.

12. 이슬람은 여성을 억압하는 종교인가?

질문

서양 여성이 남편과 아이들을 돌보기 집에 머물면 그녀는 매우 따뜻하고 가정적이며 모범적인 여성의 이미지로서 비춰지는데 반해, 무슬림 여성이 그러하면 그녀는 억압받고 자유롭지 못하므로 해방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왜 일까? 유럽과 미국에서 태어나 성장한 많은 여성들이, 그들을 억압하며 그들에게 편견을 지닌 것으로 생각되는 이슬람을 자신의 종교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슬람에서 여성의 지위는 매우 낮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서구의 여성들의 이슬람을 받아들이는 수가 남성들보다 더 많을 수 있는가?

대답

“서양 여성이 가정과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집에 머물면 가정을 위해서 스스로를 희생하고 선을 행하는 것인데, 무슬림 여성이 그렇게 하면, 왜 해방되어야 한다고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 이전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볼 수 있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슬람이 여성을 억압하는 종교이며, 이슬람에서 여성의 지위는 매우 낮다고 생각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의 상당 부분은 바로 우리가 매일 접하는 TV와 같은 미디어의 언론에 의해 그려지는 이슬람에 있다.

이슬람의 진실이 어떻든 간에 TV에서 보여지는 이슬람 여성들의 이미지는 억압받고 여성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조차도 인

정되지 않는 것처럼 비춰진다. 이것은 특히 서구의 언론매체에
서 더욱 두드러진다. 그들이 왜 그토록 이슬람과 이슬람에서의
여성에 대해 잘못된 이미지들을 만들어 대중에게 끊임없이 전
파시키는가에 대해선 또 다른 주제이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
겠지만, 중요한 것은 여성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이슬람에 관한
많은 사실들이 진실과는 다르게 언론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것
이다.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인가?

이슬람은 남녀평등뿐만 아니라 여성의 해방을 필수적인 것
으로 보며, 이것은 정숙함과 훌륭한 인격에 의해 성취된다고 본
다. 미디어에서는 매우 자주, 몸을 가린 정숙한 옷차림의 무슬
림 여성은 곧바로 “억압받는” “족쇄를 찬” 등의 용어들과 함께
억압된 여성으로 묘사된다. 19세기에 T. E. Lawrence가 아라비
아반도의 여성들을 “산책하고 있는 죽음”이라고 묘사한 이래
로 이슬람에서 여성들의 진정한 신분은 마치 죄수 복을 입은,
인간으로서의 존재가치가 없는 모습으로 그려져 왔다. 하지만
여성들과 이슬람에 대한 진실은 결코 이러한 소설 같은 묘사와
는 거리가 멀다.

1,400년 전에 이미 이슬람은 여성의 지위를 억압에서 해방과
평등의 위치로 끌어올렸다. 여성들이 재산 또는 소유물로 간주
되던 시대에 이슬람은 여성들을 존귀한 존재로서 받아들인 것
이다.

그렇다면 이슬람에서 여성들에게 보장하는 진정하고 영속적
인 해방이란 무엇이며, 서구사회에서 보는 여성해방의 개념은

무엇일까? 우선 서구사회에서의 여성해방에 대해 살펴보면, 서구의 여성들에게는 무제한적인 자유와 선택이 주어진다. 그 결과, 수많은 서구의 여성들이 사실상 불만족스럽고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이 목격된다. 그들은 합법적인 결혼과 가정생활에서 가질 수 있는 안정과 도덕의 이상들을 포기하고 하루 종일 바깥에서 일하고 밤에 집에 돌아오며 남는 시간에는 집안일을 하고 자신이 양육해야 할 자식들은 어린이 집에 맡겨져 낯선 사람들의 보호를 받으며 자라나게 되는 삶을 선택하게 되었다. 어린 소녀들이 잘못된 식생활로 인해 병에 걸리고, 10대 소녀들의 임신은 만연되어 있고, 집에 머물며 집안살림을 하기로 선택한 여성들은 시대에 뒤처지고 능력이 없는 여성들로 간주된다.

그렇다! 서구의 여성들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20 가지 서로 다른 상표의 립스틱을 선택할 수 있고, 유능하고 독립적이며 강한 여성이 되기 위하여 직업을 선택하고 가질 수 있다. 그렇다! 서구의 여성들은 해방되어 있다. 그들이 그들 자신에게 인간으로서의 그리고 여성으로서의 자연스러운 삶을 더 이상 선택할 수 없을 정도로 해방되어 있다. 그들은 오로지 그들에게 제공되는 소비재의 선택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뿐이다. 서구의 이른바 해방된 여성들은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노예들, 유행과 미용 산업의 노예들, 그리고 사회제도의 노예들이 되고 말았다. 직장에서 가장 높은 자리까지 남성들을 제치고 가까스로 오른 그들의 삶이란, 널찍한 집에서 살고, 오직 최신식 디자인의 옷만을 입으며, 사치스러운 차

를 몰며, 자녀들이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 성장하며 가장 배타적이고 값비싼 학교에서 교육받도록 요구하는 소비 사회의 노예이다. 그들의 삶에서 물질적인 것들이 빠진다면 남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이것이 해방인가?

여성들의 선천적인 성향은 남편, 아버지, 형제, 또는 아들과 딸을 기쁘게 하고, 위로하고, 또 도와주는 일이다. 남성들의 선천적인 성향은 아내, 어머니, 형제, 또는 아들과 딸을 보호하고 도와주는 일이다. 이슬람은 인간에게 이러한 인간의 선천적인 성향들을 따를 것을 요구한다. 이슬람은 인간본성에 이질적인 사상을 피하도록 가르치며 자연스러운 가족관계를 발전시키고 그것을 유지함에 있어서 도와주고 널리 보급시켜, 보다 더 큰 무슬림 공동사회를 형성하도록 한다.

무슬림 여성은 가정과 사회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있다. 그녀에게 있어 최선은 그녀의 종교이며 따라서 그녀의 역할은 분명하다. 무슬림 여성은 억압받기 는커녕 진정한 의미에서의 해방된 여성이다. 그녀는 남성이나 또는 경제, 사회적 제도의 노예



가 아니라 남성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충실한 종이다. 이슬람은 여성들의 권리와 책임을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분명하게 정의한다. 이슬람은 여성들을 그들의 가정 내에서뿐만 아니라 무슬림 공동체내에서도 자연스럽게 존경받는 위치로 끌어올린다. 가정 내에서 이슬람 여성은 부인으로서 남편으로부터 존중과 사랑을 받으며, 어머니로서 자녀들로부터 존중과 인정을 받는다. 많은 한국의 가정에서 부인이 부인으로서 어머니가 어머니로서 제대로 존중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이슬람의 여성들은 남성과의 동등한 권리를 위해 항의하고 시위할 필요가 없다. 인간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종교인 이슬람과 함께 여성과 남성은 서로에 대한 동등한 동반자이자 보호자가 되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응하사¹ 나는 남녀를 불문하고 그들이 행한 어떠한 일도 헛되지 않게 할 것이라 너희는 서로 동등하니라 그들이 집을 떠났거나 추방당했거나 나의 길에서 노력한 자 성전하였거나 살해당한 그들을 속죄하여 줄 것이며 강의 흐르는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보상이라 그 중 좋은 보상은 하나님께 있노라.”

(꾸란 3장 195절)

- 1** 이슬람에서는 남녀 지위의 동등권이 인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위의 동등권이 강력히 주장되고 있다. 남녀의 구별이라 함은 남성과 여성에 대한 차별이 아닌, 남성과 여성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즉 생리적 측면에서 서로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슬람의 견해이다. 이슬람에서는 정신적 측면에서의 남녀의 차별 또한 허락되지 아니한다. 인위적인 차별, 즉 계급이나 부나 지위, 민족, 피부색깔이나 출생에 의한 차별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다.

“믿음을 갖고 선을 행하는 남녀가 천국에 들어가나니 그들이 받을 보상은 조금도 부정함이 없노라.”

(꾸란 4장 124절)



이슬람에서 여성들은 재산권, 재산 처분권, 그리고 자선을 행할 권리를 갖는다. 그들에게는 공식적인 상속권이 있다. 그들은 교육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지식을 추구하고 습득하는 것은 남성이건 여성이건 상관없이 모든 무슬림들에게 부과되는 의무이다. 결혼한 무슬림 여성들은 가족의 생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 생계에 대한 책임은 오직 남편의 역할이자 의무이다.

그들은 결혼에 있어서 결코 강요당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에게 들어온 청혼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할 권리를 갖는다. 이슬람 여성들은 필요하다면 이혼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이슬람은 가정이 사회의 핵심이라고 가르친다. 서구 사회와 일부 비무슬림 국가들에서는 가정이 붕괴되어 사회 전체가 서서히 분열되고 있다. 바로 이러한 현실에서 여성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여성 해방에 대한 외침이 생겨났다. 그것은 안전의 길을 발견하기 위한 그릇된 인도이자 연약한 시도처럼 보인다. 그러한 안전은 오직 인간이 하나님에게로 되돌아가 남성과 여성이 각각 창조된 대로 적합한 자신들의 역할을 받아들일 때에만 달성 가능한 것이다.

해방이란 의미 안에는 자유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지만, 그 자

유는 인간이 제멋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자유란 결코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희생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현대 사회에서 여성에게 주어진 해방과 자유는 여성들을 오히려 구속하고 있다.

여러분이 거리에서 볼 수 있는, 정숙하게 옷을 입은 무슬림 여성들은 신정으로 해방되고 자유로운 여성이다. 그녀는 현대 판 경제적 노예 제도로부터 해방되었으며 생계를 책임져야 할 필요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녀는 신성한 지침에 입각한 삶을 산다. 그녀의 삶은 평화, 행복, 그리고 힘으로 충만하다. 그녀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세상의 시험들과 시련들을 인내와 강인함으로 포용한다. 진정한 해방이란 우주의 자연스러운 질서에 완전히 또한 기꺼이 복종하는 것에 의해서만 성취된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억압이란, 물질에 의해서가 아닌 마음을 병들게 하고 정신을 약하게 하는 것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다. 억압은 그 구성원들이 그들 존재의 진정한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붕괴되는 사회에서 성장한다. 해방은 공정하고, 응집력이 있으며, 자연의 질서와 신성한 지침에 입각한 사회에서 발생하여 뿌리를 내린다. 이슬람사회는 바로 그러한 사회이며, 그 안에서 무슬림 여성은 신정으로 해방된 여성이다.

이슬람으로 개종한 자들은, 이슬람에 있어서 여성의 지위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가?

Lucy Berrington은 1993년 11월 9일 자 미국의 Times잡지에 다음과 같은 기사를 실었다.

“‘이슬람이 여성들을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서양에서 널리 퍼진 견해를 감안해본다면, 영국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여성들이라는 것은 매우 아이러너하다. 미국에서는 여성 개종자들의 수가 남성들을 4:1의 비율로 능가하며, 영국에서도 여성들이 개종자들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100만에서 150만명까지의 무슬림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나는 남성이건 여성이건 나의 길에서 애쓰는 누구이건 그의 노력을 지나치지 않으리라. 너희는 각기 서로에게 동등 하느니라.”

(꾸란 3장 195절)

위의 꾸란 말씀에서 이슬람은 여성들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음과 남성과 여성이 신 앞에서 동등하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사실상 이슬람은, 세계의 많은 지역 특히 서양에서 여성들이 소유물로 간주되고 어떠한 권리도 보장받지 못했던 1,400년 전에 이미 여성들의 위치를 고양시켰다. 그것은 세상의 어떤 다른 종교나 체제가 갖추지 못한 것이었으며, 이슬람은 여성에게 상속권, 투표권, 자유로이 사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발언권, 자신을 위해 투자하고 훌륭한 교육을 받을 권리,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녀의 삶에 있어서 아버지나 남자 형제나 남편들에게 그러한 권리들을 존중해줄 것을 강력히 요

구할 수 있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꾸란과 하디스에 명시된 여성의 권리에 대한 존중 의무 때문이었다. 여성을 존중하고, 여성에게 의식주를 공급하며 여성을 돌보고, 여성을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무슬림 남성들의 의무임을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이다.

“직업을 가진 현대의 서구여성으로서 나는 이슬람 여성들의 삶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들의 삶에 대해 조사해 본 결과 나는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이슬람이, 남성과 여성 모두를 위하는 종교임을 발견했다. 이슬람에서 여성들은 이미 600년에 투표권을 가지고 있었다.”

“남성들도 여성들도 정숙하게 옷을 입는다. 그들은 눈길로 서로를 유혹하거나 시시덕거리서는 안되며, 그들의 시선을 낮추어야 한다. 나는 성적 매력을 과시하는 것이 건강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정력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뿐이다.”

(미국MTV방송, 뉴스 캐스터, Kristiane Backer, 무슬림이 되었음)

“나는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슬람에 대한 나의 초기의 독서는 이슬람 여성들에게 집중되었다. 나는 이슬람이 여성들을 억압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물론 나는 히잡을 자신에 대한 존경심과 위엄의 표현이 아니라 남성들에 의해 강요된 억압의 수단으로 보았다. 그런데 내가 독서를 통하여 발견한 것은 나를 놀라게 했다. 이슬람은 여성들을 억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여성들을 해방시키는 것이었다. 이슬람은 여성들에게 재산과 부에 대한 권리, 결혼 후 자신의 이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권리, 투표권, 이혼할 수 있는 권리와 같은 우리가 이 나라에서 금세기에 접어들어 획득한 권리들을 이미 7세기에 보장했던 것이었다.”

(Karma Slack, 이슬람으로 개종한 미국 페미니스트)

“이슬람은 우리를 타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킨다.”

(미 여해군 하사관 Heather Ramaha, 2001년 9월 11일 이슬람으로 개종)

Younne Ridley는 25년 이상을 저널리스트로 활동한 수상자이며 [탈리반의 손들]과 [천국에의 입장권]이라는 두 권의 책의 저자이다. 그녀는 지난 10년간 ‘The Sunday Times’, ‘The Observer’, ‘The Independent on Sunday’ 그리고 ‘Sunday Express’ 와 같은 유명한 신문사들에서 일해왔다. 그녀는 또한 TV와 라디오까지 진출하여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몇몇 다큐멘터리 제작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Younne는 ‘The Daily Express’ 를 위해 일하던 기간인 2001년 9월동안 그녀의 기사들로 신문의 표지를 장식하였다. 비밀리에 아프가니스탄으로 침투해 들어갔다가 탈리반 정권에 의해 11일 동안 포로로 붙잡혔고 그녀는 그들에 의해서 꾸란을 읽어볼 것을 권유 받았다. 풀려난 후, 영국으로 돌아온 그녀는 꾸란을 읽었고 2003년 여름에 이슬람으로 개종하였다.

여성의 결혼과 재산에 대한 권리와 여성의 위치

여러 다른 국가에서 역사적으로 여성의 결혼과 재산에 대한 권리와 여성의 위치는 어떠했는지 살펴보자.

1.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의 발상지로 잘 알려져 있는 고대 그리스에서 여성과 노예, 그리고 외국인은 ‘시민’의 개념에조차 포함되지 않아

선거권을 비롯한 각종 사회 활동이 불가능했음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여성은 언제나 남성(아버지, 형제, 남편 등)에게 순종해야 했고, 이것이 최대 미덕으로 간주되었을 뿐 아니라 남편은 임의대로 아내를 다른 이에게 팔 수 있었다.

2. 로마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의 로마법 부분을 보면 여성은 사회적, 공적 활동을 전혀 할 수 없었고 결혼과 동시에 여성의 재산은 남편에게로 귀속되었으며 여성 자신은 남편의 재산이나 노예로 간주되었다.

3. 인도

여성의 사회활동 기회, 재산권의 박탈은 물론이고 기혼 여성은 그 남편이 사망할 경우 그 시체 위에 함께 태워졌다.

4. 중국

여성은 인간으로 간주되지 않아 그 어떠한 권리도 누릴 수 없었다.

5. 이스라엘

부친은 자신의 딸을 팔 수 있었고, 이혼은 물론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었다.

6. 서구 크리스트교 세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을 거역함으로써 낙원을 상실하고 인류를 고통으로 몰아넣은 존재로서 여성은 언제나 사탄에 버금가는 나쁜 피조물로 묘사되었다. 따라서 성서에 손을 대는 것조차 금지되었고, 여성은 무가치한 존재로 인식되었다. 여성은 어떠한 권리도 누릴 수 없었고, 남편이 사망한 후에도 재혼을 할 수 없었다. 프랑스에서는 남편의 허락 없이 아내가 돈을 쓰는 일조차 불가능했고, 남아선호 사상이 만연했다. 영국에서는 5~11세기 사이, 하와의 원죄에 의해 여성은 남성과 겸상하여 식사할 수 없었고, 질문을 받지 않으면 먼저 말을 할 수도 없었다. 아내의 재산이 남편에게 귀속됨은 물론 재산권, 참정권, 사회 활동의 기회를 포함한 일체의 권리를 누릴 수 없었다. 중세 시대의 참혹한 마녀사냥은 이러한 차별을 단적으로 보여준 일례이다. 이 같은 상황은 19세기 말경에야 조금씩 개선되기 시작했다.

스칸디나비아족들의 여성들은,

결혼을 했건 하지 않았건 상관없이 영원한 구속 하에 있었다. 17세기 말엽, 기독교의 제5법에 따르면, 여성이 그녀의 보호자 동의 없이 결혼을 했다면, 보호자는 자기 마음대로 그녀가 살아가는 동안 그녀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을 사용하여 이익을 가질 권리가 있었다.²

² The Encyclopedia Britannica, 11th ed., 1911, Vol. 28, p.783

영국의 관습법에 따르면,

결혼 당시 여성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물질적 재산은 결혼과 동시에 남편의 소유가 되었다. 남편에게는 땅을 임대할 수 있는 권리뿐 아니라, 재산운용에서 생기는 이윤을 가질 자격이 있었다. 시대가 흘러, 영국의 법에는 남편이 부인의 동의 없이 재산을 다른 이에게 넘길 수 없도록 하였으나, 이의 운영과 여기서 생기는 이윤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는 계속적으로 남편에게 남아있었다. 부인의 토지나 토지에 딸린 건물 등은 완전히 남편의 권한 안에 있었다. 남편은 부인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그것들을 소비할 권리가 있었다.³

단지 19세기 말엽이 되어서야 상황이 호전되기 시작했다.

“1870년, 그리고 1882년과 1887년에 수정된 기혼여성의 소유권법을 시작으로 하여, 일련의 법을 통해, 기혼여성은 사유재산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고, 미혼인 여자, 과부, 이혼녀 등과 동등하게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다.”⁴

바이블 백과사전(Encyclopedia Biblica)에 보면,

“아내와 약혼한다는 것은 구입가를 지불함으로써 여성의 소유권을 획득한다는 뜻이다. 약혼녀란 구입가가 지불된 소녀이다.”⁵

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여성의 동의는 그녀의 결혼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³ The Encyclopedia Americana (International Edition), 1969, Vol. 29, p.108

⁴ The Encyclopedia Britannica, 11th ed., 1968, Vol. 23, p.624

⁵ Encyclopedia Biblica, 1902, Vol. 3, p.2942

“여성의 동의는 불필요하고 법에서는 어느 곳에서도 이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⁶

데이비드와 베라 마세(David and Vera Mace)가 저술한 [결혼: 동양과 서양(Marriage: East and West)]이라는 책에서 보면, 근세기 전까지 기독교 교회의 입장이 모세법과 당시의 문화적인 흐름에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초기 기독교의 저술에 종사한 정통 신학자와 성직자들이 제시하는 것보다 더 여성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언급을 담고 있는 것들은 없을 것이다. 저명한 역사가인 렉키(Lecky)가 말하기를, ‘이런 지독한 동기 때문에 정통 신학자와 성직자들의 저작물 중에 상당한 부분이 눈에 띄게 피상망척하게 쓰여져서... 여성은 지옥의 문이요 모든 인간의 악의 어머니를 상징했다. 여성은 자기가 여성이라는 생각을 부끄러워해야 하며,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난 저주 때문에 늘 회개하며 살아야 한다. 여성은 자기 옷이 낙원에서 추방에 대한 기념물이기 때문에 이 옷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자신의 미모가 사탄의 가장 유력한 도구이기 때문에 특히 이 미모를 수치로 여겨야 한다.’ 여성에 대한 이런 가장 통렬한 공격 중의 하나가 테툴리안(Tertullian)에 의한 것이다. ‘너희 모두가 이브임을 아느냐? 너희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선고대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 즉 반드시 죄를 지낸 채 살아야 한다. 너희는 사탄의 출입구이고 금단을 깨는 자이며, 하나님의 법을 최초로 어긴 자이고, 남성을 유혹하여 사탄 앞에 무기력하게 한 여자다⁷.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그렇게 손쉽게 파괴하였다. 너희의 탈선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죽어야만 했다.’ 교회에서는 여성의 열등한 지위를 확언할 뿐 아니라, 여성이 이

6 Encyclopedia Bblica, 1902, Vol. 3, p.2942

7 구란에 따르면, 여성은 아담에 대한 최초의 잘못 때문에 비난을 받지 않는다.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께 불복하는 잘못을 저질렀고, 둘 다 회개하였으며 둘 다 용서받았다. (구란 2장 36-37절; 7장 20-24절을 참조) -편자

전에 누렸던 법적인 권리를 박탈했다.”⁸

7. 이슬람 이전 아라비아

아라비아(베두인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는 한층 더 참담했다. 여성은 완전히 남성의 소유물이었으며, 그 자체가 부끄러운 존재였다. 거친 사막에 거주하며 명예를 중시하는 유목민들에게 있어 딸이란 연약하기만 하고 거추장스러운 존재였을 뿐만 아니라, 결혼 전에 순결이라도 잃게 되면 부족 전체의 명예를 더럽힐 수 있는 위험한 존재였다. 무제한의 일부다처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결혼제도였으며 심지어 갓 태어난 여아들을 생매장하는 일도 자주 발생했다.

8. 근대 일본

최근까지 일본에서 여성의 지위가 어떠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있다. 1945년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패하자, 일본이 만주에 세웠던 만주국 괴뢰 정부 요원들은 황급히 일본으로 피신할 계획을 세웠다. 그들의 숫자에 비해 턱없이 작은 비행기에 동승하게 될 사람들을 정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황후와 후궁들을 언급하는 청조 마지막 황제 푸이에게 일본인 각료는

“폐하는 지금, 인간도 아닌 존재들을 염려하고 계십니까?”

라고 반문했고, 일본 정부는 만주국 정부 각료들의 부인들을

⁸ David and Vera Mace, 'Marriage: East and West', Dolphin Books, 1960. pp. 80-81

철저히 외면했다. 1945년의 일이다.

9. 한국-조선

조선시대 여성의 지위는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여성들은 일체의 사회적 권리를 박탈당했음을 물론, 삼종지도와 칠거지악, 축첩제, 그리고 국가적으로 장려된 '열녀' 개념에 묶인 삶을 살아야 했다.

간단히 살펴보았듯이 세계 도처에서 여성은 남성과 평등한 대우와 권리를 누리지 못했을 뿐 아니라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로서 혹은 악의 근원으로서 간주되어 심지어는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아야 했다. 여성의 권리 신장은 서구 사회에서도 19세기 말경에야 시작되었으며 지금까지도 완전한 남녀평등이 이루어진 사회는 없다고 해도 결코 과장이 아니다.

이슬람법에 따르면, 여성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한 결혼에 대해 거부할 수 있다.

올바른 결혼을 위해 이슬람이 정한 몇 가지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은 가문이나 재산,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심, 도덕적 성실성, 성격 등의 영속적이고 내면적인 가치여야 한다.
2. 결혼 할 남성과 여성은 서로를 잘 알아야 하며, 부도덕하거나 기만적이고 이기적으로 서로를 이용하는 행위를 개입시켜서는 안 된다.

3. 여성은 청혼하는 남성이 자신에게 어울리는지, 자신의 사랑을 받을만한지,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할 권리가 있다. 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여성은 청혼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 쌍방의 자유의사에 의한 동의가 없이는 결혼이 성립되지 않는다. 하디스(선지자 무함마드(S.A.W.)의 언행록)에는 강제로 자신의 딸을 혼인시키려고 한 아버지를 호되게 질책하는 부분이 있다.
4. 여성은 자신의 기준과 결혼 할 남성의 능력에 따라 남성에게 지참금을 요구할 권리를 지닌다. 이것은 남성이 이 여성을 진정으로 배우자로서 원하며, 기꺼이 재정적 혹은 기타의 책임을 질 각오가 되어있음을 보증한다. 이때 지불되는 지참금은 결혼한 후에도 또는 이혼할 경우에도 여성의 소유할 수 있는 재산이다.
5. 아내를 온전하게 부양하는 것은 남편의 의무이고, 남편은 아내의 재산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

이슬람에서 결혼 생활에 대한 규정은 분명하고 또한 인간의 올바른 본성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이고 심리적인 성향의 차이를 고려하여, 두 성에게 서로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다만 남성에게는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지게 했는데, 이는 남성의 본성과 일치되는 것이다. 남자가 떠맡는 가족의 가장으로서의 역할이 자신의 아내에 대한 절대군림을 뜻하지는 않는다. 이슬람에서는, 가족 내부의 문제를 상호 동의와 상의로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슬람법에 따르면, 돈, 부동산과 기타 재산 등에 있어서 여성의 소유권이 완전히 인정되며, 이것은 기혼녀이건 미혼녀이

건 상관없이 부여되는 것이다. 자기 재산의 일부 혹은 전부를 사고 팔고 저당 잡히고 빌려줄 수 있는 완전한 권리가 여성에게 있는 것이다.

이슬람에서는 여성에게 상속권을 주었다. 자기 몫은 분명히 정해져 있어서 아버지나 남편조차도 이를 요구할 수 없다.

결혼 전 소유물은 남편에게로 귀속되지 않고 자신의 이름 하에 유지된다. 결혼 한 후에 그러한 재산이나 수입을 가족을 위해 써야 할 의무도 없다.

이슬람법은 전반적인 테두리 안에서 상속법을 통하여 여성에 대한 공정함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충분한 자비를 엿볼 수 있다.

이슬람에서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존재임을 확인받았고(남녀 신앙인들은 서로가 서로를 위한 보호자이니라. 타우바 꾸란 9:71), 여성의 권리에 대한 것은 사소한 것까지도 꾸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남성의 장'은 찾아볼 수 없는 꾸란에 '여성의 장'(4장)이 존재하고 있고,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갖가지 종교적 의무들이 여성에게는 면제되고 있다.

여성의 이혼에 대한 권리

이혼권에 관해서 바이블 백과사전을 읽어보면,

“남성의 재산인 여성과 이혼할 수 있는 그의 권리는 당연한 것이다.”⁹



라고 적혀있는 것처럼 이혼권은 오직 남성에게만 주어졌다.

“모세의 법에서 이혼은 남편만의 특권이였다...”⁹

이슬람에서는 결혼에 대한 결정권이 여성에게 인정됨으로써 불행한 결혼생활을 청산할 권리 역시 인정되었다. 그러나 이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족모두의 고통과 어려움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일시적인 스트레스나 감정적인 이유로 성급하게 이혼을 결정 내린 경우를 위하여, 얼마 동안의 단계와 대기 기간을 이혼하려는 부부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혼이 불가피한 경우, 결혼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슬람은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다.

1. 여성은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여겨지면 남성과 마찬가지로 이혼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2. 남성이 이혼을 위해 자신의 아내를 중상모략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 순결한 여성을 중상모략한 자가 그 증거를 대지 못할 경우, 큰 벌을 받게 된다.
3. 자녀의 양육권 문제가 발생할 경우엔 판결에 따르며, 양육에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쪽에 자녀를 맡긴다.
4. 결혼 전 재산, 저축금 등 아내의 재산에 남편은 손댈 수 없다. 특히 이것은 꾸란에 자주 언급된 부분이다.
5. 남녀 모두 이혼 후 재혼이 자유롭다. 재혼에 관한 규정은 초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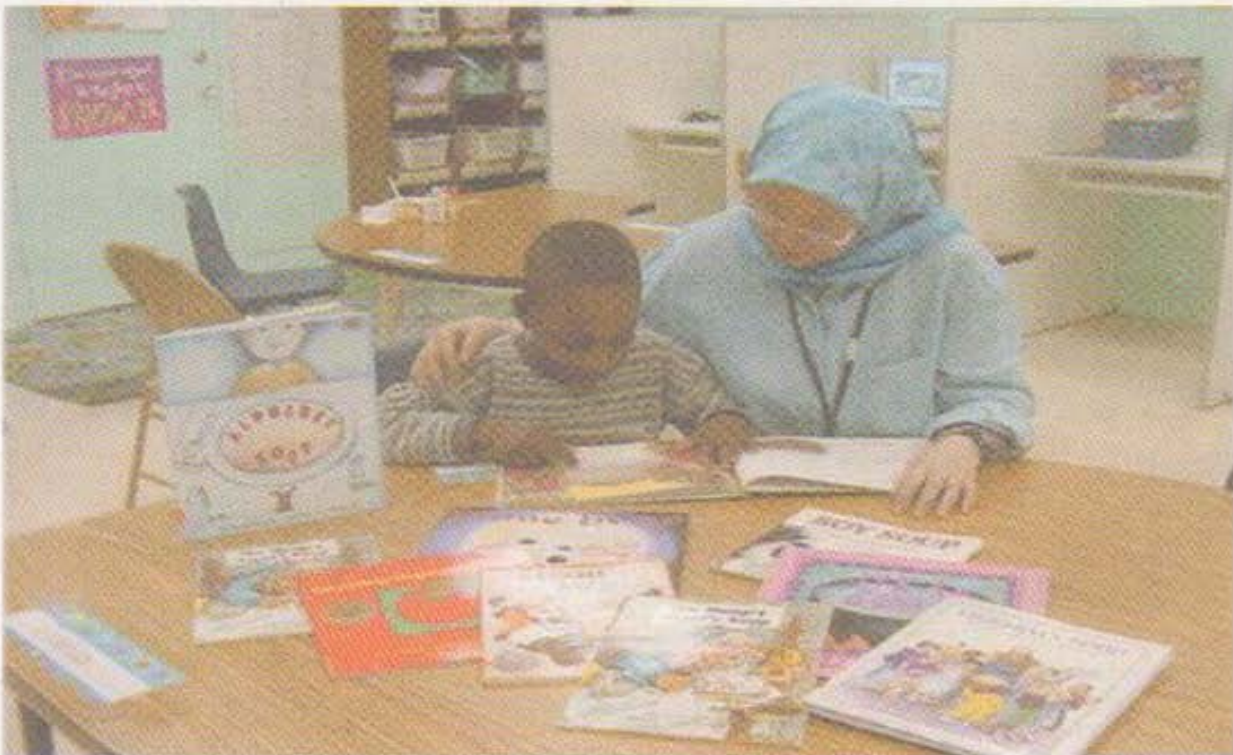
⁹ Encyclopedia Biblica, 1902, Vol. 3, p.2947

¹⁰ The Encyclopedia Britannica, 11th ed., 1911, Vol. 28, p.782

의 규정과 동일하다. 단 임신 사실을 모르는 채 이혼하고 곧바로 재혼할 경우 아이의 부모를 가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여성은 이혼 후 3-4개월에 해당하는 법정기간이 지난 후에만 재혼이 가능하다. 이 법정기간 동안에도 남편에게는 아내를 온전히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기간 동안의 재결합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오히려 권장 사항이다.

이슬람은, 남편과 이혼한 여성, 그리고 남편과 사별한 여성의 권리에 대해서도 충분한 배려를 하고 있다.

1. 여성의 재혼은 남성의 재혼과 마찬가지로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여성은 이혼 후 법정기간만 완료되면 재혼할 수 있다. 남성은 여성의 재혼을 방해해선 안 된다.



2. 남편과 사별한 여성 역시 법정기간이 지난 후엔 자유로이 재혼할 수 있다
3. 결혼을 하였으나 동침하기 전에 이혼하는 경우, 여성은 법정기간을 기다릴 필요없이 재혼할 수 있다.

여성은 결혼과 이혼, 재혼에 있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이슬람은 여성의 지위와 관련된 것이라면 아주 세세한 것까지 규정해두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당시 여성에 대한 우월의식을 지니고 있던 아랍인들에게 수 차례에 걸쳐 엄중히 경고하고 있다.

결론 말씀

이슬람은 무슬림들에게 지식을 추구하라고 명하되 남녀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여성이 필요하다면, 특히 여성의 본성에 맞아 그 사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갖는 데 있어, 그것을 못하게 하는 이슬람의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이슬람은 여러 가지 규정과 제도적 보완 장치를 이용해 여성의 사회적 활동과 재산권,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 같은 권리 보장과 평등은 꾸란이 제시되던 그 당시에는 물론이고 지금까지도 충분히 이상적인 모델이라 할 만한 것이다.

이 같은 권리와 함께 여성에게는, 남성에게는 없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면책과 특권이 주어졌다.

1. 남성에게는 필수인 금요일 낮의 합동 예배에 참석할 의무가 면



제된다. 여성들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참석할 수도, 참석하지 않을 수도 있다.

2. 가정 내에서 일체의 경제적 부양 의무가 면제된다.
3. 월경이나 임신 중일 때 혹은 산후 조리가 필요할 때 등의 경우에 여성은 예배와 단식의 의무가 면제된다. 이러한 경우에 여성이 종교적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4. 어머니로서의 여성은 자녀에 대해 그 아버지가 갖는 권리의 세 배의 권리를 가지며, 자녀들의 사랑과 존경, 효도를 받는데 있어서도 우선적인 특권을 지닌다.

창조주 앞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그러나 평등이 곧 동일이나 획일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각기 다른 능력과 재능, 성격을 지닌 다양한 사람들-그들은 분명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며, 그 누구도 차별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슬람의 평등 사상이다. 그러므로, 일부 지역의 여성 차별, 심지어는 확대를 이슬람이 조장했다는 식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인간의 평등에 대해 이슬람은 이렇게 가르친다.

“인간은 동일하게 창조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평등하게 창조되는 것이다. 인간들 간의 우열은 그 선행과 의로움에 의해 결정된다.”

아래는 여성에 관하여 선지자 무함마드(S.A.W)께서 하신 말씀들이다.

“여성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은 관대한 자이고, 여성들을 모욕하는 자는 사악한 자이다.”

“가장 완벽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품행이 가장 훌륭한 자들이고, 여러분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은 아내에게 가장 훌륭하게 대하는 자들이다.”

“여성들에게 잘 대하고 친절을 베풀라. 여성들은 여러분의 동반자이고 약속된 조력자이기 때문이다.”

“천국은 어머니의 발 아래에 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존재는 올바른 여성이라.”

“신앙을 가진 남성들은 자신의 부인을 멀리하지 않는다.”

“여성의 동의 없이 여성을 결혼시킬 수 없다. 여성에게 허락을 구함이 없이 약혼은 성립되지 않으며 여성의 침묵은 허락으로 간주된다.”

13. 일부다처

질문

왜 이슬람에서는 남자가 한 명 이상의 아내를 거느리는 것이 허용되는가? 즉, 왜 이슬람에서는 일부다처가 허락되는가?

대답

1. 복혼(複婚, polygamy)의 정의

복혼이란 한 사람이 한 명 이상의 배우자를 거느리는 결혼을 뜻한다. 복혼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일부다처이고, 다른 하나는 일처다부이다. 이슬람에서는 제한된 수의 일부다처는 허용되지만 일처다부는 완전히 금지한다. 원래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왜 이슬람에서는 남자가 한 명 이상의 아내를 거느리는 것이 허용되는가?

2. 꾸란은 오직 한 사람과 결혼하라고 말하는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성서이다

꾸란 외에, 남자들에게 오직 한 명의 아내만 거느리라고 가르치는 다른 성서는 없다. 그것이 베다(Vedas: 힌두교의 성서)이건, 라마야난(Ramayanan)이건, 마하브하라트(Mahabharat)이건, 기다(Geetha)이건, 탈무드(유대교의 율법과 그 해설)이건,

성경(Bible)이건 말이다. 이 성서들에 의하면, 남자는 그가 원하는 수 만큼의 여자를 아내로 거느릴 수 있다. 훗날에 이르러서야 힌두교의 성직자들과 기독교 교회가 아내의 수를 오직 한 명으로 하라고 제한했을 뿐이다. 힌두교의 성서에 의하면, 과거에 힌두교의 종교인사들은 여러 아내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라마(Rama)의 아버지인 다슈라트(Dashrat) 왕은 한 명 이상의 아내를 갖고 있었고 크리슈나(Krishna) 또한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다.

또한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원하는 만큼의 아내를 거느리는 것이 허용되었다. 왜냐하면 성경(Bible)에는 아내의 수를 제한하라는 것에 관한 언급이 없기 때문이었다. 수세기가 지나서야 기독교는 아내의 수를 한 명으로 제한하게 되었다. 일부 다처는 유대교에서도 허용되었다. 탈무드의 율법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세 명의 아내를, 그리고 솔로몬은 수백 명의 아내를 거느렸다. 일부다처의 관행은 랍비(Rabbi: 유대교 성직자)인 게르솜 벤 예후다(Gershom Ben Yehudah: 960년~1030년)가 일부다처를 금하는 칙령을 발표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무슬림 국가들에서 살고 있던 세파르디(스페인 또는 포르투갈계의 유대인) 공동체는 1950년, 이스라엘의 최고 율법학자단에 의해 한 명 이상의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금하는 법령이 만들어질 때까지 일부다처의 관행을 계속하였다.

자 이제 이슬람에서 왜 남자가 한 명 이상의 아내를 거느리는 것이 허락되는지를 살펴보자.

재미있는 주석

1975년에 실시된 인도에서의 인구조사에 의하면, 일부다처는 무슬림들보다 힌두교인들에게서 더 많았다. 1975년에 출판된, '이슬람에 있어서의 여성의 지위'에 관한 위원회 보고서 66쪽과 67쪽을 보면, 1951년과 1961년 사이의 일부다처 결혼의 실시율은 힌두교인들 5.06%, 무슬림들 4.31% 였다. 인도의 법에 의하면, 오직 무슬림 남성들만이 한 명 이상의 아내를 거느리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인도에서 비무슬림이 한 명 이상의 아내를 거느리는 것은 불법이다. 그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다처는 무슬림들보다 힌두교인들에 의해서 더 많이 행해지고 있었다. 사실상 힌두교에서는 아내의 수에 대한 제한이 없었으나 1954년 힌두교 결혼 법령이 통과된 후에 힌두교인이 한 명 이상의 아내를 거느리는 것이 불법으로 규정된 것이다. 현재는 힌두교 성서들에 의해서가 아닌, 인도의 법에 따라 일부다처가 금해지고 있다.

'카톨릭(바티칸)도 오늘날 아프리카 지역에서 똑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이유들로 인해, 카톨릭교회들은 일부다처를 피할 수 없는 선택의 방법으로 재고하고 있다.'
(일부다처의 재고, Eugene Hillman, 뉴욕, Orbis 출판사, 1973년)

최대 네 명까지 아내를 거느리는 것이 허락되는 이슬람의 일부다처의 허용에 대한 율법 때문에 대부분의 무슬림 남성들이 두 명 이상의 아내를 거느리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휴스턴 시미스 교수가 지적하듯이, '다수의 아내란 오늘날의 이슬람 사회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세계의 종교들, 252쪽)

Ira Zepp Jr.는 '무슬림들의 결혼의 2% 미만이 일부다처이다,'라고 말한다.

(A Muslim Primer (1992), 180쪽)

3. 꾸란은 제한된 일부다처를 허락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꾸란은 오직 한 사람과만 결혼하라고 말하는 유일한 성서이다. 이것에 관한 꾸란 말씀을 들어보자.

“너희가 선택하는 여성과 결혼하라. 두 명, 세 명, 또는 네 명도 좋다. 그러나 너희가 그녀들을 공정하게 대해줄 수 없는 두려움이 있다면 오직 한 명의 여성과만 결혼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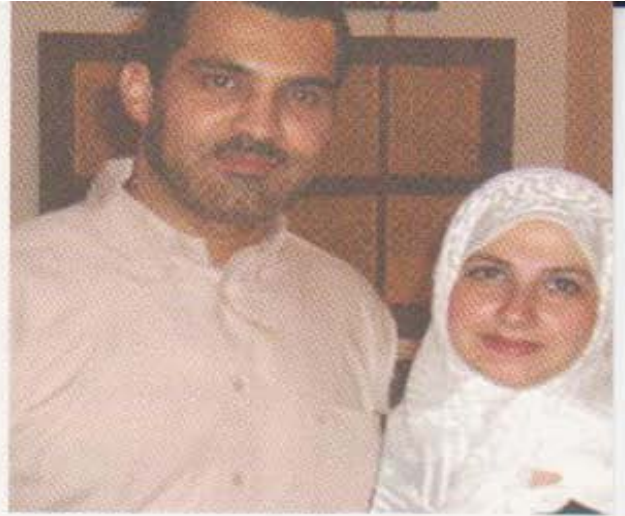
(꾸란 4장 3절)

위의 구절은 많은 무슬림들이 전사하여 무수한 과부와 고아들이 발생한 우후드 전투 이후에 계시되었다. 생존한 무슬림 남성들은 남겨진 과부와 고아들을 마땅히 부양했고 합법적인 결혼이 바로 과부와 고아들을 보호하는 최종수단이었던 것이다.

꾸란이 계시되기 전에는 일부다처에 대한 제한이 없었다. 그리하여 많은 남성들은 수십 명의 아내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이것은 한국의 역사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었다. 이슬람에서는 아내의 수를 최대 네 명으로 제한한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중요한 조건을 전제로 한다. 각각의 아내들에게 모든 면에서 공정하게 대해야 하는 조건뿐 아니라 고아들을 공정하게 대할 수 있어야 하기도 함이 성립되어야만 한 명 이상의 여자를 아내로 둘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꾸란의 말씀을 또 들어보자.

“너희는 아내들 사이에서 결코 공정함을 유지할 수 없다...”

(꾸란 4장 129절)



그러므로, 일부다처는 규칙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상황 하에서 허락되는 예외사항일 뿐이다. 많은 사람들은 무슬림 남성이 한 명 이상의 아내를 거느리는 것이 이슬람에서 마치의 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잠시 부연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이슬람에는 해야 할 것들과 해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한 다섯 가지 범주가 있다.

1. 파르드 (Fard): 의무 사항
2. 무스타합(Mustahab): 권고 사항
3. 무바흐 (Mubah): 허용되는 것
4. 마크루흐(Makruh): 하지 않도록 권고되는 것
5. 하람 (Haram): 금지 사항

일부다처는 '무바흐' 즉 '허용되는 것'에 해당한다. 그것은 특정한 상황 내에서 허용은 되지만 의무사항도 아니며, 권장되는 사항도 아닌 것이다.

한 명 이상의 아내를 둔 무슬림 남성이 오직 한 명의 아내를 둔 이보다 더 훌륭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슬람에서 말하는 한 명 이상의 아내를 두는 것이 허용되는 특정한 상황이란 무엇인가?

4. 일반적으로 여성들의 평균 수명은 남성들보다 더 길다

남성들과 여성들은 대략 같은 비율로 태어나지만, 여아는 남아보다 면역성이 더 강하여 세균 또는 질병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더 세다. 그래서 남아의 사망률은 여아의 사망률보다 높다.

전쟁 시에는 여성들보다 남성들의 사망률이 더 높게 되며, 또한 남성들은 사고와 질병으로 더 많이, 더 빨리 사망에 이르게 된다. 여성의 평균 수명은 남성보다 더 길다.

5. 세계의 여성 인구는 남성보다 더 많다

미국에서는 여성의 수가 남성보다 780만 명이 더 많다. 뉴욕 시만 하더라도 여성의 수가 남성보다 백만 명이 많으며, 뉴욕시의 남성 인구의 삼분의 일이 동성애자이다. 미국은 전체적으로 2500만 명 이상의 남성이 동성애자이다. 이러한 남성들은 여성들과의 결혼을 원치 않는다. 영국은 여성의 수가 남성보다 400만 명이 더 많다. 독일은 500만 명, 러시아는 900만 명이 더 많다.

6. 모든 남성에게 오직 한 명의 아내만을 두도록 제한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미국의 경우, 만약 모든 남성이 한 명의 여성과 결혼한다면 남편을 구할 수 없는 여성들의 수는 3천만 명이 넘을 것이다. 영국은 4백만 명, 독일은 5백만 명, 러시아는 900만 명이 넘게

된다.

남편을 구할 수 없게 된 여성이 택할 수 있는 길은 합법적으로 기혼 남성과 결혼하는 것 아니면 숨겨진 애인 또는 정부로 사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 외에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모두 전자를 택할 것이다. 그들은 누군가의 정부나 숨겨진 애인이 되기보다는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남편과 가정과 아기를 갖는 삶을 선택할 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비무슬림 여성들은 자신의 남편을 다른 여성들과 공유한다는 개념이 받아들이기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남편이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운다거나 아내 외의 다른 여성들과의 자유로운 교제가 행해지는 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은 이미 세계적으로 만연해있는 현실이다.

이슬람에서 허용하는 일부다처는 믿음을 가진 무슬림 여성들과 남성들에게는 사회적, 윤리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불가피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매우 중요하고 현실적인 최종수단인 것이다.

7. 기혼 남성과 합법적으로 결혼하는 것이 정부가 되는 것보다 낫다

현재 서구 사회에서 남성이 여러 명의 정부를 거느리는 것은 흔한 일이며 이러한 경우에 여성은 법적으로도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며 정신적, 육체적으로도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 또한 그러한 여성들이 아기를 낳을 경우 그들이 성장하여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겪으며 그리하여 사회적으로도 보호 받지 못하는 악순환은 계속되게 된다. 이슬람은 여성들이 사회 안에서 안정되고 보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올바르고 실제적인 길을 제시하고 있다.

사실상 1,400년 전 이슬람이 여성들에게 부여한 권리는 서양에서는 1900년대까지 언급조차 되지 않았던 것이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만 해도 영국과 미국에서는 여성이 그녀의 아버지나 남편의 서명 없이는 집이나 자동차를 살 수 없었다.

선지자 무함마드(S.A.W.)께서는 이슬람 이전시대에 여성들에게 행해졌던 끔찍한 관행들을 종식시키셨다. 예를 들어, 딸이 태어나면 바로 생매장해버리는 아랍의 악습이 그것을 중단 하라는 꾸란 구절의 계시와 함께 종식될 수 있었다. 이슬람은 또한 그 당시 아랍인들 사이에서 무제한적으로 행해지던 일부 다처제를 제한하였고 그와 함께 여성들의 복지를 위한 법률이 제정하였다.

14. 일처다부

질문

이슬람에서 일부다처는 허용되지만 일처다부는 금지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대답

많은 비무슬림들은 왜 이슬람에서 일부다처는 허용되지만 일처다부는 금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궁금해 한다.

이슬람 사회의 기초는 정의와 평등이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평등하게 창조하셨지만 각각에게 주어진 능력과 책임은 다르게 하셨다. 남자와 여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다르며 그로 인해 자연적으로 그들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과 책임 또한 다를 수밖에 없다.

이슬람에서,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지만 똑같지는 않다. 꾸란 4장 22절부터 24절까지는 무슬림 남성들이 결혼해서는 안 되는 여성들을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아래는 이슬람에서 일처다부를 금하는 이유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1. 일부다처의 경우, 태어나는 아이들의 부모가 누구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아버지는 한 사람이고 단지 어머니만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자녀들은 자신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아버지

가 누구인지에 대해 혼동되지 않는다. 반면에 일처다부의 결혼에서는 아이들이 태어날 경우, 어머니만 확인될 수 있고 아버지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혼동이 오게 된다. 이슬람에서 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기본이라고 보는 것은 바로 안정된 가정이다. 일처다부의 경우에는 그 기초가 확립되는 데 있어 많은 부작용이 생기게 된다. 오늘날의 많은 아이들은 자신의 부모가 누구인지 모르고 태어나 성장하고 있다. 심리학자들은 부모, 특히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아이들은 심각한 심리적 충격과 불안정 및 장애를 겪는다고 말한다. 대부분의 이러한 아이들은 정체성의 혼란과 함께 매우 불행한 어린 시절을 겪게 된다. 일처다부의 결혼으로부터 생겨난 아이는 자신의 어머니는 한 명이지만, 아버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물론 최근에는 과학의 발달로 인해 유전자 검사를 통해 부모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해졌지만 그 시작과 함께 부모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모든 크고 작은 문제들은 아이들의 성장과 가치관 형성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것임에 분명하다.

2. 남성은 본질적으로 여성에 비해서 더 강한 일부다처의 본성을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해 남성은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리는 것에 있어 그 책임을 다하기가 여성이 여러 명의 남성을 거느리는 것에 비해 훨씬 수월하다.

3. 남성은 생물학적으로,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린다 할지라도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더 쉽다. 여러 명의 남

편을 거느리는 여성은 아내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남편이 여러 명이므로 임신의 횟수 또한 몇 배로 증가하게 되고, 각각의 남편들로부터 생겨난 자식들의 양육 문제 또한 일처다부의 가정을 거느리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4. 한 명 이상의 남편을 거느리는 여성의 성생활에서는 단 한 명의 남편을 갖는 여성의 성생활에 비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될 수 있다. 우선 성병에 감염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남편들 중 한 명이 성병에 감염되었을 경우, 부인은 그와 잠자리를 함으로써 감염되게 되고, 그 후 부인이 또 다른 남편과 잠자리를 했을 때 그 남편 또한 부인으로 인해 감염되게 된다. 이것은 일부다처인 남성의 경우에는 아내들이 혼외 성교를 가지지 않는다면 해당되지 않는다. 위의 이유들 말고도 아마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지혜로 일처다부를 금하신 더 많은 이유들이 있을 것이다.

15. '지하드'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질문

'지하드'란 싸움이란 뜻인가?

대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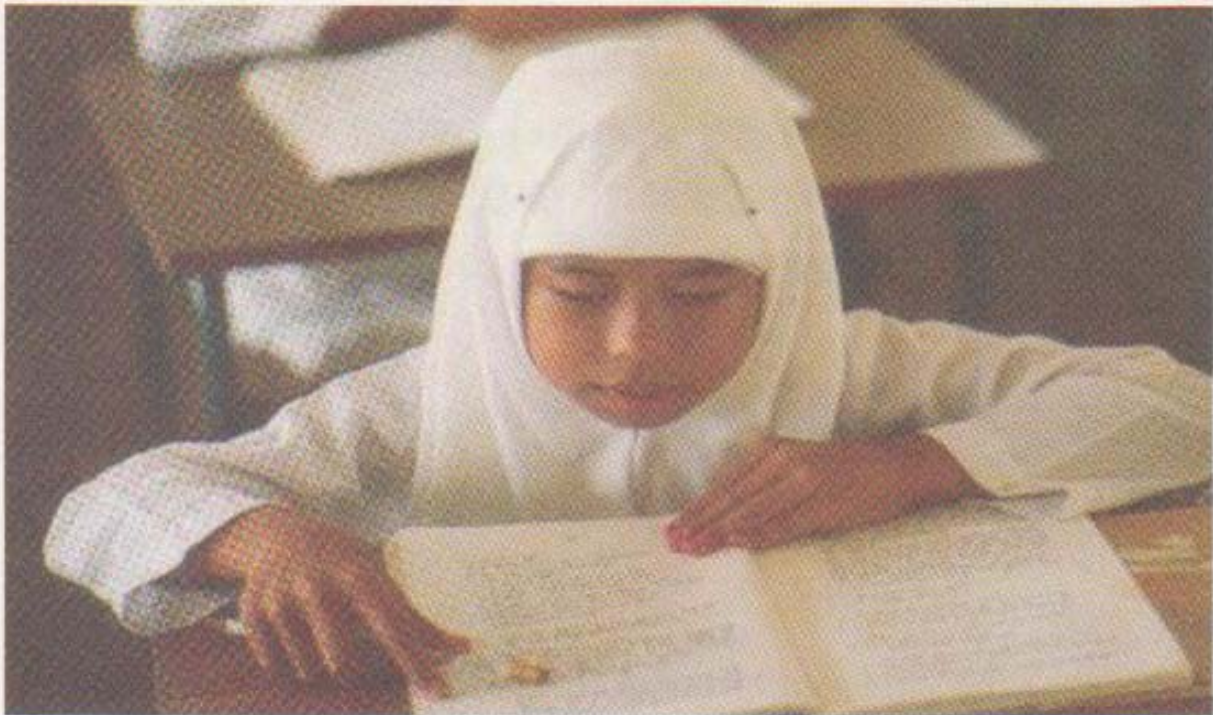
언어학적 의미로, 아랍어 '지하드(jihad)'는 '고투' 혹은 '분투'를 의미하며, 누구나 행하는 노력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학생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학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라든지, 노동자가 그 혹은 그녀의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 고군 분투 한다는지 정치가가 유권자로부터 자신의 인기를 유지하거나 더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 등이 모두 지하드의 의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고투' 혹은 '분투'라는 용어는 무슬림뿐만 아니라 비무슬림에게도 사용될 수 있다.

이슬람에서 가장 큰 지하드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인간이 자신의 악행을 고치려 노력하고 또한 정신적, 도덕적 성숙을 위해 겪게 되는 어려움들을 극복하려고 애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또한 타인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의미의 틀에서 보는 지하드는, 정신적인 정화를 위해 하는 큰 노력과 자기 자

신을 조절하는 것 및 도덕적 성숙을 갖추기 위해서 교육받는 것 등을 포함한다. 이슬람에서 가장 어려운 지하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지하드이며, 이것은 자신을 절제하는 노력을 의미한다. 이 노력은 욕심, 이기심, 육체적 욕구, 물질적 욕구, 세속적인 행동을 자제하는 것이다.

또한 '지하드'란 적에 대해 방어할 때 온 힘을 다한다는 뜻인데 이 때의 방어는 사탄, 인간의 욕망 및 적을 상대로 하는 방어이다.

서구에서는, 지하드는 주로 성전(聖戰)으로 번역되는데, 이는 대중매체가 보급한 용어이다. 이슬람의 가르침에 따르면, 비록 어떤 전쟁들은 필수 불가결하고 정당화될 수 있다 해도, 전쟁을 시작하거나 선동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은 것으로 여겨



진다. 이것은 꾸란과 하디스(선지자 무함마드(S.A.W.)의 언행록)를 근거로 한 해석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무슬림들은 지하드를 곧 성전(聖戰)이라고 해석하는 연구원이나 학자들에게 그 부당함과 잘못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다. 불행히도 일부 무슬림 작가나 꾸란, 하디스 또는 다른 이슬람 문학작품의 번역가들이 지하드를 성전으로 번역하는데, 이는 서구의 선전에 수세기를 걸쳐 영향을 받아온 탓이다.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천년전의 십자군 전쟁을 가리키기 위해 성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데서 비롯된다. 또한 아랍어에는 '싸우다, 부딪치다'의 의미를 가진 '끼탈(Qital)' 과 '전쟁'을 뜻하는 '하르브(Harb)'란 단어가 있다. 만약 '지하드'라는 단어가 '싸우다, 죽이다, 전쟁'을 의미하는 단어였다면 꾸란에 '끼탈'과 '하르브'라는 단어들은 따로 언급되지 않았을 것이다.

지하드는 펜, 혀, 손, 매체, 그리고 필요하다면, 무기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투쟁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슬람에서 지하드는 개인이나 국가의 힘, 지배, 영광, 부, 명성이나 자부심을 위해 투쟁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16. 무슬림들은 근본주의자들이며 테러리스트들인가?

질문

왜 대부분의 무슬림들은 근본주의자들이며 테러리스트들로 대중에게 알려지는가?

대답

이 질문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세계의 정치, 종교적인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자주 무슬림들이 직면하는 질문이다. 오늘날 거의 모든 형태의 미디어에서 이슬람과 무슬림들에 대한 그릇된 정보와 사실들이 아무 비판 없이 전달되고 있다. 사실상 이러한 그릇된 정보와 거짓 선전은 무슬림들에게 사회적 차별을 경험하게 하며 더 나아가 무슬림들에 대한 위협과 폭력행위를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1995년 4월 19일, 미국 오클라호마시티에서 연방정부 건물이 폭파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많은 어린이들을 포함하여 168명의 인명이 상실했다. 오클라호마 폭탄 폭발의 후에 미국의 언론이 벌린 반 무슬림 캠페인에서 볼 수 있다. 그 당시 언론은 재빨리 그 공격의 배후에는 중동의 음모가 있다고 선언하였다. 나중에 범인

기독교인이나 유대교인이 사람을 살해했을 때는 그들의 종교가 언급되지 않지만, 무슬림이 그러했을 때는 이슬람이란 종교가 언급되는 것은 마땅한 일인가?

은 미국 군인으로 밝혀졌다. 서구 사회의 미디어에 “이슬람”이라는 말은 “테러”와 거의 동의어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반드시 제기해 보아야 하는 질문은 이슬람이 테러를 권장하는가 하는 것인데, 그에 대한 대답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슬람은 일부의 잘못 인도하는 사람들에 의해 자행되는 테러 행위를 절대적으로 금한다. 불행하게도 한 무슬림이 가증스러운 행위를 범할 때마다 미디어에서는 그를 “무슬림 테러리스트”라고 딱지를 붙인다.

근본주의와 테러에 관한 주장을 분석하여 보도록 하자.

1. ‘근본주의자’라는 말의 정의

근본주의자란 그가 따르고 있는 주의나 이론의 근본들을 고수하는 사람이다. 사람이 훌륭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는 약의 근본들을 알고 따르고 실행해야만 한다. 다시 말하자면 그는 약의 분야에 있어서 근본주의자가 되어야만 한다. 사람이 훌륭한 수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는 수학의 근본을 알고 따르며 실행해야만 한다. 그는 수학의 분야에서 근본주의자가 되어야만 한다. 사람이 훌륭한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과학의 근본을 알고 따르며 실행해야만 한다. 그는 과학의 분야에서 근본주의자가 되어야만 한다.

2. 모든 근본주의자들이 똑같은 것은 아니다

근본주의자들을 다 똑같은 붓으로 칠할 수는 없다. 모든 근본

주의자들을 좋다거나 나쁘다는 말로 규정할 수만은 없다. 그러한 규정은 그가 근본주의자로 활동하고 있는 분야에 따라 달려 있을 것이다. 근본주의자 강도나 도둑은 사회에 해를 끼치며 따라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반대로 근본주의자 의사는 사회를 이롭게 하며 많은 존경을 받는다.

3. 나는 내가 이슬람 근본주의자임이 자랑스럽다

나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무슬림 근본주의자이며 이슬람의 근본들을 알고 따르며 실행하고자 분투노력하는 사람이다. 진정한 무슬림은 근본주의자임을 회피하지 않는다. 나는 이슬람의 근본들은 인류와 전세계에 유익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슬림 근본주의자임이 자랑스럽다. 전 인류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이슬람의 근본은 단 하나도 없다. 많은 사람들은 이슬람에 대한 오해를 품고 있고 이슬람의 몇몇 가르침들이 불공정하거나 부적당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것은 이슬람에 대한 불충분하고 부정확한 지식 때문이다. 만일 마음을 터놓고 이슬람의 가르침들을 분석한다면 이슬람이 개인 및 집단 모두에게 이로운 점들로 가득 차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4. 근본주의자라는 말에 대한 사전적 의미

웹스터 사전에 의하면 근본주의란 20세기 초엽에 발생한 미국 신교에서의 한 운동이었다. 그것은 모더니즘에 대한 반응이었고 신앙과 도덕의 문제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문자 그대로의

역사적 기록에 있어서도 성경의 무오류성을 강조하였다. 그것은 하나님의 문자 그대로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근본주의란 원래는 성경이 어떠한 실수나 잘못도 없는 하나님의 축어적인 말씀이라고 믿었던 기독교인들에게 사용된 말이었다. 옥스포드 사전에 의하면 근본주의란 그 어떤 종교이건 특히 이슬람 초기의 또는 근본적인 교리에 대한 엄격한 유지를 뜻한다. 오늘날 한 사람이 '근본주의자'라는 말을 사용하면 그 즉시 그는 테러리스트인 무슬림을 생각한다.

5. 같은 사람의 같은 행동에 붙여지는 다른 꼬리표들, 즉 테러리스트와 애국자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기 전에 인도의 자유 투사들은 영국 정부에 의해 테러리스트들이라는 꼬리표가 붙여졌다. 그러나 그들은 인도인들에 의해서는 애국자들이라고 칭송되었다. 똑같은 사람들의 똑같은 행동에 두 가지 다른 꼬리표가 붙은 것이다. 하나는 테러리스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애국자이다. 영국이 인도를 지배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들을 '테러리스트'라고 불렀고 그러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을 '애국자' 그리고 '자유 투사'라고 불렀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판결을 받기 전에 그에게 공정한 청문의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논쟁의 양쪽 면을 들어야만 하고,

상황이 분석되어야만 하며, 그 사람의 의도가 고려되어야만 하고, 그리하여 그에 따라 그 사람에게 판결을 내려야만 한다.

6. 이슬람은 평화를 뜻한다

하나님께서 꾸란에서 말씀하신다.

“타인과 그리고 지상에 아무런 해악을 끼치지 아니한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살해하는 것은 모든 인류를 살해하는 것과 같으며 또한 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모든 인류를 구제하는 것과도 같다.”

(꾸란 5장 32절)

이슬람은 평화를 뜻하는 말인 ‘살람(Salaam)’에서 나온 말이다. 이슬람은 추종자들에게 전세계에 걸쳐 평화를 유지하고 촉진하도록 가르치는 평화의 종교이다. 그러므로 모든 무슬림은 근본주의자이어야 한다. 즉 그는 평화의 종교인 이슬람의 근본들을 따라야만 한다.

17. '이슬람의 테러' 라는 용어는 과연 맞는 것인가?

질문

'이슬람 테러리스트' 또는 '무슬림 테러리스트' 라는 말이 올바른 용어인가?

대답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이며 '이슬람' 이란 말은 평화를 의미한다. 선지자 무함마드(S.A.W.)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신 꾸란의 가르침들은 이슬람에는 테러가 들어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다음의 질문들을 살펴보자.

- 그렇다면 오늘날 테러와 관련된 일부의 무슬림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 '무슬림 테러리스트' 란 용어는 올바른 용어인가?

아래의 설명은 위의 질문들에 대한 분명한 답이 될 것이다.

한 종교의 참된 메시지나 다른 체계의 사상들은 때때로 그 지지자들에 의해 왜곡되거나 부정확하게 해석될 수 있다. 그것은 힌두교, 불교, 유대교, 기독교를 포함하여 다른 모든 종교나

신앙에 두루 적용된다. 종교의 이름으로 테러에 의존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성한 종교들에 속해 있지 않은 이교도의 믿음이거나 새로 생겨나고 발전된 어떤 신비한 가르침들과 관련된 광적인 집단들이다. 이 집단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구성원들에 대해서도 끔찍한 폭력 행위를 수행한다.

제2차 세계대전은 인종차별주의와 파시스트이념에 의해서 점화된 광기였다. 이러한 이념들의 이른바 신성한 가치인 폭력과 충돌은 격렬하게 전세상을 감염시키고 5천5백만 명의 사람들은 파시스트가 가진 포악성의 제물이 되었다. 비록 연합군들이 승리하고 파시즘은 패배했지만 파시즘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땅 속으로 숨었을 뿐이다.

‘기독교인 테러리스트들’ 또는 ‘미국인 테러리스트들’?

만일 ‘이슬람 테러리스트’ 또는 ‘무슬림 테러리스트’ 라는 말이 올바른 용어라면 아래의 예들은 ‘기독교인 테러리스트’ 또는 ‘미국인 테러리스트’ 라는 용어들 또한 옳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에서는 KKK(Ku Klux Klan)단과 그와 유사한 ‘백인 우월주의’ 집단들의 부활이 이루어졌다. 오늘날 KKK 단은 공격행위를 감행하며 집단원들로 하여금 테러와 폭력 행위를 범하도록 부추기고 있다. 미국 전역에는, 비록 다른 이름들로 위장하고 있지만, 아직도 상당히 많은 KKK 단 교회들과 그 교회들의

가르침과 관련된 파시스트 조직들이 있다. 그 교회와 또 그 교회에 관련된 집단들은 흑인들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비유럽 인종들까지도 거부한다. KKK 단의 근본적 가르침은, 백인 유럽인들은 다른 모든 인종들보다 우월하며 백인들은 다른 인종들에 의해 결코 오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이는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다른 인종들에 의한 오염을 막기 위한다는 명목은 그들에게 감행하는 공격의 기반이 된다. '백인 우월주의' 라는 개념을 옹호하는 과학적 정당성은 다윈(Darwin)의 진화론이다. 다윈은, 예를 들어 유럽 인종들과 같은 어떤 인종들이 진화가 이루어지는 과정 동안에 다른 인종들보다 더 많이 발전하였다고 암시하였다. 이러한 고등 인종들에 속하지 않는 인종들은 그의 견해에 의하면 원숭이들보다 약간 더 나은 원시적 피조물들이었다.

미국의 또 다른 집단인 '창조주의 세계 교회(WCOTC)' 는 나날이 더 강하게 성장해가는 적극적인 인종차별주의 조직들 중 하나이다. 백인 우월적 사상이 그 조직의 근본이념이다. 그들의 웹사이트에서 조직의 창시자인 '벤 클라세인' 은 그들의 이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의 황금률은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백인에게 좋은 것은 최고의 미덕이다. 백인에게 나쁜 것은 궁극적으로 최악이다. 검은이들은 의심할 바 없이 사닥다리의 바로 밑바닥에 있는 존재들로 원숭이들과 침팬지들보다 아주 조금 더 위에 있을 뿐이다. 우리는 더러운 인종들이 번창하고, 증식하여, 우리를 이 행성의 제한된 공간에서 몰아내도록 도와줄 의도가 전혀 없다.”

미국에 있는 또 다른 조직으로 '국가 연합' (National Alliance) 이 있는데 오래된 주립 대학교의 물리학 교수인 윌리엄 피어스 박사에 의해 1970년에 창립되었다. 피어스 박사는 1997년에 있었던 인터뷰에서 조직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 자신들을 흑인들과 다른 유색인종들로부터 분리시켜야만 한다... 결국 우리는 그들에게 상처를 주어 제거할 수 밖에 없다.”

'기독교인 테러리스트들' 또는 '유럽인 테러리스트들'?

만일 '이슬람 테러리스트' 또는 '무슬림 테러리스트' 라는 말이 올바른 용어라면 다음의 예들은 '기독교인 테러리스트들' 또는 '유럽인 테러리스트들' 이라는 용어 또한 유효하게 만든다.

신 나치주의자들은 유럽에서 미국의 KKK 단과 똑같은 역할을 수행하였다. 유럽의 인종차별주의는 대영제국에서 스킨헤드(Skinhead)는 말 그대로 머리카락을 모조리 밀어 반짝거리는 대머리 모양을 한 백인들을 지칭한다.

족들로부터 시작되었고 1990년대에 그것은 신 나치주의 운동으로 변하였다. 그들 스스로를 신 나치주의자들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이 단체들의 주요한 특징은 KKK단과 마찬가지로 백인의 우월성을 주장하고 외국인들과 가난한 지역들에 사는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것이다. 신 나치주의자들은 많은 다른 유럽의 나라들에서 다양한 목표물들을 정해놓았다. 독일의 터키인

들, 헝가리, 슬로바키아, 그리고 체코의 집시들, 대영제국의 아시아인들, 프랑스의 북아프리카인들, 그리고 브라질의 동북부인들이 그들의 희생물 안에 포함되어 있다. 신 나치주의자들이 내세우는 색다른 특징은 폭력, 증오, 협박, 그리고 파괴이다.

오클라호마 폭파사건(The Oklahoma Bomber)은 신 나치주의에 의한 것이었다. 1995년 4월 19일 전까지 미국인들이 목격한 최대의 테러리스트 공격은 티모시 맥베이가 저지른 오클라호마 연방 빌딩 폭파사건으로 많은 어린이들을 포함하여 168명의 인명이 상실했다. 흥미로운 사실은 티모시 맥베이가 신 나치주의자였을 뿐만 아니라 일탈 집단의 일원이기도 했다는 것이다. 맥베이는 1993년에 한 농장에서 불에 타 죽은 데이비드 코레쉬와 그의 추종자들에 대한 복수로 그 폭파사건을 자행하였다고 주장했다. 맥베이에 의하면 코레쉬와 그의 추종자들은 자살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클라호마 주(state)에 의해 살해되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그 주(state)에 복수하기로 결심하고 연방 빌딩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폭격을 가하기로 계획했던 것이다. 그 폭격 후에 맥베이는 또 다른 신 나치주의자인 테리 니콜즈의 도움을 받았다. 니콜즈와 맥베이를 지원하고 폭발물들의 설치를 돕고 맥베이가 피하는 바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인식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들 모두가 신 나치주의자들이라는 것이다. 맥베이는 폭격 감행 얼마 전에 버팔로 소식지에 편지를 보내 자신은 그 폭격에 대해 유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고 연방 정부를 상대로 한 자신의

고독한 전쟁에 있어서의 합법적인 전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오클라호마 폭탄 사건 후에 미국의 언론은 그것이 중동의 음모에 의한 것이라며 반 무슬림 캠페인을 펼쳤다. 나중에 범인은 미국 군인인 티모시 맥베이로 밝혀졌다. 서구 사회 미디어의 영향으로 “이슬람”이라는 말은 “테러”와 거의 동의어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하지만 세리비아인들이 보스니아에서 무고한 무슬림 여성들을 살해하고 강간할 때 미디어는 “기독교인 테러리스트들”이라는 딱지가 붙지 않으며, 북 아일랜드의 행동주의자들 또한 “기독교 테러”라는 딱지가 붙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들을 숙고해볼 때 우리는 미디어에 이중 잣대가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신 나치주의자들뿐만 아니라,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것과 연관되어온 다른 조직들이 있다. 이들 중에는 여러 해 동안 대영제국에게 주요한 가시여 온 IRA, 스페인 바스크 지역의 ETA, 등이 있다.

힌두교 테러리스트들?

만일 ‘이슬람 테러리스트’ 또는 ‘무슬림 테러리스트’ 라는 말이 올바른 용어라면 다음의 예들은 ‘힌두교 테러리스트들’ 이라는 용어 또한 타당하게 만든다.

RSS라는 이름의 인도의 테러 조직은 비힌두교인들에게 테러를 가할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죽이는 것에 관련되어 왔다. 한

예로 그들은 구주라트(Gujurat)에서 2000명 이상의 무슬림들을 살해하였고, 또한 그들은 한 기독교인 선교사와 그의 두 아들을 산 채로 불태워 죽였다. 또한 그들은 그들의 이익에 반대하는 내용의 영화들을 상영하는 극장들을 공격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의 조직 때문에 모든 힌두교인들을 테러리스트들이라고 불러야 할까?

일본 테러리스트들?

만일 '이슬람 테러리스트' 또는 '무슬림 테러리스트' 라는 말이 올바른 용어라면 다음의 예들은 '일본인 테러리스트들' 이라는 용어를 또한 타당하게 만든다.

일본에서 음신리쿄(Aum Shinrikyo)라는 일탈집단은 지하철에서 독가스를 유출함으로써 수백명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이 일탈집단은 동경 근처의 마추모토(Matsumoto)의 가르침에 의하면 사람은 오직 살인을 범하는 것에 의해서만 영혼을 정화시킬 수 있다. 세상의 지배는 오직 그가 그의 추종자들에게 가르치는 폭격을 수행함으로써만 가능해진다고 그들은 믿는다. 정상인들이라면 잔인한 것으로 여길 행위들이 이 사교집단원들에게는 참된 도덕의 예들인 것이다.

한국인 테러리스트들?

미국 대통령 조지 부쉬는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지칭하고 테러 국가로 규정하였다. 그런데 북한에 사는 사람들은 한국인들

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슬림들 중 일부 테러 단체들을 ‘이슬람 테러리스트’ 또는 ‘무슬림 테러리스트’ 라고 부른다면, 한국인들을 ‘한국인 테러리스트들’ 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러나 정반대로 한국인들은 매우 훌륭하고 겸손한 사람들이며 비폭력적이고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는 북한 정부가 내세우는 어떤 정책들로 인해 모든 한국국민에게 테러리스트라는 꼬리표를 붙힐 수는 없을 것이다.

그들을 무엇이라 불러야 할까?

위에서 살펴보았다시피 테러리스트들 리스트는 계속해서 이어진다. 결론은 대단히 간단하다. 그들이 내세우는 종교나 신앙 또는 국가 때문에 테러리스트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그것은 그 종교, 그 신앙, 그 국가 전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므로 만일 어떤 테러리스트 단체가 있다면 그 단체의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 예를 들면 ‘이슬람 테러리스트’ 또는 ‘무슬림 테러리스트’ 가 아니라 ‘알-카에다 테러리스트’ 와 같이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

성경은 테러를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독교인들 중에는 테러와 관련된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테러에 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에 대해 자연스럽게 질문하게 된다. 성경에 의하면 기독교란 ‘사랑의 메시지’ 이다. 예수

(A.S.)는 제자들에게, '너희의 적들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오 5장 44절),' 고 말씀하셨다. 또한 예수(A.S.)는, '너희의 뺨을 때리는 자에게 다른 쪽 뺨을 내밀라 (루가 6장 29절),' 고 말씀하신다.

오늘날 테러와 관련된 이러한 단체들은 그들의 종교에 대해서 사실상 아는 바가 전혀 없으며 그들의 생전에 아무도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거나 본 적도 없으니 대부분 성경의 도덕적 가치들을 전혀 모르는 자들로 단지 '하나님의 뜻' 이라는 야만적인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을 뿐이다. 즉 많은 단체들이 부정적인 방법으로 기독교가 엄격하게 금지하는 끔찍한 행위들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슬람은 테러를 가르치는가?

하나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종교를 이유로 너희에게 대적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너희 주거지로부터 추방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친절하고 그들과 공정하게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하셨나니 실로 하나님은 공평하게 행하는 자들을 사랑하시니라."

(꾸란 60장 8절)

선지자 무함마드(S.A.W.)께서는 병사들에게 여인들과 아이들을 죽이는 일을 금하셨으며 다음과 같이 충고하시곤 하였다.

'아이들을 죽이지 말라. 교회에서 예배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건드리지 말라. 여인들과 노인들을 결코 죽이지 말라. 나무에 불을 지르

거나 베지 말아라. 결코 가옥을 파괴하지 말라.’

선지자 무함마드(S.A.W.)께서는 또한,

“한 사람이 매우 목이 마른 개에게 물을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이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그의 죄를 용서해주셨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선지자여, 우리는 우리들이 동물들에게 행한 친절로 보상을 받으니까?”

라는 질문을 하자,

“살아 있는 모든 동물이나 인간에게 베푸는 친절에는 보상이 있다.”

고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에 대한 증오로 공정을 잃지 않도록 하여라. 공정하여라. 그것은 경건함에 가까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시니라.”

(꾸란 5장 8절)

꾸란 그리고 하디스(선지자 무함마드(S.A.W.)의 언행록)에 의하면 무방비의 민간인들의 마음에 테러를 가하는 행위, 건물과 재산에 대한 전면적인 파괴, 무고한 남자들 및 여인들과 아이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은 이슬람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으며 가증스러운 행위들이다. 무슬림들은 평화, 자비, 그리고 용서의 종교를 따르며 압도적인 대다수의 무슬림들은 일부 사람들이 무슬림들을 연상하는 폭력과 아무 관계가 없다. 만일 무

슬림 개인이나 무슬림 단체가 테러 행위를 범한다면 그와 관련된 사람은 이슬람 율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될 것이다. 일부 무슬림이 잘못한다고 해서 모든 무슬림이 테러리스트이라고 불리우는 것도 잘못된 일이다.

자신의 나라를 지키는 자는 테러리스트인가 독립운동자인가?

팔레스타인의 저항단체들 또한 군사목표에 대해 공격을 하면서 민간인들이 희생하는 사례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국제적으로 테러단체로 규정되지 않고 저항단체로 규정되고 있다. 저항단체의 목적은 독립이고 이를 위해 군사적인 힘을 동원하여 민간인이 아닌 군인을 표적으로 삼는다.

일제시대 한국 독립운동가는 비폭력운동을 하는 사람들과 폭력적인 방법도 동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안중근 윤봉길 의사는 암살이란 폭력적인 방법도 실행했다. 하지만 독립운동단체가 일본민간인을 학살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안중근은 자기나라 한국을 위해 몸바치신 분 중에 한 분이다. 하지만 이런 일에도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게 보게 된다. 한국 입장에서 보면 그는 나라를 살리는 분이지만 반대로 일본에서 본다면 그는 테러리스트다. 즉 누구를 테러리스트인지 또는 독립운동가인지 판단할 때는 보는 입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다. 그래서 어느 누구나 단체를 무엇이라고 부를 때 한쪽의 시각으로 보아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다. 만일 온 세계 사람들이 그 당시 일본 언론만을 본다면 안중근, 윤봉길, 만해 한용운, 김좌진, 유관

순, 나석주 등 한국 독립운동자들이 모두 다 테러리스트이다. 이것이 올바른 일인가? 마찬가지로 미국이나 유럽 언론만을 보아서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무슬림들이 전부 다 테러리스트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정의로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라크에서 죽은 한국인에 대한 무슬림들의 반응

전세계의 무슬림들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모든 단체의 테러 행위를 비난한다. 한국인이 살해된 후 한국인들은 이슬람과 무슬림들에 대해 나쁜 감정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에게 다음의 질문을 던져보아야 한다. 한 명의 한국인이 테러리스트들에 의해 살해되었다. 그러나 수천명의 이라크 무슬림들이 바그다드와 다른 이라크의 도시들에서 있었던 테러리스트들의 폭격으로 살해되었다. 만일 그 테러리스트들이 좋은 무슬림들이라면 왜 그들은 이라크의 다른 무슬림들을 죽이겠는가? 그러한 폭격의 목표는 외국의 힘들을 겨냥한 것이지만 항상 그 결과는 너무나 많은 이라크의 무슬림들의 살해로 나타난다.

만일 한 명의 무고한 한국인이 살해되어서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슬픔에 젖었다면, 여인들과 어린이들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수천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살해당한 국가의 국민들의 상태는 어떠할지 한번 상상해보자. 또한 매일매일 무고한 생명들이 살해당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가? 그들의 슬픔은 어떠한가? 왜 그들은 살해당하는지? 이 모든 일을 당해야 하다니 그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을까? 만일 어떤 외국의 군대들이 와서 여러분의 나라를 점령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들까? 사담 후세인이 제거되었고, 그의 군대는 해체되었고, 대량 살상 무기도 발견되지 않아 더 이상 점령할 이유가 남아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나라를 점령한 외국인 군대들이 철수하기를 거부할 때 당신은 어떤 느낌이 들겠는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나라를 점령한 외국인 군대들을 지원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나라를 점령한 외국인 군대들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지원할 것인가?

오늘날 세계에는 17억 이상의 무슬림들이 있다. 무슬림들을 '이슬람 테러리스트들' 또는 '무슬림 테러리스트들' 이라고 부르는 것은 옳지 않다.

“...만일 누군가가 지상에 아무런 해악을 끼치지 않은 한 사람이라도 죽인다면 그것은 전 인류를 죽인 것과 같을 것이며 만일 누군가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면 그것은 전 인류의 생명을 구한 것과 마찬가지 아니라.”

(꾸란 5장 32절)

18. 돼지고기는 왜 금지됐나?

질문

이슬람에서는 왜 돼지고기를 금지하는가?

대답

어떤 음식을 먹느냐는 그 사람의 건강을 좌우한다. 그것이 바로 이슬람이 음식물에 대한 규제를 정해 놓은 이유이다. 이슬람은 우리의 도덕적 건강뿐만 아니라 육체적 건강 또한 강조하는데, 건강한 사회를 위해선 두 가지 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돼지고기를 금하는 것은 위생을 위해서 그리고 건강한 영양을 위해서 이슬람이 취해 놓은 규제들 중의 하나이다.

이슬람은 내적 기능의 함양을 위해 기도와 다른 헌신적 의무들을 통한 육체의 청결과 영혼의 정화를 강조한다. 이슬람은 우리에게 덕을 쌓는 방법과 나쁜 습성을 버리는 방법을 가르치는데 이것은 바로, 주어진 교육과 환경에 따라 좋고 나쁜 습성 모두가 인간 내부에서 생겨나기 때문이다.

인간에게는 선천적으로 몇 가지 욕구들이 있는데, 식욕, 수면 욕 그리고 성욕이 세 가지 주요 욕구들이다. 인간은 또한 선천적으로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슬픔, 행복, 사랑, 두려움, 혐오, 그리고 탐욕 등이 그것이다. 이슬람은 이러한 욕구들을 완전히

버릴 것을 권고하지 않고 종교적 교육과 훈련을 통해 통제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영국의 속담에 “당신은 바로 당신이 먹는 바로 그것이다(You are what you eat)”라는 말이 있다. 내과 의사들과 의학 전문가들에 의하면, 돼지고기는 해로운 음식으로 알려져 있다. 돼지고기를 먹는 것은 인격의 타락을 유발하며 인간내면의 도덕적, 정신적 기능을 파괴시킨다.

돼지고기를 금하는 것은 자신의 본성의 정화를 목표로 하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음식이 섭취되면 단지 위와 장을 거쳐 배설물이 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음식은 흡수되어 신진대사가 이루어지고 뇌를 포함하여 신체의 모든 부분으로 침투되며, 이것은 인간의 본성에 적지 않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각기 목적을 지닌 채 창조되었다. 선지자 무함마드(S.A.W.)는 항상 동물들에게 친절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우리가 비록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야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돼지자체를 미워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우리는 다른 동물들에게 친절한 만큼 돼지에게도 친절해야 하며 돼지를 고문하거나 학대해서는 안 된다.

다음의 점들을 읽어보면 이슬람에서 돼지고기를 금한다는 이유가 설명될 것이다.

1. 꾸란 속에서 금지된 돼지고기

꾸란은 네 번씩이나 각기 다른 곳에서 돼지고기를 금하고 있다. 2장 173절, 5장 3절, 6장 145절, 그리고 16장 115절이다.

“너희에게 허락되지 아니한 것이 있으니 죽은 고기와 피와 돼지고기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잡지 않은 고기다...”

(꾸란 5장 3절)

2. 성경속에서 금지된 돼지고기

“돼지는 굽은 두 쪽으로 갈라졌지만 새김질을 하지 않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이런 동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주검에 닿아도 안 된다.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한 것들이다.”

(레위기 11장 7절 - 8절)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하지 아니하므로 부정한 것이다. 이런 것들의 고기는 먹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주검을 건드려도 안 된다.”

(신명기 14장 8절)

이와 비슷한 돼지고기 섭취 금지는 이사야 65장 2절부터 5절까지에 반복되어 언급되고 있다.

3. 돼지고기 섭취는 여러 질병들을 일으킨다

비무슬림들과 무신론자들은 이성, 논리 그리고 과학에 의해 확신을 받아야만 동의할 것이다. 돼지고기 섭취는 적어도 70가지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사람은 회충, 요충, 십이지장충과 같은 다양한 기생충을 가질

수 있다.

가장 위험한 기생충 중의 하나는 촌충이다. 촌충은 장에 기거하며 대단히 길다.

그 유충은 혈관 속에 들어가 거의 신체의 모든 기관에 이를 수 있다. 그것이 뇌에 들어가면 기억력 상실을 일으킬 수 있다. 그것이 심장에 들어가면 심장병을 일으킬 수 있고 눈에 들어가면 실명할 수 있고 간에 들어가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그것은 신체의 거의 모든 기관을 상하게 할 수 있다.

또 다른 위험한 기생충은 Taenia Tichurasis이다. 돼지고기에 대한 잘못된 생각은, 잘만 익힌다면 돼지고기 내의 유충들은 죽는다는 것이다.

최근에 미국에서 실시된 연구에 의하면 Taenia Tichurasis로 고생하는 24명 중에 22명이 돼지고기를 푹 익혀서 먹었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이것은 돼지고기 속의 유충이 보통의 요리 온도에서 죽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4. 돼지고기는 지방을 쌓는 물질을 가지고 있다

돼지고기는 근육을 쌓는 물질은 거의 없고 과도한 지방을 함유한다. 이 지방질은 혈관 속에 축적되어 고혈압과 심장병을 유발할 수 있다. 미국인들의 50% 이상이 고혈압으로 고생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5. 돼지는 지상에서 가장 불결한 동물들 중의 하나이다

지구상의 모든 동물들에게 그들이 먹이로 삼는 특정한 음식물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 참으로 신비하지 않은가? 새들은 씨앗을, 고양이와 개는 고기를, 소와 말은 풀을 먹는 등 말이다. 오직 인간들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음식으로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도저히 이치에 맞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지구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 각 피조물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특정한 음식물을 정해 주셨는데 왜 인간에게는 인간 고유의 음식물을 주시지 않으셨는지 말이다. 이 질문의 답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도 역시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정해주셨다는 사실이다.

모든 종류의 동물들은 육지에 살건 물 속에 사는 것이건 인간이 먹기에 깨끗한 것들이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음식으로 적합하지 못하다고 금지시키신 특정 동물들이 있다. 그러므로 사실상 돼지는 절대 인간이 먹어야 할 음식이 아닌 것이다. 돼지는 음식으로 창조되지 아니한 동물들에 속하는 것으로 먹어서는 안 되는 동물이다. 돼지는 이미 부패했거나 더러운 모든 것들을 먹으며 또한 돼지는 퇴비, 배설물, 그리고 진흙 속에서 번성한다.

돼지는 하나님이께서 창조하신 가장 잘 알려진 청소동물이다. 현대식 화장실이 없는 시골의 마을들에서는 사람들이 야외에 나가 배설을 한다. 대개의 배설물들은 돼지가 먹어 치움으로써 해결된다.

호주와 같은 선진국들에서는 돼지가 아주 깨끗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양육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위생적인 환경에서도 돼지들은 같은 우리에게 넣어진다.

아무리 돼지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할지라도 돼지는 선천적으로 불결하다. 돼지는 이웃의 배설물뿐만 아니라 자신의 배설물조차 즐겁게 먹어 치운다.

물론 돼지고기를 금지하는 확실한 이유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알려져 있다.

6. 돼지는 가장 수치를 모르는 동물이다

돼지는 지구상에서 가장 수치를 모르는 동물이다. 돼지는 친구들을 초청하여 자기의 짝과 섹스를 하도록 하는 유일한 동물이다.

오류와 사실

1. 많은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요리하기만 한다면 기생충에 감염될 위험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미국 농무부(USDA)에서 발간한 소책자 제 34호 8쪽에서, “최근에 보고된 24건의 선모충 감염건수 중 22건이 요리된 돼지고기로부터 유래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2. 돼지고기는 고도의 불포화지방산(PUFA)을 가지고 있음으로 심지어 심장병 환자들에게 사용되어도 좋다고 알려져 왔다.
사실은 비록 돼지고기가 고도의 PUFA를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지방산들은 TG (triglycerides) 분자들의 위치 1과 3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PL(pancreatic lipase)에 의해서 가수분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3. 돼지고기는 영양이 풍부하여 인간에게 있어 동물성 단백질의 좋은 공급원이므로 먹어야만 한다고 한다.
사실상, 비록 돼지고기가 동물성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O. S. Parret 박사는 그의 소책자 ‘Diseases of Food Animals’에서 “돼지고기는 대부분의 다른 종류의 고기들보다 소화시키기가 더 어렵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것은 생물학적 가치가 낮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4. 돼지고기는 위생학적인 이유로 인해 아라비아에서 금지되었지만 오늘날 돼지는 매우 위생적인 환경에서 양육되고 있다.
돼지는 원초적으로 더럽고 불결한 동물이다. 돼지에게 깨끗하고 좋은 음식을 주어도 그러한 돼지의 본성은 바꿀 수 없다. 돼지는 먹이를 찾기 위해 쓰레기장을 뒤지기를 좋아한다. 또한 농장의 소들을 따라가 그들의 배설물을 먹는다. 그리고 돼지고기는 시장에 나오게 되는 것이다. Vories(1971)는 그의 소책자 ‘The Hog’에서 “문란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짐승을 보라. 거름더미 위에서 머리를 똥 속에 파묻은 채 영광의 정상에 있는 그 짐승을 보라. 그렇게 고귀한 집터로부터 그는 울동적으로 꿀꿀거리며 기쁨과 만족의 표현을 발한다”고 말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등과 같은 선진국들에서는 돼지가 매우 깨끗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양육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러한 위생적인 환경에서도 돼지들은 돼지우리 속에 함께 넣어진다. 여러분이 돼지를 깨끗하게 하려고 제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돼지는 천성적으로 더럽다. 그들은 주변의 배설물은 물론 심지어 그들 자신의 배설물조차 먹어버린다.

5. 아라비아에서 돼지고기를 금지시킨 것은 아라비아가 뜨거운 사막지역으로 그 곳에 사는 사람들이 설사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었고 따라서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없이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었다.

사실상 돼지고기에는 가장 높은 양의 지방이 함유되어 있다. 지방을 고기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높은 지방 수치는 기후가 무더운 곳에서는 설사를 유발할 수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스프루 구강염과 설사를 일으키는 열대 지방의 병과 같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돼지고기는 혈장 임파장 안에 높은 수치의 TG(triglycerides)와 높은 수치의 콜레스테롤을 유발시킬 수 있다. 그리고 심장 혈관계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19. 술은 왜 금지됐나?

질문

이슬람에서는 왜 술(알콜)을 금지하는가?

대답

술은 태고 적부터 인간사회에 재앙을 가져왔다. 전세계에 걸쳐 무수한 생명을 앗아가고 끔찍한 불행을 야기한다. 술은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다. 전 세계에 걸친 범죄율의 급등과 정신병의 증가, 수백만의 파탄 난 가정들에 관한 통계는 이 모든 재난이 술의 파괴적인 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암묵적인 증언을 보여준다.

1. 꾸란이 명하는 술의 금지

꾸란은 다음의 구절에서 음주를 금지하다:

“믿는 자들이여 술과 도박과 우상 숭배와 점술은 사탄이 행하는 불결한 것들이거늘 그것들을 피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번성하리라.”
(꾸란 5장 90절)

2. 성경이 명하는 술의 금지

성경은 다음의 구절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금하고 있다.

“포도주를 마시면 바보처럼 되고, 많이 마시게 되면 미친 듯이 사납게 되므로 누구든지 술에 현혹된 자는 현자가 아너니라.”

(잠언, 21장 1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지 말라.”

(에베소서 5장 18절)

3. 술은 제어기능을 상실하게 한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모두 두뇌 안에 제어 기능 담당 부분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잘못된 것이라고 여기는 행동들을 저지르지 않도록 제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사람은 정상적일 때에는 자신의 부모나 윗사람들에게 욕설을 하지 않는다.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두뇌 안의 제어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이 공공의 장소에서 볼일을 보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이다.

사람이 술을 마시면 이 제어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이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그래서 술에 취한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이는 행동들을 종종 저지른다. 예를 들어, 술에 취한 사람은 자신의 부모에게 욕설을 퍼붓고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옷에다 소변을 보기도 한다.



4. 간통, 강간, 근친 상간을 저지르고 에이즈에 걸리는 경우도 있다

미국의 많은 수의 알콜 중독자들은 간통, 강간, 근친 상간을 저지르고 에이즈에 걸리기도 한다. 평균적으로 1900건의 강간 사건이 매일 일어나고 있다. 통계적으로 대다수의 강간자들은 술에 취해 있을 때 범죄를 저지른다고 한다. 학대, 간통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통계적으로 미국 국민의 8%는 근친 상간을 범하고 있는데 12명에서 13명중 한 명은 근친 상간의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말이 된다. 근친 상간 사건의 거의 모든 경우 관련된 당사자중 한 명 혹은 두 명 모두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한다.

가장 무서운 병으로 알려진 에이즈가 확산되는데 관련된 주요 요인 중의 하나가 바로 알콜 중독이다.

5. 모든 알콜 중독자들은 처음에는 사교의 목적으로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술을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사교의 목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들은 딱 한 잔이나 두 잔 정도로 술을 절제하므로 자기 통제를 할 수 있어 절대 술에 만취하는 상태로까지 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조사에 따르면 모든 알콜 중독자들은 처음에는 사교의 목적으로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고 한다. 알콜 중독자들이나 술 주정꾼들 중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알콜 중독자나 술 주정꾼이 되려는 의도를 가지

고 술을 마시기 시작하지는 않다. 사교의 목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들 중에 수 년 동안 술을 마셔오면서 자기는 단 한 번도 술에 취하지 않을 정도로 자기 통제를 할 수 있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6. 단 한 번이라도 술에 취해 어떤 수치스러운 죄를 저질렀다면 평생 동안 그 수치를 지니게 된다



사교의 목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이 단 한 번 자기 절제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술에 취해 있는 동안 강간이나 근친 상간의 죄를 범했다고 하자. 나중에 그 범죄에 대해 후회할 수는 있을지라도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그 죄의식을 평생 동안 지니며 살게 될 것이다. 가해자나 희생자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받게 된다.

7. 하디스(선지자 무함마드(S.A.W.)의 언행록)는 술을 마시는 것을 금하고 있다

선지자 무함마드(S.A.W.)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양으로 취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적은 양으로 취하게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그래서 한 잔만 혹은 한 모금만 마신다는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술은 모든 악의 근원이며 가장 수치스러운 해악입니다.”

“술은 마시는 사람뿐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술에 관한 거래를 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선지자 무함마드(S.A.W.)의 교우인 아나스는 선지자(S.A.W.)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전한다:

“하나님께서서는 술과 거래하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내리신다. 술을 제조하는 사람, 제조된 술로 이익을 취하는 사람, 술을 마시는 사람, 술을 운송하는 사람, 술을 가져오는 사람, 술을 따르는 사람, 술을 파는 사람, 술로 돈을 버는 사람, 술을 사는 사람, 누군가를 위해 술을 사는 사람 모두이다.”

8. 알콜 중독과 관련된 질병들

술의 금기를 요구하는 몇 가지 과학적 이유가 있다. 술의 부작용 중 대부분이 너무나 잘 알려진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특별히 상세하게 술의 부작용에 대해 나열하지는 않겠다. 아래는 술과 관련된 질병의 간략한 목록이다.

1. 술과 관련된 가장 잘 알려진 질병은 간 경화증이다.
2. 식도암, 편도암, 간암, 대장암 등이 있다.
3. 식도염, 위염, 췌장염, 간염도 음주와 관련 있다.
4. 심근증, 고혈압, 관상 동맥 혈전 발작, 후두염과 심장마비도 과음과 관련된다.
5. 발작, 졸중, 경련, 다른 종류의 마비도 음주와 관련된다.
6. 말초 신경 장애, 외피 퇴화, 소뇌 쇠약증 등도 음주로 인해 야기 되는 잘 알려진 증후군이다.
7. 최근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기억력 상실증을 동반하는 위닉 코르사코프씨병(기억력이 장애를 받거나 추억을 창조하는 등의

정신병)과 다른 종류의 마비가 함께 오면서 옛날 기억을 오랫동안 되새기며 얘기하는 증상도 과도한 음주 때문에 야기된 티아민의 결핍으로 일어난 현상이다.

8. 각기병과 다른 결핍증들도 알콜 중독자들 가운데 흔히 나타나는 질병이다. 니코틴산 결핍 증후군 또한 알콜 중독자들에게 나타난다.
9. 정신 착란증은 알콜 중독증에 시달리는 동안은 물론 치료받은 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합병증이다. 또한 정신 착란증은 금주 기간에는 금주에 따른 허탈에서 오는 증상중의 하나로서 일어날 수도 있다. 정신 착란증은 의료시설이 좋은 병원에서 잘 치료받는다 해도 죽음을 불러 올 수도 있는 상당히 심각한 병이다.
10. 내분비물의 수많은 불균형이 알콜 중독과 관련된 병이다. 다발성 종액 종증에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안색이 불그레해지는 쿠싱병 증후군(ACTH 호르몬의 과잉 생산으로 인한 신진 대사의 이상증 고혈압 부신 피질 장애 당뇨병 비만증을 일으킴)에 이르기까지 알콜 중독에 관련된 병은 수 없이 많다.
11. 혈액에 관한 부작용은 다양하다. 가장 흔한 경우는 엽산 결핍으로 인한 대적혈구 빈혈증이다. 제인(옥수수에서 추출한 단백질) 증후군은 알콜 중독자들을 따라 다니는 용혈 빈혈증과 황달, 지방 과혈증의 세 가지 질병을 야기하는 원인이다.
12. 혈소판 장애와 혈소판 기형증도 알콜 중독자들 가운데 드문 병은 아니다.
13. 자주 사용되는 메트로니다졸(trichomoniasis의 치료제)은 알콜과 만나면 나쁜 영향을 끼친다.
14. 알콜 중독 재발은 만성 알콜 중독자들 가운데 매우 흔하게 나타난다. 병에 대한 저항과 면역 방어 체계는 음주에 의해 무너진다.
15. 폐병은 알콜 중독자들에게 매우 무서운 병이다. 폐렴과 폐 농

양, 폐기종 결핵이 알콜 중독자들 사이에서 가장 흔히 보이는 질병이다.

16. 심각한 만취 상태에서 사람은 대개 구토를 하는데, 이는 기침으로 내뿜을 수 있는 보호 반사 작용이 마비되기 때문이다. 그 또한 것은 폐에 쉽게 들어가 폐렴이나 폐 농양을 일으킬 수도 있다. 때때로 구토물이 폐로 들어가 질식사를 야기하기도 한다.
17. 여성들 사이에 나타나는 음주의 부작용은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술로 야기된 간장 경화증에 더 무력한다. 임신기간 동안의 음주는 태아에 아주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 태아 알콜 중후군은 의학계에서 상당히 인지된 병이다.
18. 피부병도 과음과 관련된다.
19. 습신, 탈모증, 손톱 영양 실조, 손톱 영양 장애, 구내염(입안의 각진 곳에 염증)도 알콜 중독자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병이다.

9. 알콜 중독은 하나의 질병입니다

의사들은 이제 알콜 중독이란 단순한 중독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질병이라 보고 있다.

이슬람 연구 재단은 이에 관한 한 권의 소책자를 발행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술이 하나의 질병이라면 그 질병은 병에 담아서 팔리고,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에 광고되며, 널리 퍼뜨려 질 수 있게 면허가 있는 소매점도 소유하고, 정부에게 국고 세입을 가져다 주며 고속도로를 달리는 광란의 죽음을 불러오며, 세균이나 바이러스 병원체도 없이 가족의 삶을 파괴하고 범죄를 증가시키는 유일한 질병이다. 술이란 질병이 아니라 사탄의 작품이다.

하나님께서서는 그 분의 무한한 지혜로 우리에게 사탄이 놓은

올가미를 조심하라고 경고하신다. 이슬람은 '인간의 자연스런 종교'라 불린다. 이슬람의 모든 훈령은 인간의 자연스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술은 인간과 사회를 자연스런 상태에서부터 이탈시킨다. 술은 인간을 인간 자신이 스스로 더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짐승의 위치보다 더 낮은 위치로 타락시킨다. 이것이 바로 이슬람에서 음주를 금하는 이유이다.

무슬림은 왜 술을 마시지 않을까?

술은 살인의 68%의 주요 요인이며, 폭행의 62%, 살인과 살인미수의 54%, 강도의 48%, 절도의 44%의 주요한 원인이 된다. 어린이 강간 사건의 삼분의 이가 술과 관련 있으며, 72%는 강간소송과 관련되었다. 만취는 모든 음주운전 범죄의 한 원인이며, 또한 교통상해를 일으키고 그것과 관련해 운전자들을 죽음으로 이끈다. 술은 10세대의 청소년들에게는 죽음을 유도하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

20. 이슬람은 금욕의 종교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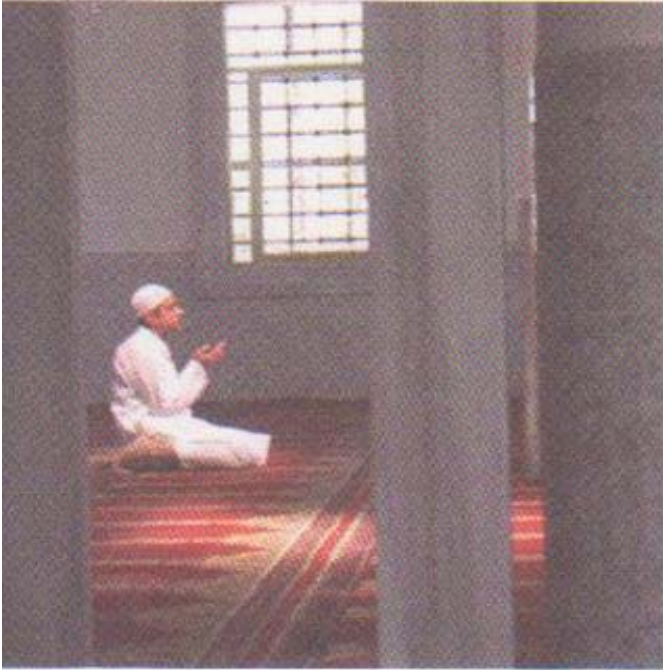
질문

이슬람은 금욕의 종교처럼 보이는데 과연 사실인가?

대답

대부분의 무슬림들은 신앙과 행동 사이의 아름다운 균형을 유지하는 그들의 종교가 금욕적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꽤 이상한 일로 생각한다. 아마 이런 오해가 생긴 까닭은 좋거나 나쁜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있으시기를(Praise be to God)” 라고 말하도록 무슬림들이 가르침을 받기 때문인 것 같다. 이는 모든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유래하는 것이며, 무슬림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의존해야만 하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건 더 좋게 될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무슬림들은 알기 때문이다.

이슬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하셨던 점에서는 유대교나 기독교와 똑같은 종교이다. 그러나, 이슬람이 비무슬림들에게 가끔 이상하게 보이는 것은 이슬람은 먹고, 자고, 일하고, 노는 것까지 삶의 모든 부분을 다루는 종교이기 때문이다. 이슬람은 개인적인 종교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종교이기도 하다.



무슬림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살기를 추구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무슬림들은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려고 애쓰며 현세에서의 잠정적인 시련들과 유혹에 대한 승리를 얻고자 분투노력한다. 예배, 단식, 회사, 그리고 성지순례 등 그들의 관행의 모든 모습들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비록 세속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는 엄격하게 보이지만, 이슬람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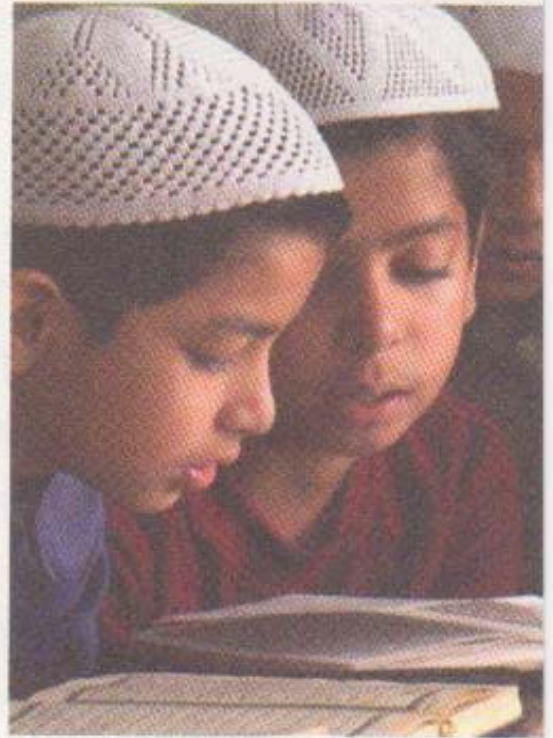
금욕의 종교는 아니다. 이슬람은 추종자들에게 그들의 공동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기를 요구한다. 당신이 아플 때에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의사에게 가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한다고 가르치는 일부 종교들의 극단적인 믿음을 이슬람은 전적으로 거부한다. 이슬람은 인간들은 이 세상에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가르치기에 대단히 긍정적인 관점을 지닌 종교이다.

무슬림들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나눌 수 없는 분으로 믿으며,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스마엘, 이삭, 야곱, 요셉, 욥, 아론, 다윗, 솔로몬, 엘리야스, 요나, 세레자 요한, 그리고 예수 등을 포함하는 기독교와 유대교의 모든 선지자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경한다.

무슬림들은 또한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인 이스마엘의 직접적인 자손인 선지자 무함마드(S.A.W.)를 인정한다. 그의 선지자로서의 임무는 신명기 18장 18절과 요한복음 16장 등 성경의 여러 곳에서 예언되어 있다.

이슬람은 전 인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정의, 진리, 복지, 신성함, 그리고 아름다움의 성취를 이룩하려는 위대한 계획을 품어왔다. 이슬람은 그들의 미덕, 의로움, 그리고 경건함을 제외하고는 사람들을 구별하지 않는다. 이슬람은 신의 명령이 인간의 삶과 관심사의 모든 영역에 미치는 것으로 본다. 즉 단지 숭배의 의식들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종교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본다. 이슬람은 묵상의 종교가 아니며, 수도 생활 그리고 세상으로부터의 미학적인 은둔의 종교 또한 아니다. 오히려 이슬람은 성원뿐만 아니라 부업, 시장터, 전쟁터 등의 세사에 참여하는 종교이다. 이슬람은 추종자들이 현세에서 행복하고 성공하기를 원한다. 이슬람은 염세적이지도 않다.

예를 들면, 물질주의자들은 그들의 삶을 쉬운 돈벌이, 즐기며 살기와 같은 현세에서의 안락을 기초로 하여 조정하고자 노력한다. 그러나, 이슬람은 우리에게 이 세상은 안락을 위한 곳이 아니며, 임금을 벌기 위하여 땀을 흘릴 필요가 있고, 고난의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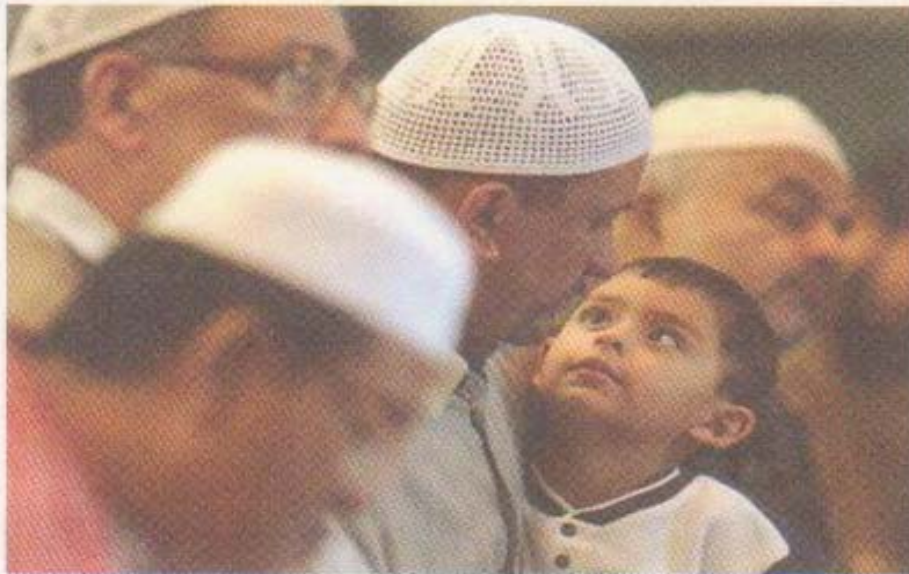
힘을 무릅쓸 필요가 있고, 우리가 무슬림 형제들의 문제를 자신의 일처럼 도와야 한다고 가르친다.

이슬람은 한 세상과는 동떨어진 종교적 의식과 숭배의 시스템이 아니다. 이슬람은 신체의, 건강의, 가정의, 사회의, 인간의, 보편적, 경제적, 사업적, 군사적, 행동적, 학문적, 그리고 문화적 문제들과 관련된 완전하고 흠 없고 공정한 시스템이다. 이슬람은 삶, 이슬, 환경, 인류, 그리고 인간의 활동들로부터 차단된 미학적, 금욕적 시스템이 아니다. 그와는 반대로, 이슬람은 삶, 인류, 공동체, 정부, 우주, 그리고 이것들 사이의 관계의 조직을 지향하는 종교이다. 이슬람은 적극적이고 동적인 시스템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고 고귀하고 숭고하며 신성한 길이다.

이슬람에 의하면, 사람이 예배와 단식에 대해서 정신적인 보상을 얻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치아를 깨끗하게 하기, 목욕, 결혼, 가족을 잘 대해주기, 사업에서의 정직, 공적 업무 수행에서의 정중함과 노력, 법정에서의 진실한 증언, 공정한 관리, 덕성 있는 행정, 종교적 투쟁에서의 진지함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는다고 믿는다.

이슬람은 금욕적이기는커녕, 이 세상에서의 인간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무슬림들은 물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보다 덜 걱정하며 또 그들의 현세에서의 삶을 합당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이것은 만일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만 경배하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만 의존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그들이 걱정할 것이 전혀 없다고 이슬람이 분명히 가르치는 사실 때문이다. 이슬람적 관점에서 본다면, 진정한 자유란 음식, 부, 그리고 성에 대한 모든 인간적 욕구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와는 정반대로 자유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들을 조절할 수 있고 합당한 방법으로 그것들을 성취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인간의 욕구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조화롭게 해주는 것이며, 오직 그때에만 인간은 진정으로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21. 동물들을 도살하는 이슬람식 방법은 무엇인가?

질문

무슬림들은 어떻게 동물을 도살하는가?

대답

1. 이슬람식 동물 도살 방법

이슬람식 동물 도살 방법은 다음의 조건들을 충족시켜야만 한다.

- ㄱ)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살되지 않은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라는 꾸란(6장 121절)의 규정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라는 뜻의 '비쓰밀라' 와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시다' 라는 의미의 '알라 ~ 아크바르' 를 암송한 다음 도살할 수 있다.
- ㄴ) 동물은 날카로운 칼로 고통을 최소화하는 빠른 방법으로 도살되어야 한다.
- ㄷ) 도살은 목구멍, 숨통 그리고 목 혈관들을 베어냄으로써 척수를 베지 않고 죽음에 이르게 한다.
- ㄹ) 피가 다 빠지게 한다.

이슬람식 도살은 동물의 피가 다 빠지게 한다. 피는 해로운 미생물에게 훌륭한 배양 매체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척수를 빼서는 안 되는데 심장에 이르는 신경섬유가 손상되어 심장 박

동물을 멈추게 할 수 있고 혈관 속에 피가 괴일 수 있기 때문이다.

2. 피는 세균과 박테리아에게 훌륭한 매체이다

피는 세균, 박테리아, 독소 등을 위한 훌륭한 매체이다. 그러므로 피를 다 뺌으로써 사전에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다.

3. 피를 다 빼면 고기가 더 오래 신선하게 보존된다

다른 도살 방법들과 달리 이슬람식 도살 방법은 동물의 몸에서 피를 완전히 빼내므로 고기가 더 오래 신선하게 보존된다.

4. 동물이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

동물이 죽으면서 고통을 느끼는 것은 뇌신경까지 피가 흘러 유입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슬람식 동물 도살 방법은 목혈관을 재빨리 베어 뇌 신경으로 피가 흐름을 차단함으로써 동물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것이다.

22. 이슬람식 상속은 무엇인가?

질문

이슬람 율법에서는 왜 상속받은 재산의 여성의 몫은 남성의 몫의 절반 밖에는 안되는가?

대답

1. 꾸란에서의 상속

상속에 관한 지침을 언급하는 꾸란의 절들은 다음과 같다.

2장 180절, 2장 240절, 4장 7절 - 9절, 4장 19절, 4장 33절, 5장 106절 - 108 절

2. 친척들을 위한 특정한 상속의 몫

꾸란에는 가까운 친척들을 위한 상속의 몫의 분배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3개의 절이 있다.

“하나님께서 상속에 관한 말씀을 하셨나니 아들에게는 두 명의 딸에 해당하는 양을, 두 명 이상의 딸만 있을 때는 상속의 삼분의 이를, 단지 한 명의 딸만 있다면 절반이라 부모에게는 각기 육분의 일씩을, 그리고 그것은 한 명의 자손만 두었을 경우라 자손이 없을 경우 상속자는 부모로 어머니에게 삼분의 일을, 만일 고인의 형제들이 있다면 남긴 유산 가운데서 유연한 몫과 부채를 지불한 후 어머니에게는 육분의 일이라, 부모들과 자식들 중 어느 쪽이 너희에게 더 유용

한지 너희는 모르니라.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할당된 몫이거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현명하시니라. 너희 아내들이 남긴 것 가운데 너희에게 절반이며 이 때는 아내에게 아이가 없을 때라 아내에게 자손이 있을 때는 아내가 남긴 것 가운데서 사분의 일이며, 유언과 부채를 지불한 이후라 너희가 남긴 것 가운데 부인에게는 사분의 일이며, 너희에게 자손이 없을 때라 너희에게 자손이 있다면 부인에게는 팔분의 일이며, 유언과 부채를 지불한 이후라 한 남자 혹은 한 여자에게 상속받을 자손과 부모가 없어 먼 친척이 상속자이거나 또는 여자가 상속자일 때 한 형제와 한 자매 각자에게 육분의 일 이 그 이상일 때는 유산은 유언과 부채를 지불한 후 삼분의 일이라 이것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율법이거늘 하나님은 아심과 자비로움으로 충만하심이라.”

(꾸란 4장 11-12절)

“그들이 그대에게 질문하리니 대답하여 가로되 상속받을 자식이나 부모를 두지 않았을 경우 만일 자매만 남겼을 때는 그 자매에게는 그가 남긴 것 가운데 절반을 상속받으며, 아이를 남기지 못한 여성이 있을 경우 그녀의 형제가 그녀의 유산을 상속받으며, 만일 두 자매가 있다면 그 들에게는 남긴 것 가운데 삼분의 이를 가지며, 남매와 자매들이 있을 때는 남매는 자매의 두 곱을 가지도다. 이처럼 하나님은 너희에게 율법을 설명하셨으니 하나님은 모든 일에 만사형통 하심이라.”

(꾸란 4장 176절)

3. 여성은 대개 남성에 비해 절반의 몫의 상속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절반의 몫을 상속 받는 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다.

- ▶ 딸은 아들에 비해 절반을 상속 받는다.
- ▶ 고인에게 자식이 없는 경우 아내는 1/8을, 남편은 1/4을 상속 받는다.
- ▶ 고인에게 자식이 있는 경우 아내는 1/4을, 남편은 1/2을 상속 받는다.
- ▶ 고인에게 자식이나 자손이 없는 경우, 여자 형제는 남자 형제의 절반을 상속 받는다.

4. 남성은 가족을 부양하기 때문에 여성의 배를 상속 받는다

이슬람에서는 여성에게는 재정적 의무가 없고 경제적 책임은 남성의 어깨에 달려 있다. 여성이 결혼하기 전에 그 여성의 숙식, 옷, 기타 재정적 요구들을 책임지는 것은 아버지나 남자 형제의 의무이다. 여성이 결혼한 후에는 남편이나 아들이 맡아야 하는 의무이다. 이슬람은 남성으로 하여금 그의 가족의 재정적 욕구를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남성은 여성의 배를 상속받는다. 예를 들어 아들 한 명과 딸 한명을 둔 남자가 천오백만원을 남기고 죽을 경우, 아들은 천만원, 딸은 오백만원을 상속받는다. 아들이 상속받은 천만원 중 그는 약 팔백만원을 가족의 부양에 써야 하고 약 이백만원만 자신의 것으로 쓸 수 있을 뿐이다. 그와는 반대로 딸은 상속받은 오백만원의 단 한 푼도 가족들에게 써야 할 의무가 없다. 그녀는 모두를 자신만의 것으로 간직할 수 있다.

23. 모든 종교들은 사람들에게 의로움을 가르치는데, 왜 오직 이슬람만을 따라야 하는가?

질문

모든 종교들은 기본적으로 추종자들에게 선행을 가르친다. 그렇다면 왜 이슬람만을 따라야 하는가? 어떤 종교라도 따르면 되지 않는가?

대답

1. 이슬람과 대부분의 다른 종교들의 주요한 차이

모든 종교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에게 의로워질 것을 권하고 악을 피하라고 가르친다. 그러나 이슬람은 그 이상이다. 이슬람은 우리를 개인 및 집단생활로부터 의로움을 성취하고 악을 제거하는 실제적인 방법들을 향하여 이끈다. 이슬람은 인간의 본성과 인간 사회의 복잡성을 고려한다. 이슬람은 창조주 자신으로부터 내려온 지침이다. 그러므로 이슬람은 '인간의 본성적 종교' 이라고 또한 불리는 것이다.

2. 이슬람은 자카(희사)를 지시한다

이슬람에 있어서의 희사는 가능한 모든 무슬림들에게 부과되는 의무이다. 희사는 오직 가난한 자들을 만을 위한 것이고



누군가의 월급을 지불해 준다거나 대부분의 종교 자선의 개념에서 볼 수 있듯이 다른 과외의 활동들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부유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 사이의 간격이 그렇게 거대하지 않은 것을 보장해줄 수 있도록 사회의 공평한 부를 제공하는 유일한 제도이다.



이슬람은 회사를 지시한다. 이슬람은 일정 액의 재산을 1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순수익의 2.5%를 회사함을 의무로 하고 있다. 만일 이 세상의 모든 부자가 성실하게 회사를 이행한다면 이 세상에서 빈곤은 박멸될 수 있을 것이다. 단 한 명도 굶어 죽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3. 이슬람은 여성에 대한 강간을 금한다. 이슬람은 히잡을 명령하며 강간범에 대한사형을 지시한다

ㄱ. 이슬람은 강간을 제거하는 방법을 지시한다

모든 종교는 여성에 대한 강간을 심각한 범죄로 선언한다. 이슬람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이슬람과 다른 종교들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 차이는 이슬람은 여성들에 대한 존경을 가르치고 강간을 심각한 범죄로 혐오할 뿐만 아니라 사회가 그러한

범죄를 제거할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을 제시한다는 사실에 있다.



나. 이슬람은 결혼을 권장한다

독신주의는 인간이 요구하는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인간들로서 우리는 평생 동안 하루 온 종일을 단식할 수는 없다. '나는 밤에 자지 않고 기도할 것이다,' 고 말하는 것도 무지의 소치이다. 인간들은 하나님에 의해 그렇게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다. 균형을 지켜야만 하는 것이다.

다음의 사건은 그러한 행동에 대한 이슬람의 입장을 설명한다. 선지자 무함마드(S.A.W.)의 교우들 중 한 명인 아나스는, 몇몇 교우들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곤 했다고 전한다.

'누구는 여자와 결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누구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말했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러한 말들을 했는가? 나는 예배도 하고 잠도 잔다. 나는 단식을 하기도 하고 단식을 깨기도 한다. 나는 또한 여자와 결혼도 한다. 나의 순나(선지자 무함마드(S.A.W.)의 모범적인 언행)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나와 관계가 없다.'

(무슬림 2권, 703페이지)

그러나 이슬람은 사람이 욕욕과 욕망에 복종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슬람은 남자가 여자, 아이, 금, 은, 그리고 다른 재산들에 대해 가지는 욕망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 세속적인 기쁨에는 제한이 있어야만 한다.



“여성들과 자녀들과 금은 보화들과 말들과 가축들과 농경지들은 인간의 현세 즐거움으로 장식되었으니 이것들은 현세 생활의 즐거움이라. 그러나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이 보다 즐거운 안식처라.”¹

(꾸란 3장 14절)

본성의 성향들과 욕망들은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것들을 안정된 방법으로 받아들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루는 상세하고 사실적인 접근 방법을 제시하여 주셨다. 이 방법은 인류로 하여금 완벽하게 균형 잡힌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현세의 삶을 보장한다. 잘 균형잡힌 삶을 유지하는 방법은 누가 가장 오래 견디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인내 테스트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균형을 사실적 방법으로 획득하는 방법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슬람을 계시하셨다. 삶이란 당신이 산들과 나무들 속에서 살아가도록 명령 받은 고통스러운 정신적 테스트가 아니다. 일년 내내 단식하는 것은 전혀 의무가 아니다. 결혼은 권장되는 것이며, 당신은 당신의 영혼을 정화시키기 위하여 스스로를 때려 실신시킬 필요가 없다.

1 인간을 가장 크게 유혹하고 치장을 하는 것은 여성이며, 그 다음으로 인간의 마음을 믿음직스럽게 하여 주고 눈을 기쁘게 하는 자손이며, 그 다음으로 금은 보화와 재물을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현세 삶의 한 장식품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순간의 기쁨에 그칠 뿐이다. 그러나 내세의 기쁨과 행복은 영원하며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ㄷ. 타인을 억압하지 않으면 부를 모아도 된다

이슬람은 당신이 타인을 억압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하신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당신이 부를 모으는 것을 허락한다.

4. 이슬람은 여러 혜택을 줄 것이다

ㄱ. 당신이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알 수 있다

창조주에 대해 당신은 그 분을 식별할 수 있고, 일년 내내 하루 24시간 중 언제라도 그분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이 범주의 그 결과 당신은 당신의 기원과 뿌리에 대한 해답을 알 수 있을 것이다.

ㄴ. 당신이 그 누구를 따르는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따를 것이다



당신의 충성심과 복종은 창조주 자신에게로 향할 것이다. 당신은 이 세상에 대한 모든 유형의 충성으로부터 당신 자신을 초월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만일 당신의 사장, 당신의 직업, 당신의 정부, 당신의 체제나 그 어떤 세속적인 관계와 창조주 사이에 어떤 이해의 갈등이 있다면 당신은 망설임 없이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할 것이라는 뜻이다.

㉔. 당신은 당신의 몸에서 많은 신경성 질환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매일의 예배를 근행함으로써 당신의 뇌와 중앙 신경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질환들은 소멸될 수 있다. 예배를 할 때에 당신의 이마를 바닥에 닿도록 부복함으로써 당신의 몸에서 많은 신경성 질환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㉕. 당신은 유쾌한 성격을 획득할 것이다

당신은 다정하고 우호적이 될 것이다. 당신은 술을 마실 필요가 없고 마약을 사용할 필요도 없으며 상스러움이나 부도덕함에 연루될 필요가 없을 것이다.

㉖. 단식함으로써 여러 혜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슬람에서 단식의 경함을 경험함으로써 당신은 자기 억제, 자기 교육, 자신의 고양,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복종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건강, 성격, 그리고 행동이 의심할 바 없이 개선될 것이다. 당신은 당신의 욕욕, 이기심, 욕망, 탐욕, 그리고 자만심을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㉗. 당신은 성지순례를 통해서 이미 자신들을 창조주에게 맡긴 사람들과 함께 이슬람 형제의 일부분이 될 것이다

메카에로의 성지순례를 통해서 당신은 민족주의적, 종파적 차원을 벗어나 보편적 차원으로 승화함과 더불어 스스로를 초월하게 될 것이다. 동시에 당신은 열등 의식이나 우월 의식을

제거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또한 아담과 이브(하와)의 창조에서부터 인류의 마지막 선지자인 무함마드(S.A.W.)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선지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고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발견할 것이다. 당신은 아담과 이브가 지상에 상륙한 곳을 방문할 것이다.



ㅇ. 여러 사회적 질병들을 제거하게 될 것이다

이슬람을 받아들이면 당신은 청소년 범죄, 아동학대, 근친상간, 동성애, 난잡한 성관계, 혼전 성관계, 혼외 성관계 등의 사회적 질병들을 감소시키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당신은 성병은 물론, AIDS등과 같은 질병들을 제거하게 될 것이다.

즈. 당신은 천국에서 행복하고 영원한 삶을 살 것이다

당신이 죽을 때에 평화스러운 임종을 맞이할 것이다. 당신은 노후에 행복한 삶을 살 것이고, 사후에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임종시에 천사들이 당신을 위로할 것이며, 그들은 또한 천국에서 당신의 자리를 안내할 것이다. 심판의 날에 당신은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 그리고 무함마드(그 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드시기를)를 포함하여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5. 이슬람은 유일한 해결 종교다

ㄱ. 알콜과 마약 및 도박과 관련된 문제들의 해결은 이슬람이다

미국의 부상 보호 통제 국립 센터에 의하면, 알콜과 관련된 차량 충돌이 32분마다 사람을 죽이고 비치명적인 부상은 2분마다 발생한다고 한다. 알콜과 관련된 사상자수는 2,000년도에 모든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40퍼센트를 차지했고, 마약은 모든 사망자의 18%를 차지하였다. 알콜과 관련된 사고들은 2000년도에 만 총 510억 달러가 넘는 비용이 들었다. 우리의 '문명화된' 사회에 있어서 알콜과 마약의 부정적인 영향은 부인될 수 없다. 우리의 소위 진보된 사회들에 있어서 모든 사람은 어떤 면에서건 이러한 죄악들에 의해 영향을 받아 왔다. 미국 국립 범죄 희생 조사 기관은 보고된 폭력의 희생자들의 28%는 그들을 공격한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였거나 술과 마약을 함께 한 영향 때문이었다고 한다. 일터 폭력 행위 중 알콜과 관련된 것은 모든 사고 중 35%를 차지했고, 재소자들의 25%는 그들이 가족, 친구, 배우자 등과 논쟁을 벌릴 때에 술에 취해 있었다고 말했다. 알콜이나 마약이 관련되지 않았다면 피할 수도 있었던 무의미한 폭력의 무수히 많은 사건들을 생각해 보라. 이슬람은 알콜과 마약의 죄악에 대해서 꾸란 속에 언급하고 그 문제에 대한 이슬람의 입장에 있어서 어떤 모호함도 제거하고 있는 유일한 세계적 종교이다.

“믿는 자들이여 술과 도박과 우상숭배와 점술은 사탄이 행하는 불결한 것들이거늘 그것들을 피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번성하리라. 사탄은 너희 가운데 적의와 증오를 유발시키려 하니 술과 도박으로써 하나님을 염원하고 예배하려 함을 방해하려 하도다 너희는 단념하지 않겠느냐.”

(꾸란 5장 90-91절)

분명한 것은 꾸란은 사람들 사이의 증오를 유발하는 수단으로서 또한 숭배로부터 주의를 흩어지게 하는 수단으로서의 알콜과 마약의 영향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박의 파괴적인 악덕에 대해서도 비난하고 있다는 것이다.

ㄴ. 이자 문제의 해결은 이슬람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경제는 너무나 빨리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 변동을 따라잡을 수가 없고 우리가 성장의 시대에 있는지 긴축의 시대에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현재의 세계 경제는 비틀거리고 있고 개인들, 단체들, 그리고 심지어 국가들도 부채의 무게로 절름발이가 되어가고 있다. 또한 현대의 사회들이 사용하는 경제 시스템은 인구의 대다수로 하여금 어떠한 형태로라도 부채를 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것은 대부금에 이자를 부과하는 것으로 가능해졌다. 개인이나 단체의 수입이 낮으면 낮을수록 더 높은 비율의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이 시스템은 소위 개발도상 국가들에서 나라들에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많은 돈을 빌려주고, 그 나라들로 하여금 자기 나라의 천연자원 및 인력 자원에 대한 통제를 양도하도록 강요함으로써

대혼란을 일으키기 위하여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에 의하여 사용되어 왔다. 하나님께서는 꾸란에서 이 기구의 죄악을 직접 말씀하시고 인류에게 해결책을 제공하신다.

“고리대금을 취하는 자들은 악마가 스치므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어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나며 말하길 장사는 고리대금과 같도다 라고 그들은 말하나 하나님께서 장사는 허락하였으되 고리대금은 금지하셨노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고리업을 단념한 자는 지난 그의 과거가 용서될 것이며 그의 일은 하나님과 함께 하니라 그러나 고리업으로 다시 돌아가는 자 그들은 불지옥의 동반자로서 그곳에서 영주하리라.”

(꾸란 2장 275절)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을 공경하라 만일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면 추구하는 이자를 포기하라.”

(꾸란 2장 278절)

채무자에 대한 친절한 행위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명령이고 빛을 진 사람을 어떻게 공정하게 대하느냐는 예절은 하나님이 주신다.

“채무자가 어려운 환경에 있다면 형편이 나아질 때까지 지불을 연기하여 줄 것이며 더욱 좋은 것은 너희가 알고 있다면 그 부채를 자선으로 베풀어주는 것이다.”

(꾸란 2장 280절)

타인들의 빛에 의존하는 경제 체제로 인한 결과는 일부에게는 부를 가져다 주지만 대부분에게는 빈곤을 가져다 줄 뿐이다. 사람들은 말라위, 르완다, 그리고 에티오피아와 같은 나라

들에서뿐만 아니라 부유한 것으로 생각되는 나라들에서도 문자 그대로 굶주리고 있다.

ㄷ. 이슬람은 인종차별을 금한다

인종차별주의와 부족주의는 인간의 역사를 통하여 많은 갈등의 원인이 되어왔다. 이슬람은 우리를 인종차별주의의 위험들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 온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꾸란에서 우리에게 사람을 서로 구별시켜 주는 것은 의로움이 지 외모나 종족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

“사람들이여 하나님이 너희를 창조하사 남성과 여성을 두고 종족과 부족을 두었으며 서로가 서로를 알도록 하였노라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크게 영광을 받을 자는 가장 의로운 자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며 관찰하시는 분이시라.”

(꾸란 49장 13절)

“천지를 창조하시고 너희의 언어들과 피부색을 달리 창조하셨음도 그분 예증의 하나이시니 실로 그 안에는 전 인류를 위한 예증이 있노라.”

(꾸란 30장 22절)

ㄹ. 이슬람은 삶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슬람은 우리 자신들로부터 악을 깨끗이 하기 위하여 우리가 실천하도록 하나님에 의해 설계되었다. 무슬림들이 예배를 위해 모이도록 명령 받을 때에 인종은 하나의 요소도 될 수 없다. 예배의 줄들은 인종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무슬림들이

메카로 성지순례를 갈 때에는 왕도 농부도 같은 옷을 입어야 한다. 백인은 흑인과 같이 성지순례의 똑같은 시련들을 겪어야 한다. 이러한 형태의 숭배가 회사 및 다른 것들과 함께 적절히 활용된다면 우리 자신은 물론 전체 사회에 있어서도 진정한 변화를 야기시킬 수 있다. 이슬람은 믿음과 행동의 종교이다. 훌륭한 무슬림이 되기 위해서는 일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슬람은 규율과 자기 억제를 요구한다.

이슬람은 우리에게 배고픔과 천박한 욕망의 외침에 견디어 낼 수 있는 강함을 계발하도록 단식하고, 불법적인 유혹에 저항할 수 있기를 요구한다. 이슬람은 지식을 습득하는 삶의 방식이다. 사람이 이슬람 속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며 전 생애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많은 모습들이 있다.

이슬람은 올바른 치료 방법이고 당장 활용할 수 있다. 이슬람은 행동, 교육, 지식, 용기, 힘 그리고 인내를 요구한다.

24. 이슬람과 무슬림들의 실천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질문

만일 이슬람이 가장 훌륭한 종교라면, 왜 일부 무슬림들이 부정직하고 믿을 수 없고 사기, 뇌물공여, 마약거래 등의 활동들에 연루되는가?

대답

1. 언론은 이슬람을 헐뜯는다

- ㄱ. 이슬람은 의심할 바 없이 가장 훌륭한 종교이다. 그러나 언론은 이슬람을 두려워하는 서양인들의 손에 놓여있다. 언론은 계속해서 이슬람을 헐뜯는 정보를 내보내고 있다.
- ㄴ. 세계의 어디에서나 폭탄이 터지는 사건이 발생하면 아무 증거 없이 의심받는 첫 번째 사람들은 항상 무슬림들이다. 이것은 뉴스의 표제로 나온다. 나중에 비무슬림들이 범인인 것으로 밝혀지면 이것은 시시한 뉴스거리로 탈바꿈 된다.
- ㄷ. 만일 50살의 무슬림이 그녀의 허락을 받은 후 15살의 소

녀와 결혼하면 그것은 앞면에 보도되지만 50살의 비무슬림이 6살 소녀를 강간하면 그것은 신문 안쪽에 시시한 뉴스거리로 보도된다. 미국에서는 매일 2,713건의 강간이 발생하지만 그것은 신문에 보도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미국인들이 너무나 자주 접하는 사건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2. 모든 공동체에 있는 악한들

나는 부정직하고 믿을 수 없고 속이는 무슬림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언론은 오직 무슬림들만이 그러한 활동에 연루되어 있는 것처럼 보도한다. 모든 공동체에는 악한들이 있기 마련이다.

3. 전반적으로 보아서 무슬림들은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다

비록 무슬림 공동체에도 악한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아서 무슬림들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공동체를 형성한다. 우리 무슬림들은 가장 커다란 절대 금주 공동체이다. 우리는 세상에서 최대의 회사를 베푸는 공동체이다.

4. 운전자로 차를 판단하지 말아라

차가 얼마나 좋은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운전자를 보아서 는 안 되고, 차의 성능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처럼 이슬람이 얼마나 좋은 종교인지를 판단하고 싶다면 일부의 나쁜 이슬람 추

종자들을 보지 말고 이슬람의 근원인 꾸란과 하디스(선지자 무함마드(S.A.W.)의 언행록)를 살펴보아야 한다.

5. 가장 훌륭한 추종자인 선지자 무함마드(S.A.W.)를 통해 이슬람을 판단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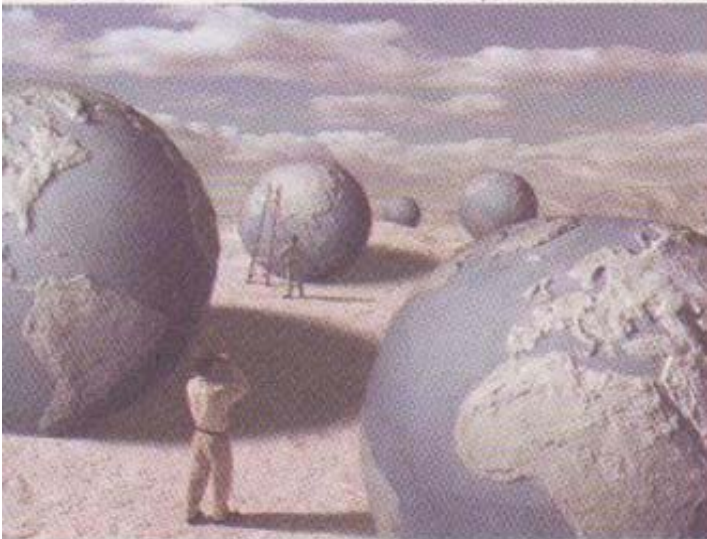
당신이 차가 얼마나 좋은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고 싶다면 운전석에 전문적 운전자를 앉혀라. 마찬가지로 이슬람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고 싶다면 이슬람의 가장 모범적인 추종자인 하나님의 마지막 선지자 무함마드(S.A.W.)를 보면 된다. 무슬림들 이외에도 선지자 무함마드(S.A.W.)가 가장 훌륭한 인간이었음을 증언한 정직하고 편견이 없는 비무슬림 역사가들이 있다.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이란 책의 저자 Michael H. Hart에 의하면 선지자 무함마드(S.A.W.)가 그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선지자 무함마드(S.A.W.)에게 커다란 경의를 표하고 있는 비무슬림들의 예로 문필에 유명했던 영국의 비평가, 역사가 토마스 카알라일(Thomas Carlyle), 프랑스의 로망파 시인, 정치가 라마르틴느(Lamartine Alphonse de) 등이 있다.

25. 이슬람에 있어서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질문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당신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대답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질문이 자주 떠오른다. 사람들은 이러한 질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답한다. 삶의 목적은 부자가 되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부자가 된 후 그들의 목적은 무엇일까? 바로 여기에, 불신자들과 잘못 믿는 자들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

들이 그렇게 꿈꾸던 부를 이룩한 뒤에는 그들의 삶은 목적을 상실하고 긴장과 불안 속에서 살며 아무 것도 없다는 공포로부터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다.

부가 목표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백만장자가 자살을 하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문제는 부를 지향하는 것이 개인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5살 먹은 아이는 부를 추구하지 않는다. 그는 백만 달러 보다는 장난감을 더 좋아한다. 18살 젊은이는 더 중요한 다른 일들 때문에 부를 꿈꾸지 않는다. 90살 노인은 자신의 건강을 더 걱정하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아랑곳 하지 않는다. 이것은 부라는 것이 모든 단계의 개인의 삶에 있어서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증명 해주는 것이다. 부는 불신자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줌에 있어서 많은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종말이나 운명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불신자는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한다. 그에게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잠정적이거나 자기 파괴적인 것일 뿐이다. 불신자가 자신의 종말을 두려워하고 모든 것을 회의적으로 본다면 그에게 부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불신자는 많은 돈을 벌 수 있지만, 틀림 없이 자신을 상실해버리고 만다.

목표로서의 하나님 숭배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믿는 자에게 그가 필요한 삶의 목적을 가져다 준다. 이슬람에서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다. '숭배' 라는 용어는 하나님에 대한 복종의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이슬람에서 삶의 목적은 영속적인 목적이어야만 한다. 진정한 무슬림은 그가 어린아이이건, 청소년이



건, 성인이건, 노인이건 간에 삶의 모든 단계를 통하여 이 목적을 고수해야 한다.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은 특히 이슬람의 틀 안에서 삶을 목적이 있고 의미 있게 만들어 준다.

이슬람에 의하면 현세에서의 삶은 짧은 단계의 삶에 불과하다. 그 후에는 내세의 삶이 있다. 첫 번째의 삶과 두 번째의 삶을 갈라놓는 것은 죽음이다. 죽음은 두 번째의 삶으로 옮겨가는 단계이다. 두 번째의 삶에서 사람은 첫 번째의 삶에서의 그의 행위에 의존하게 된다. 죽음의 끝에는 심판의 날이 있다. 이 날, 하나님은 사람의 첫 번째의 삶에서의 행위에 대해 보상을 하기도 하고 처벌을 하기도 한다.

시험으로서의 첫 번째의 삶

이슬람은 첫 번째의 삶을 인간을 시험하기 위한 무대로 본다. 죽음이란 시험을 거친 후의 휴식의 단계이다. 심판의 날은 시험의 결과를 발표하는 날과 같다. 두 번째의 삶은 각각의 수험생이 첫 번째의 삶의 행위에 따라 즐거움을 갖기도 하고 괴로움을 맛보기도 하는 것이다. 이슬람에서 말하는 삶의 진로는 간

단하고 논리적이다. 즉, 첫 번째의 삶, 죽음, 심판의 날, 그리고 두 번째의 삶이다. 이러한 간단한 삶의 진로와 함께 무슬림은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갖게 된다. 무슬림들은 첫 번째의 삶의 기간 동안 자신들이 하나님께 복종해야 함을 알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질문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무슬림들은 첫 번째 삶에서 그들의 행위가 두 번째 삶의 유형을 결정할 것을 알고 있다. 무슬림들은 첫 번째의 삶은 매우 짧은 것이고 두 번째의 삶은 영원한 것임을 또한 알고 있다.



두 번째 영원성

두 번째 삶의 영원성이라는 개념은 무슬림의 첫 번째 삶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무슬림은 그의 첫 번째 삶이 그의 두 번째 삶의 모습을 결정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결정은 한 없이 공정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판단으로 이루어진다. 두 번째의 삶과 심판의 날에 대한 믿음에 의하여 무슬림의 삶은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 된다. 무슬림의 목적은 두 번째의 삶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무슬림의 영원한 목적은 하나님에게 복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에 옮기고, 하루 다섯 번의 예배, 단식, 회사, 성지순례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접촉을 가지는 것이다.

영원한 목적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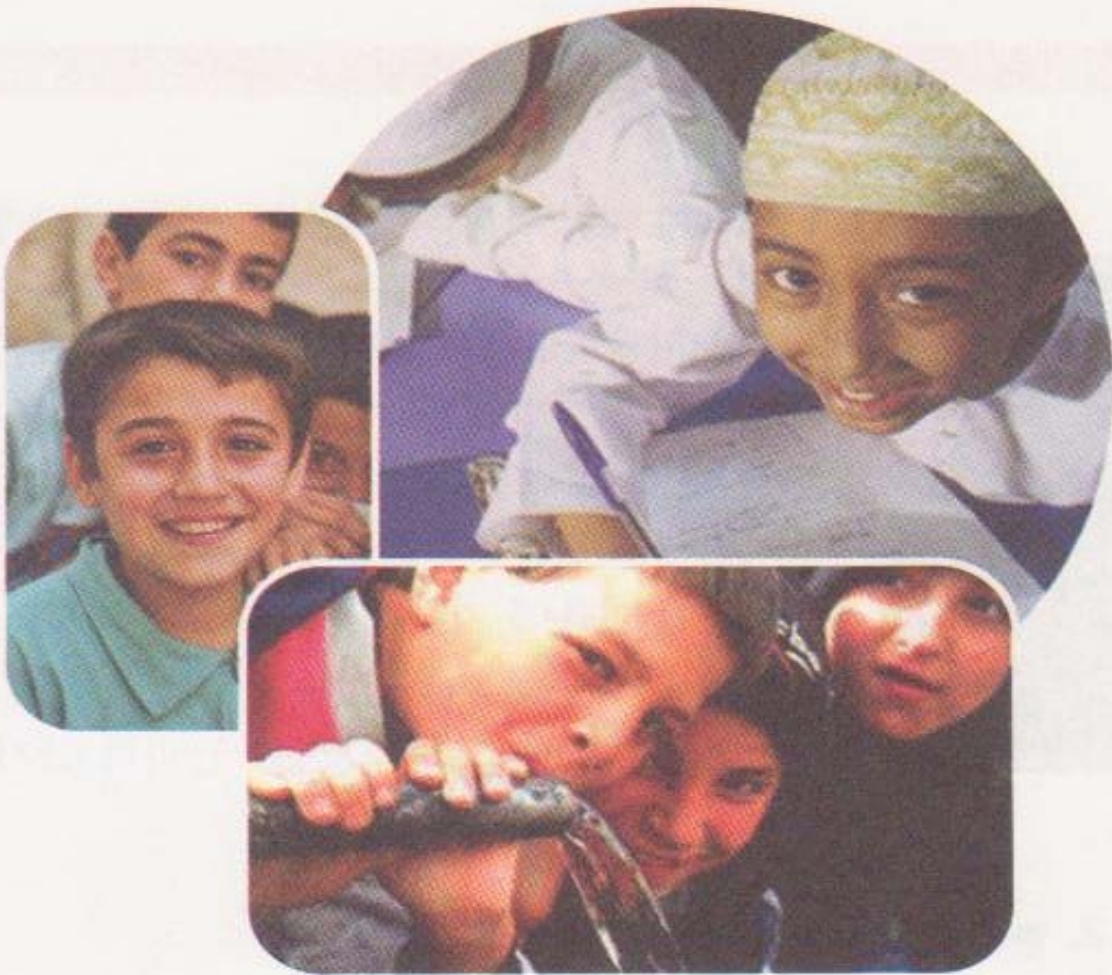
불신자들은 삶에서 돈을 모으는 일, 색을 탐하기, 배불리 먹고 춤추기와 같은 일시적인 쾌락을 좇는데 목적을 두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목적들은 덧없는 것들이다. 이 모든 목적들은 왔다가는 이내 사라진다. 돈은 생겼다가 없어진다. 건강은 또한 없어진다. 성적 즐거움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이러한 모든 탐욕들은 자신에 대한 질문들에 대답을 줄 수가 없다. “그래서 무엇이란 말이나? 이제는 어찌될 것인가?”

그러나, 이슬람은 그러한 질문의 괴로움으로부터 무슬림을 구해준다. 왜냐하면 이슬람은 처음부터 무슬림들에게 현세에서 삶의 영원한 목적이 하나님께 복종하여 내세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임을 분명히 해주기 때문이다. 우리는 현세와 내세에서 우리의 인류 구원의 유일한 길은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임을 확실히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숭배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으라고 명령하신 진리의 종교인 이슬람을 알아야만 한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공연히 독특한 자질과 뛰어난 능력을 부여하신 것이 아니며, 부질없이 어떤 의무를 부과한 것도 아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생의 목적을 이루고 존재의 목적을 실현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창조적 삶의 기술을 터득하여 삶의 진미를 맛보게 하려는 것이다. 생명은 하나님의 신탁물이며 인간은 그 수탁자로서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그분에 대한 책임을

의식하여 그 신탁물을 정직하고 요령 있게 다루어야 한다.

선지자 무함마드(S.A.W.)는 현명하게도, 자신의 포괄적인 언명 가운데 하나에서, 사람에게 스스로 이생의 객이요, 세상을 스쳐가는 나그네로 하라고 살 것을 충고한다.



26. 이슬람에 있어서 내세는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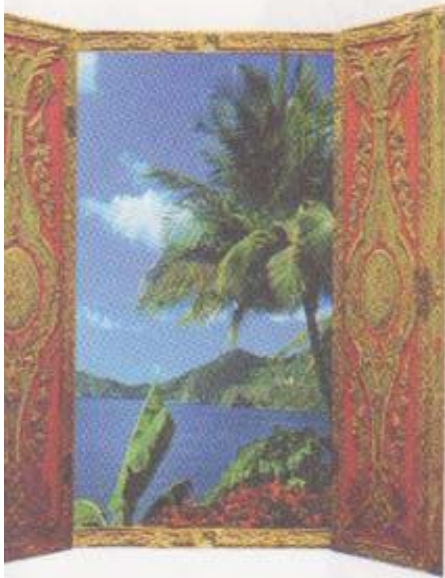
질문

이슬람에서는 내세 즉, 죽음 후의 삶에 대해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대답

1. 내세에 대한 믿음은 맹목적인 신념에 기초한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의심스러워한다.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방식을 지닌 인간이 어떻게 죽음 후에 삶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냐고. 그러면서 그들은 내세에 대한 믿음이 다분히 맹목적인 믿음에 기초한 것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내세에 대한 나의 확실한 믿음은 전혀 맹목적이지 않으며 또한 그것은 논리적 근거에서 비롯된 것이다.



2. 논리적 근거에 기초한 내세에 대한 믿음

꾸란에서 우리는 과학적 사실들이 언급된 천 개 이상의 구절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천 개 이상의 구절들에서 언급한

많은 사실들은 지난 몇 세기 동안에 현실세계에서 증명되어 왔다. 그러나 과학은 아직도, 꾸란에 언급된 모든 과학적 사실들을 뒷받침 해 줄 수 정도로 발전하지 못했다. 과학은 꾸란의 언급 중 대략 80%정도를 정확한 것이라고 입증하였고, 나머지 20%의 언급에 대해서는 아직 그 진위를 규명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지 않다. 꾸란의 언급 중 80%가 정확한 것으로 우리 인간에게 입증이 되었다면 아직 그 진위가 규명되지 않은 20% 또한 정확한 것이라고 추정해 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논리일 것이다. 꾸란 속에 언급된, 내세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바로 이 20%에 속하는 것이다.

3. 내세에 대한 관념이 없다면 평화와 인간 가치에 대한 관념은 소용없는 것이 된다

물건을 훔치는 것은 좋은 행위인가 나쁜 행위인가? 양심이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히 나쁜 행위라고 할 것이다.

만약 내세를 믿지 않는 사람이 강도질을 일삼는 범죄자에게 그가 하는 강도행위가 나쁜 것임을 설득해야 한다면, 그는 그를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범죄자이다. 동시에 나는 매우 영리하고 논리적인 사람이다. 물건을 훔치는 행위는 나로 하여금 사치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나는 강도행위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가 내게 강도행위가 왜 나쁜 것인가에 관해 명료하고 논리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면, 나는 즉시 강도행위를 그만둘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제시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의견들에 대해 살펴보자.

ㄱ. 강도를 당하는 사람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강도를 당하는 사람이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범죄자인 나는, 강도를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강도행위가 나쁘다는 사실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어찌했든 강도행위는 내게 좋은 것이다. 100만원을 강도질 한다면 나는 비싼 레스토랑에서 훌륭한 식사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ㄴ. 당신 또한 다른 누군가에게 강도를 당할 수 있다

또 어떤 사람은, 당신이 누군가에게 강도질을 당했을 때 경찰에 의해 당신의 범죄자 신분이 노출되어 체포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다.

범죄자인 나는, 나의 범법행위를 눈감아주는 경찰들을 알고 있으며 그들의 상관인 경찰국장들 또한 나와 친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체포될 수 없다. 만약 나와 같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 강도행위를 한다면 그는 당연히 체포될 것이므로 그에게 있어 강도행위는 나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내 배후에 강력한 세력이 뒷받침되는 특별한 범죄자이다.

ㄷ. 그것은 쉽게 번 돈이다

또 어떤 이는, 강도행위에 의해 번 돈은 아무 노력 없이 쉽게 벌어들이는 돈이라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범죄자인 나는, 그것이 쉽게 번 돈이라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내가 강도질을 하는 주요한 이유들 중 하나이다. 만일 돈을 쉽게 버는 방법과 어렵게 버는 방법 중에서 선택하라고 한다면 논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쉬운 방법을 선택할 것이다.

ㄹ. 그것은 인간의 도리에 반하는 것이다

또 어떤 이는, 그것은 인간의 도리에 반하는 것이며 인간은 타인을 배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범죄자인 나는, 누가 이 인간의 도리에 대한 법을 만들었고 내가 왜 그것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 물음으로써 반대 주장을 편다. 이 법은 감정적이고 감상적인 사람에게서는 좋을지 모르나 나는 논리적으로 사고하며,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에서 어떠한 이득도 얻을 수 없음을 안다.

ㅁ. 그것은 매우 이기적인 행위이다

또 어떤 이는, 강도질은 이기적인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강도질이 이기적인 행위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왜 이기적이지 않아야 하는가? 그것은 내가 삶을 즐기도록 해주는데.

1. 강도질이 사악한 행위라는 것을 뒷받침해 줄 논리적인 근거가 없다

강도질이 사악한 행위임을 증명하고자 하는 모든 주장들은 내게 무익한 것이다. 이러한 주장들이 보통사람의 생각을 만족시킬지는 모르겠으나 나처럼 강력한 범죄자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이성과 논리의 힘에 대해서는 어떤 논쟁들로도 항변할 수 없다.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범죄자들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강간, 사기와 같은 행위들도 나 같은 사람에게는 좋은 것으로, 정당화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것들이 나쁜 행위라고 나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적인 주장은 없다.

2. 무슬림은 강력한 범죄자를 설득할 수 있다

자 이제 입장을 바꾸어보자. 당신은 범죄자이다. 당신은 당신이 돈으로 매수한 경찰과 장관들로 인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세력 있는 범죄자이다. 당신에게는 당신을 보호해 줄 군대도 있다. 나는 당신에게 강도, 강간, 사기 등이 사악한 행위임을 설득할 무슬림이다. 만약 내가 강도행위가 나쁜 행위임을 증명하는 똑같은 주장들을 제시한다 할지라도 당신은 앞서의 사람이 그랬던 것과 똑같은 반응을 보일 것이다.

나는 이 범죄자가 매우 논리적인 인간이며 그의 모든 주장들은 오직 그가 가장 강력하고 세력 있는 범죄자일 때에만 적용될 수 있음에 동의한다.

3. 모든 인간은 정의를 원한다

모든 인간은 정의를 갈망한다. 설사 그가 남들을 위한 정의는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신을 위한 정의는 원한다. 어떤 사람들은 힘과 세력에 도취되어 남들에게 고통을 가한다. 그러나 그 똑같은 사람들은 만일 그들에게 어떤 부당함이 가해진다면 틀림없이 반대할 것이다. 그러한 사람들이 남들의 고통에 무감각해지는 이유는 그들이 힘과 세력을 숭배하기 때문이다. 힘과 세력은 그들로 하여금 남들에게 부당함을 가하는 것을 허락할 뿐만 아니라 남들이 그들에게 똑같이 하는 것을 막아주기도 한다고 그들은 생각한다.

4. 하나님은 가장 강력하시고 공정하시다

무슬림으로서 나는 그 범인에게 전능한 하나님의 존재를 설득하고자 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보다 더 강력하시고 또한 동시에 공정하시다고 설득하고자 한다. 꾸란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은 조금도 부당하지 않으시다.”

(꾸란 4장 40절)

5. 하나님은 왜 나를 처벌하지 않으시는가?

그 범인은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사람이기에 과학적인 그는 하나님께서 강력하시고 공정하시다면 왜 그를 처벌하지 않으시냐고 주장할 것이다.

6. 부당함을 행하는 사람들은 처벌받아야 한다

부당함을 겪은 모든 사람은 경제적 또는 사회적 지위에 관계 없이 거의 틀림없이 부당함을 범한 사람이 처벌받기를 원한다. 정상적인 모든 사람은 강도나 강간범에게 어떤 교훈을 가르치기를 원할 것이다. 비록 많은 범인들이 처벌받지만 벌을 면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들은 유쾌하고 사치스럽고 심지어 평화스러운 삶을 영위한다.



7. 현세에서의 삶은 내세를 위한 시험이다

현세에서의 삶은 내세를 위한 시험이다. 꾸란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죽음과 생명을 제정하시어 그것으로 너희가 선을 행하는지 시험하고자 하시니 그분은 권능과 지혜로 총만하심이라.”

(꾸란 67장 2절)

8. 심판의 날에 내리는 최후의 정의

꾸란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든 인간은 죽음을 맛보며 심판의 날 보상을 받게 되니라 지옥으로부터 구제된 자에게는 천국의 문이 열릴 것이며 그곳에서 영광을 누리노라 이 세상은 단지 기만의 속세에 불과하너라.”

(꾸란 3장 185절)

심판의 날에 최후의 정의가 내려질 것이다. 사람이 죽은 후 그는 심판의 날에 나머지 인류와 함께 부활할 것이다. 사람이

그의 처벌의 일부분을 이 세상에서 받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마지막 보상과 처벌은 오직 내세에만 있다. 전능한 하나님께서는 강도나 강간범을 이 세상에서 처벌하지 않으실 수도 있으나 심판의 날에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9. 히틀러에게 인간의 법은 어떤 처벌을 줄 수 있나?

히틀러는 그의 공포의 통치 기간 중 육백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였다. 설사 경찰이 그를 체포하였지만 인간의 법으로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히틀러에게 어떤 처벌을 내릴 수 있었나? 히틀러를 처벌할 수 있는 최대한은 그를 처형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한 명의 유대인을 죽이는 것에 대한 처벌에 불과하다. 육백만에서 한 명을 뺀 나머지 유대인들에 대한 죽음의 처벌은 어떠한가?

10. 하나님은 지옥의 불길 속에서 육백만 번 이상 히틀러를 불태우실 수 있다

하나님은 꾸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계시를 불신하는 자들을 화염 속으로 들게 하여 그들의 피부가 불에 익어 다른 피부로 변하니 그들은 고통을 맛보더라 실로 하나님은 권능과 지혜로 충만하심이라.”

(꾸란 4장 56절)

하나님은 원하신다면 내세에서 지옥의 불길로 히틀러를 육백만 번이나 불태우실 수 있다.

11. 내세의 개념이 없다면 좋거나 나쁘다는 인간의 가치에 대한 개념도 없다

내세에 대해 사람을 실득하지 못한다면 부당함을 저지르는 사람에게 더욱이 그에게 강력하고 세력이 있다면 선행과 악행의 개념을 증명한다는 것이 불가능함은 분명하다.



27. 무슬림들은 예수(A.S.)를 인정하지 않는가?

질문

무슬림들은 예수(A.S.)를 믿는가?

대답

흔히 이슬람에서 예수(A.S.)를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오직 서구적 관점에서 이슬람을 왜곡시켜버린 탓이다. 무슬림들은 예수(A.S.)를 사랑하도록 가르침 받는다. 누구든 처녀 잉태설과 예수(A.S.)의 기적들을 믿지 않고서는 무슬림이 될 수 없다. 다만, 이슬람에서는 3위1체설을 거부할 뿐이다. 그 이유는 3위1체란 본래부터 있던 것이 아니라 예수(A.S.)의 사후에 특히 바울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에서 교회의 편의를 위하여 만들어낸 이론이기 때문이다. 즉,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이슬람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이 세 분이시다는 것을 거부한다. 꾸란 112장 3절에서는 “하나님은 낳지도 않고 낳아지지도 않는 분이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다.

무슬림들은 예수(A.S.)를 칭할 때 단지 ‘예수’라고 하지 않고 항상 다른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평화가 그분에게’이라는 구절을 덧붙인다. 또한 무슬림들은 예수(A.S.)가 아버지 없이 아담(A.S.)을 탄생시켰던 것과 똑같은 힘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탄생했다고 믿는다. 꾸란에서 예수(A.S.)의 탄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된다.

“하나님께서 아담(A.S.)에게 그랬듯이 예수(A.S.)에게도 다룰 바가 없도다. 하나님은 홀으로 그를 빚어 그에게 말씀하셨다. ‘있어라!’ 그리하여 그가 있었다.”

(꾸란, 3장 59절)

예수(A.S.)는 그의 선지자직을 수행하실 때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 꾸란에서는 예수(A.S.)님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수록하였다.

“나는 너희 주님으로부터 예증을 가지고 왔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진흙으로 새의 형상을 만들어 숨을 불어 넣으면 하나님의 허락으로 새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나는 장님과 문둥이들을 낮게 하며 하나님의 허락 하에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린다.”

(꾸란, 3장 49절)

예수(A.S.)도 이전의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기본적 교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재확인하고 새롭게 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다. 꾸란에는 예수(A.S.)가 자신이 오게 된 것을 말하시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전한다.

“내 이전에 율법(구약)이 있었음을 확증하고 너희에게 금지되었던 것 중의 일부를 허락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왔으며 너희 주님으로부터 예증을 가지고 왔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에게 순종하여라.”

(꾸란, 3장 50절)

이슬람에서 예수(A.S.)의 위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 ① 이슬람은 예수(A.S.)를 믿는 것을 신앙의 한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유일한 비기독교 신앙이다. 예수(A.S.)를 믿지 않는다면 무슬림이 아니다.
- ② 무슬림은 예수(A.S.)가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선지자들 중의 한 분이셨다고 믿는다.
- ③ 무슬림은 그가 남성의 개입 없이 기적적으로 태어났다고 믿는다. 그런데 그것을 오늘날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믿지 않고 있다.
- ④ 무슬림은 예수(A.S.)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죽은 자들을 살렸다고 믿는다.
- ⑤ 무슬림은 예수(A.S.)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눈이 먼 자들과 나병 환자들을 고쳤다고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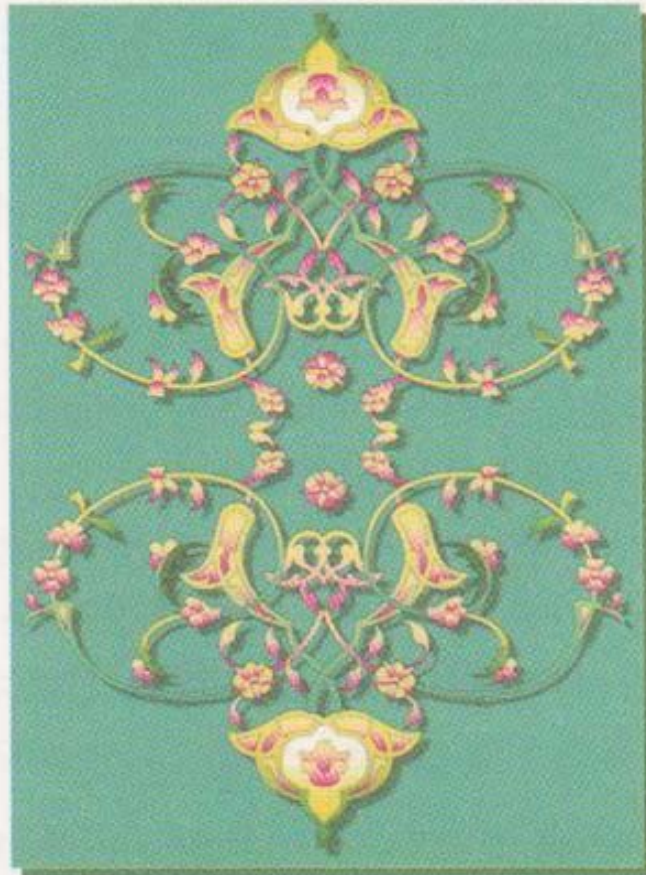
혹자는 무슬림들과 기독교인들이 모두 예수(A.S.)를 사랑하고 존경한다면 정확하게 그들이 갈라서는 길이 어디냐고 물을 수 있다. 이슬람과 기독교의 주요한 차이점은 기독교인들이 예수(A.S.)의 신성을 주장하는 데에 있다. 기독교의 성서들을 연구해보면 예수(A.S.)가 신성을 주장한 적이 결코 없음이 드러난다. 사실상 성경의 어디에서도 명백하게 예수(A.S.)가, '나는 하나님이다' 또는 '나를 숭배하라'고 말한 언급은 단 하나도 없다. 사실상 성경에는 예수(A.S.)가 오히려 정반대의 내용을 설교한 언급들이 실려 있을 뿐이다. 성경의 다음의 언급들을 보자.

“나는 무슨 일이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그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할 따름이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내 뜻이 아

“나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기 때문에 내 심판은 올바르다.”

(요한 5장 30절)

요컨대, 무슬림들은 하나님 중의 한 분이거나, 하나님의 아들로써의 예수(A.S.)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특히 중요한 다섯 분의 선지자들(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 무함마드(그 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드시기를)) 중의 한 분으로서 예수(A.S.)를 존경하는 것이다.



28. 이슬람에서는 원죄를 어떻게 보는가?

질문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범한 잘못에 대해 당신을 꾸짖으시는가?

대답

나는 당신이 우리는 죄를 지은 채 태어났다는 말을 틀림없이 들어보았으리라 확신한다. 아마 당신도 그 말을 믿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점에 대해 잠시 동안만 생각해 보자. 과연 하나님께서 당신이 결코 범한 적이 없는 죄에 대해 당신을 꾸짖으실까? 다른 누군가가 행한 일에 대해서 당신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절대 아니다! 하나님의 책은 당신은 오직 당신의 행동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고 가르친다. 당신은 잘못을 범하지 않는 이상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당신이 태어나기 전에는 절대로 잘못을 범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짓고 태어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난다. 그게 과연 사실일까? 그들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죄를 지었고, 그를 통해 죄가 세상에 생겨났으며 그리하여 이제 그 죄는 모든 신생아를 포함하여 모든 것을 부패시킨다고 말한다. 당신은 그 논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당신은 인간이 아무 짓도 하지 않았는데 유죄 선고를 받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가? 어떤

재판관이 사람들에게 그들이 결코 범하지 않은 범죄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겠는가? 공정한 재판관은 실수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신가? 하나님께서 그러한 실수를 범하실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한 거짓 관념을 상상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공정하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행하는 일에 대해 책임을 지우시며 최초의 인간이 행한 것에 대해서 당신을 꾸짖지 않으신다. 그러나 설사 당신이 잘못을 범한다 해도, 당신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을 기꺼이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은 사랑과 친절이 충만하신 분이요 용서하기를 좋아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용서를 구하는 누구건 기꺼이 용서하신다. 이는 설사 당신이 잘못을 범했다 할지라도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는 뜻이며, 당신이 진정으로 그 죄를 포기하기로 결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용서하시는 것이다. 설사 우리가 전 생애를 통해 죄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러한 삶을 바꾸고 하나님께 복종하기로 결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즉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다는 것을 아는 것은 기쁜 일이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이다. 우리는 그 어떤 고백 장소도 필요 없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대신 고통을 겪을 그 누구도 필요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친절을 거부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 대해 알기를 원하신다. 그 분은 우리가 그 분께서 공

정하심을 알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분에 대한 진실을 알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분께 의지할 때 우리는 누구에게 의지하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너무나 많은 잘못된 정보가 널리 퍼져 있다.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얻을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책에서이다! 그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그렇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그 분의 책에서 우리에게 그 분 자신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스스로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알아내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책을 읽어야 하지 않겠는가? 꾸란은 모든 인류의 지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마지막 책이다. 여기에 하나님이 그 분의 책에서 당신에게 내리신 메시지가 있다.

“사람들이여 주님으로부터 너희에게 증언이 도래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광명을 주고자 함이라 또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동아줄을 붙잡는 자들을 자비와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여 올바른 길로 인도하리라.”

(꾸란 4장 174-175절)

29. 꾸란은 무슬림들에게 모세오경(토라), 시편(자부르), 그리고 복음서(인질)를 믿도록 가르치는가?

질문

그렇다면 무슬림들은 왜 성경(Bible)을 받아들이지 않는가?

대답

꾸란은 무슬림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들에게 내려진 계시들을 믿도록 명령한다. 계시가 내려진 선지자들에는 모세, 다윗, 그리고 예수(그 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드시길)가 포함된다. 무슬림들은 이 선지자들에게 내려진 계시들을 믿어야 한다. 이 세 명의 선지자들과 관련된 성서들은 각각 모세오경(토라), 시편(자부르), 그리고 복음서(인질)이다. 그러므로 무슬림들은 원래의 모세오경 (토라: Torah), 시편(The Book of Psalms), 그리고 복음서(Gospels)를 믿는다.

성경(Bible)은 위와 같은 이름의 책들과 그것들 외에 다른 책들을 포함한다. 무슬림들은 그 다른 책들을 믿으라고 명령받은 적은 없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경은 개신교의 번역판으로 66권의 책들을, 가톨릭의 번역판으로는 73권의 책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게 66권 또는 73권으로 구성된 성경 속에

서 모세오경(토라)은 5권, 시편은 1권, 그리고 복음서는 4권을 차지할 뿐이다. 즉 전체 성경 속에서 모세오경, 시편, 그리고 복음서는 총 10권을 차지할 뿐이다. 무슬림들은 그 10권이 외의 책들은 믿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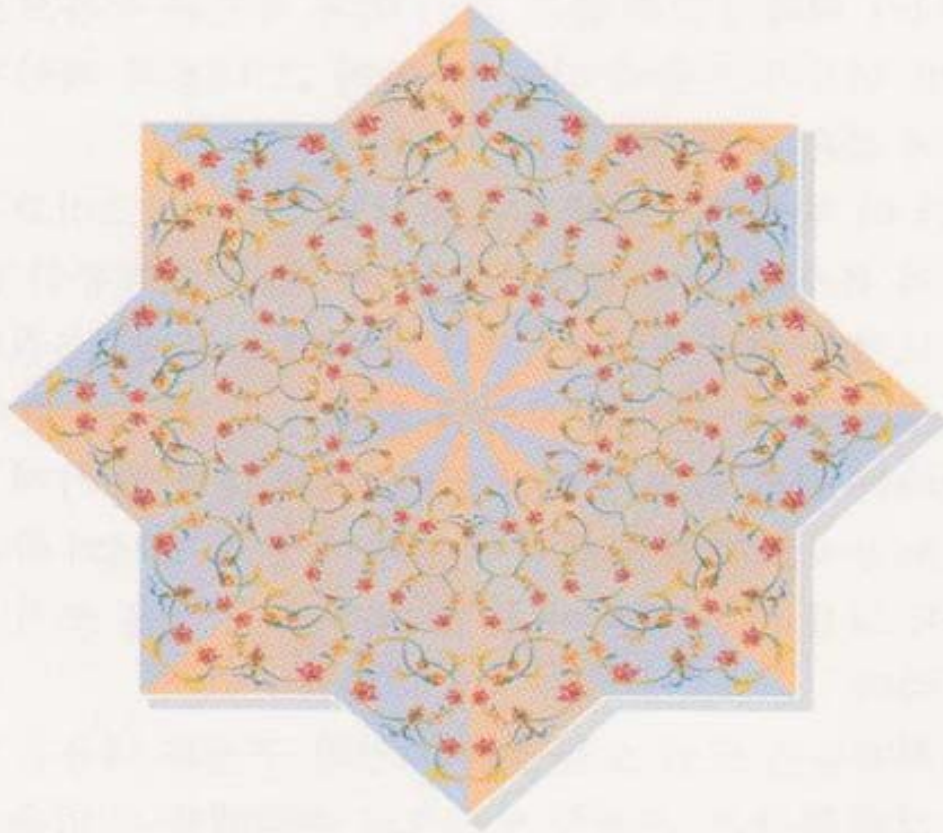
하지만 그 10권의 책들이 과연 꾸란에서 언급하고 있는 원래의 계시된 그대로인지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 상세히 점검해본 결과 이 10권의 책들은 비록 그 이름들은 변함이 없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내용이 변질되었음이 증명되었다. 마치 브리태니카 백과사전과 같은 책이 비록 똑같은 이름으로 불리어지지만 역사의 흐름에 따라 수 차례 그 내용과 페이지 수가 변한 것과 같은 이치이다.

조금만 더 자세히 조사해보면 모세오경, 시편, 그리고 복음서에도 그와 유사한 일이 생겼음을 알 수 있다.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은 모세가 성경 속의 '모세오경' 이라고 불리는 5권의 책을 쓴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오늘날 모세가 그 책들을 온전히 쓸 수 없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한 한 가지 증거는 신명기 34장에 묘사된 모세의 죽음과 매장 및 모세의 죽음 후의 사람들이 그를 위한 애도이다. 모세가 그 구절을 쓰지 않았음은 분명하다.

성경 학자들은 또한 오늘날의 시편의 구성과 내용을 다윗의 시대의 것과 똑같은, 온전한 모습으로 추적해볼 수 없음을 시인하고 있다.

복음서들은 그것들이 하나가 아니라 넷이기 때문에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원래 예수(A.S.)가 가르친 진정한 복음서는 한 권뿐이었는데, 이것이 각기 다른 저자에 의해 네 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꾸란은 그 네 권의 번역판이 쓰여지기 이전에 예수가 원래 가르친 복음서를 무슬림들에게 믿도록 요구한다. 그 네 권의 번역판 복음서는 예수(A.S.)가 죽은 오래 후에 쓰여졌음을 누구나 동의하고 있다.



30. 한국에서는 이슬람이 어떻게 시작되어 발전하고 있는가?

질문

한국 이슬람의 역사는 어떠한가?

대답

한국에서 이슬람 세계와의 최초의 접촉이 일어난 때는 통일 신라 말기[서력 661-935]로서, 그것은 국제무역을 통해서였다. 그리고 한반도에 이슬람 종교와 문화가 본격적으로 유입된 시기는 고려 말과 조선 초인 13-14세기였다. 이는 고려가 몽골의 원 제국으로부터 간섭을 받으면서, 몽골관리와 함께 원 제국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중앙아시아계 무슬림들이 대거 고려로 몰려오면서 가능하였다. 이들 무슬림들은 고려에 정착하여 그들만의 종교, 민족적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한반도에 이슬람 문화가 이입되는 것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15세기 중엽 이후 한반도와 이슬람의 교류관계는 급격히 냉각되고 말았다. 이는 유럽의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주도하는 지리상 발견시대로 접어들면서 교량적 무역을 담당하던 아랍 무역권의 쇠퇴와 동북아시아의 정세 변동에 따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절연의 시기는 20세기 초의 개화의 물결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되었다.

한국 전쟁(1950.6-1953.7)의 폐허속에 이슬람의 씨앗이 이 땅에 뿌려지기 시작하였으니 유엔 평화 유지군의 일원으로 참전한 터키군의 주베르 코치와 압둘라 흐만은 북한군과 전투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천막으로 이슬람 성원을 세우고 한국인에게 이슬람 복음을 전하고 유일신에 대한 신앙을 가르쳐 주었다.

터키군의 지원으로 서울 이문동에 퀸세트 임시성원과 텐트 3동으로 청진학원을 개원하고 예배 근행과 아울러 정규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불우 청소년 약 120명에게 중등과정 교육과 이슬람교육을 병행 실시하였다.

초기한국 이슬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고 조직화하기 위하여 “한국 이슬람교협회”가 발족되고 초대 회장에 우마르 김진규를 추대하였다.

한편 이슬람 국가와의 유대강화와 협조체제를 이룩하기 위하여 임원진이 이슬람국가를 순방하고 최초로 말레이시아 클랑 무슬림 대학에 있는 무슬림 지도자들의 내한을 적극 추진 이슬람 선교기반을 마련하였다.

한국 무슬림들은 “한국 이슬람교 협회”를 재정비하고 ‘재단법인 한국 이슬람교’를 설립하여 한국 정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1955년). 이로써 체계적인 한국 이슬람 선교의 기틀을 세워나가기 시작하였다.

1976년에 한국 무슬림의 오랜 숙원이었던 중앙성원이 준공



한국이슬람교 중앙성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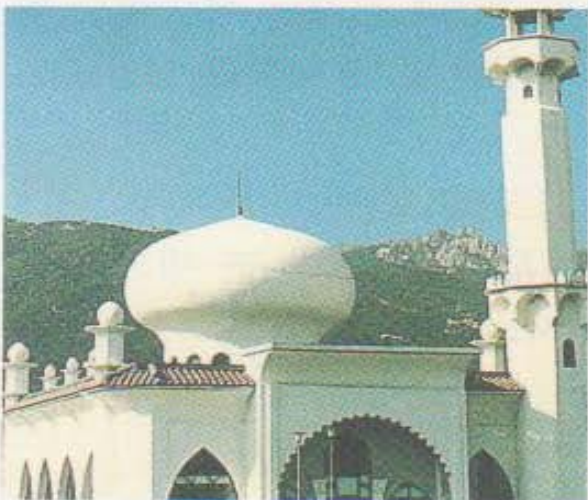
전주성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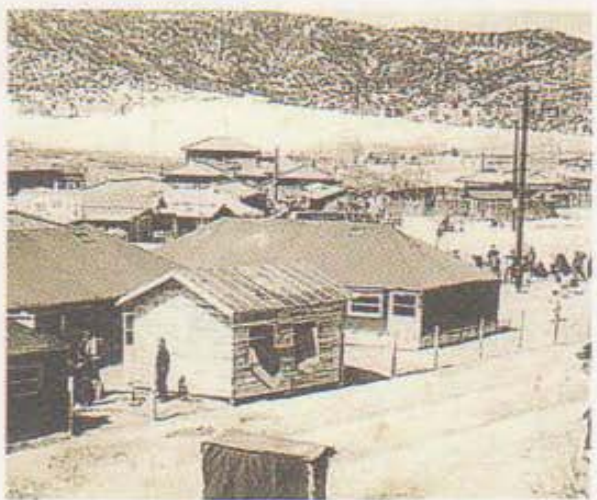
광주성원



만양성원



부산성원



최초의 한국이슬람성원

되었다. 중앙성원과 이슬람센터의 개원은 현재까지의 한국 이슬람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다. 20여 이슬람국가에서 온 55명의 대표들이 개원식에 참석하여 한국인사회에 이슬람 붐을 조성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이 장엄한 개원식의 결과로서 이슬람에 귀의하는 무슬림들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최초의 한국 이슬람 중앙성원의 개원을 시작으로 한국에 급속한 이슬람 발전의 계기를 맞게 되었다.

한편 한국 무슬림은 이슬람 신앙을 고취시키고 무슬림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1979년 성지순례단을 구성하여 메카 순례를 다녀오기도 하였으며 중동 건설 붐(1974-1980)을 계기로 한국 내에서 중동과 이슬람에 대한 관심도를 고조시켜 이슬람선교에 박차를 가하였다.

1986년에는 전주지역에 이슬람의 씨앗이 뿌려져 지방선교에 한 일익을 담당하였다. 한국에서의 이슬람의 확산은 이슬람 각국의 관심을 불러모아 리비아, 쿠웨이트, 이집트의 독지가들의 지원으로 여러 지역에 성원이 건립되었다 현재는 제주에도 임시 예배실이 설치되어 지역 선교 활성화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 이슬람이 이 땅에 뿌리 내린지 약 50여년, 한국에는 7개의 이슬람 성원과 60개의 이슬람지회 그리고 약 4만 명의 한국 무슬림들이 하나님의 복음에 충실하고 있다.

31. 한국에서는 이슬람교를 왜 '회교' 라고 부르는가?

질문

이슬람교를 '회교' 라는 명칭으로 부르는 것은 옳은 것일까?

대답

한국에 이슬람이 처음 소개된 것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때 중국을 통해서였다. 그 당시의 중국에는 전 지역에 한족(漢族)과 섞여 살지만 주로 중국 북서부에 몰려있는 소수민족인 회족(回族)이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이 무슬림이었고 따라서 대다수의 회족이 믿는 종교라는 뜻으로 이슬람을 회교라고 부르게 된 연유이다. 이와 같은 연유로 이슬람교를 한국에서는 '회교'라고 부르게 되었다. 따라서 이슬람교를 회교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 전달된 명칭이며 이슬람교의 명칭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본래 이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복종을 통한 평화'라는 뜻의 아랍어이다. 세계인구의 약 17억이 믿는 종교인 이슬람을 이제부터라도 바르게 불러야 한다.



32. 별과 초승달은 무슬림들의 상징인가?

질문

무슬림들의 별과 초승달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대답

무슬림들이 별과 초승달을 상징이나 장식으로서 자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이슬람의 율법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것은 선지자 무함마드(S.A.W.)의 시절(570-632년)이나 그 분이 돌아가신 후, 이슬람의 최초 네 명의 지도자들의 시기(칼리파 시대 632-661년)에도, 그리고 우마이야 왕조와의 시기(661-750년) 동안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일이었다.

그것은 그 이후에 나타난 것인데, 이러한 상징이 언제 처음으로 선택되었고, 누가 그것을 처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는 역사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다. 페르시아인들이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고, 그리스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무슬림들이 초승달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들이 서양의 나라들을 정복했을 때에 교회의 꼭대기에 걸려있던 십자가 대신에 초승달을 걸었고 이것이 관습화되어 전파된 것이라고 한다.

그 기원이나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그러한 상징들과 깃발들

은 이슬람의 가르침과 일치해야만 하는 것이고, 별 또는 달의 상징에 대한 어떠한 이슬람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 한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비록 일부의 무슬림들이 그것들을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다 할지라도 초승달 또는 별은 무슬림들의 상징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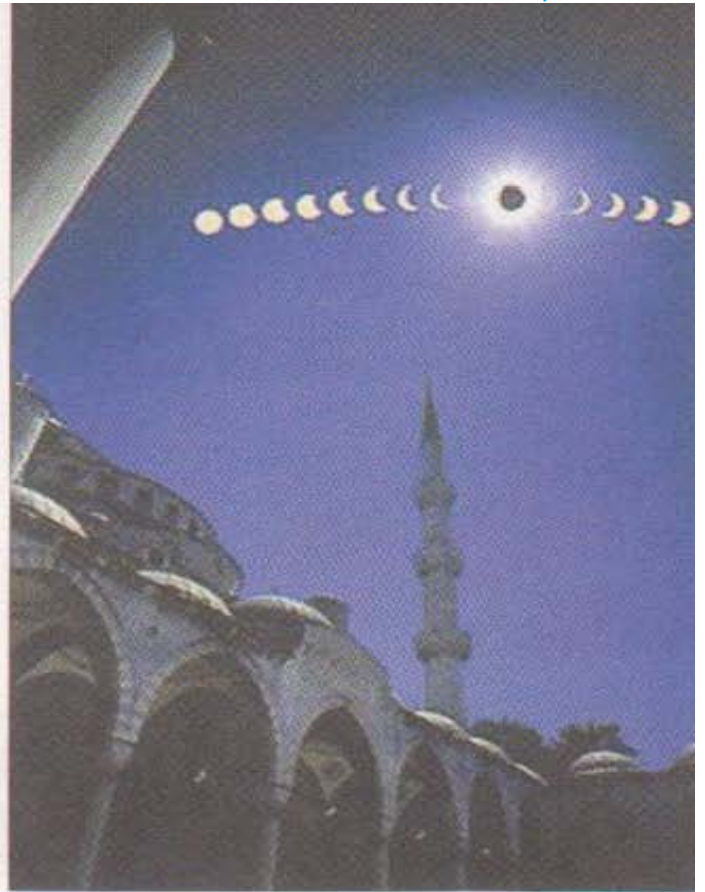
무슬림들이 달과 별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는, 그것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의 일부라고 믿는 것이며, 그것들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거나 해를 끼칠 수 없고, 인간은 그것들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창조하신 것은 인류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에 관한 예를 꾸란에서 찾아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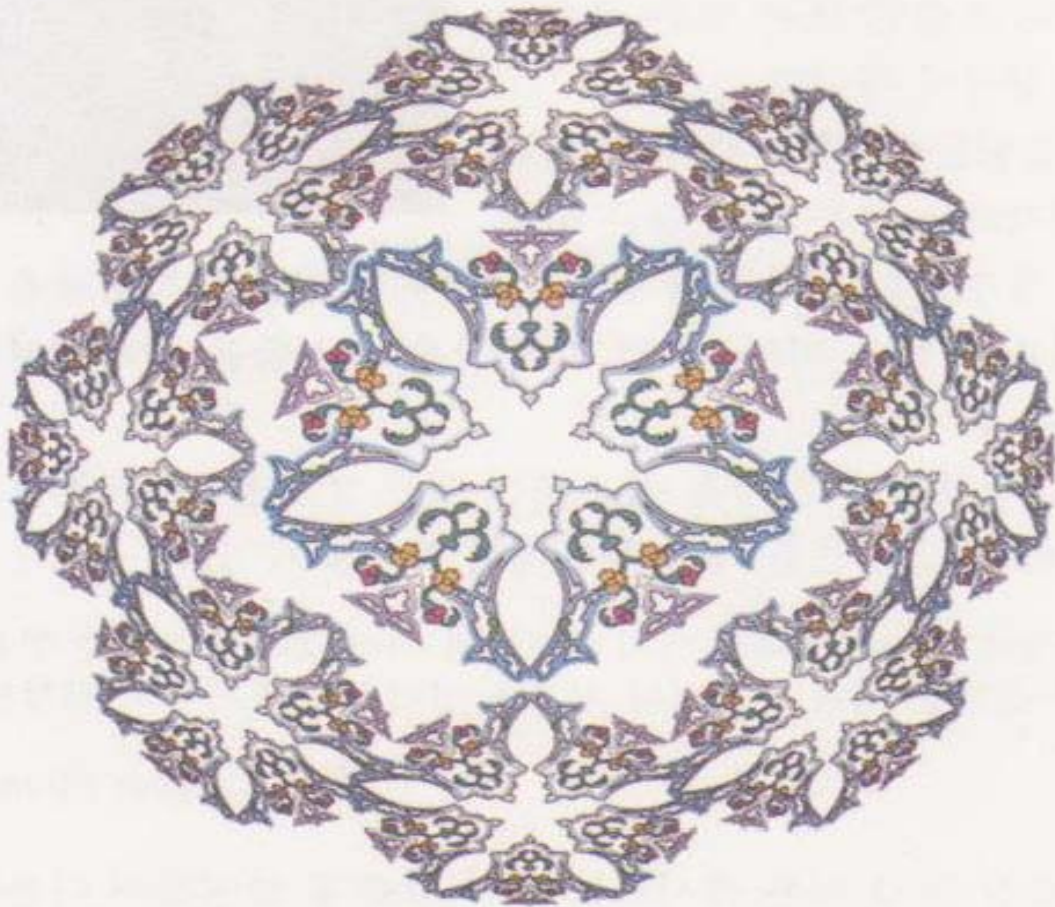
“그들이 그대(무함마드)에게 초승달에 대해 물으면 그것은 인류와 성지순례를 위하여 고정된 시간을 알려주는 표시라고 말할지어다...”

(꾸란 2장 189절)

이슬람 학자 이븐 카시르는 위의 말씀을 설명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초승달들은 시기를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 사람들은 초승달들을 기준으로 빌린 돈을 갚을 시기와 이혼이나 과부가 되고 난 후, 대기하는 시간과 성지순례의 시기를 알 수 있는 것이다...하나님께서 초승달들을 무슬림들이 단식을 시작하고 깨는 시기(라마단 달의 시작과 끝)를 알려주는 표시로 삼으셨다.”



33. 이슬람으로 개종한 사람들의 진술로부터 끌어낸 결론은?

질문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서구사회에서 태어나 자란 많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생활방식과는 다른 이슬람으로 기꺼이 개종하여 무슬림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답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은 거짓이라는 거대한 밀림의 한복판에서 길을 잃고 그 출구를 찾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일이다.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삶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진리추구에 대한 노력을 결코 멈추지 않는다. 진리를 추구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 정신적, 육체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삶을 사는 목적이 된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그 목적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삶이나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있으며 마침내 그들은 이슬람 안에서 모든 진리를 깨닫고 궁금했던 모든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으며, 비로소 마음의 평화와 함께 새로이 얻은 삶의 목적을 향해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

다음의 글들은 다양한 인종, 국적, 직업의 사람들이 이슬람을 받아들인 이유에 대해서 말한 분명하고, 진지하며, 일관된 진술들이다. 이 진술들은 다른 종교들에서는 얻을 수 없었던 진리를 이슬람에서 발견한 그들의 개인적인 확신을 잘 반영하고 있다. 그 진술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 이슬람에서 창조주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분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창조물들로부터 숭배 받을 가치가 있는 분이시며, 그 분은 '하나님(아랍어: 알라)'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신다.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다른 많은 종교들이 갖고 있는 다신론의 개념(예: 삼위일체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
- ▶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는 선택과 결정의 순간들을 마주치게 된다. 너무나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과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기 힘든 현실 속에서 인간은 혼란과 괴로움을 느끼며 무능력한 상태가 되고 만다. 때로는 스스로 삶을 포기하기도 한다. 이러한 인간에게 이슬람은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최상의 가치관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현세와 죽음후의 내세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가르쳐주고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한다.
- ▶ 기독교에서는 인간을 이렇게 정의한다.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고 그에게 현세의 삶이 주어진 목적은 예수를 신 또는 신의 아들이로서 숭배함으로써 죄 사함을 받는 것이다. 반면에, 이슬람에서는 인간을 죄 없이 순수한 피조물로 하나님의 사랑 받는 존재로 태어나며 자신의 언행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책임이 있으며, 하나님을 믿고 올바르게 산다면 내세에서 무한한 축복을 누릴 것이라고 말한다.
- ▶ 이슬람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숭배, 예배, 그리고 참회와 관련된 문제들에 있어서 제 3자를 허락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제의

중재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다른 종교들에서 존재하는 신앙에 있어서의 계급구조 또한 성립되지 않는다.

- ▶ 이슬람에서는 인종, 피부색, 언어, 국적에 관계없이 무슬림들 서로를 형제 자매들이라고 부른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며 이것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예는 예배를 근행할 때에 나타난다. 무슬림들은 사회적 지위, 빈부의 차이, 인종에 관계없이, 서로의 어깨와 어깨가 살짝 닿을 정도의 폭으로 함께 나란히 줄지어 서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일치를 이룬 가운데에 엎드려 예배를 드린다.
- ▶ 이슬람에 의하면, 선지자들이란 우리와 같은 인간들이다. 그들은 모든 점에서 가장 훌륭한 인간들이다. 그들의 의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숭고한 도덕적 품성과 고매한 성격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시어 이러한 중요한 의무를 수행토록 하신 것이다.
- ▶ 이슬람은 완벽하게 논리적인 종교이다. 꾸란에는 인간의 논리와 이해에 맞지 않는 사실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역사적, 생물학적, 과학적 지식과 모순되는 단 하나의 사실도 들어 있지 않다. 꾸란에서 인간에게 따르도록 지시한 모든 계율들은 인간이 미처 깨닫지 못한, 인간 스스로를 유용케 하는 것들이다. 이슬람은 어떠한 미신도 인정하지 않는다. 오직 원시의 종족들과 우상 숭배자들만이 받아들이는, 그리고 오늘날 아직도 타종교에서 허용하는 우상, 영상, 성상들을 숭배하는 것은 이슬람에서 엄격히 금하는 행위이다.
- ▶ 이슬람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든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 분을 기쁘게 해 드리려고 노력하게 만들며, 그 분이 창조하신 모든 다른 피조물들 또한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도록 만든다. 무슬림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증오를 유발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 ▶ 누구도 다른 사람을 무슬림이 되도록 강요할 수 없다.

“이슬람으로의 개종은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져서는 안 되느니라.”

꾸란 2장 256절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신을 믿는 것에 대해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 이슬람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각 개인의 종교에 대한 이러한 자유를 존중하며 이것은 또한 역사적으로도 널리 증명된 사실이다. 다만 비무슬림이 이슬람에 대해 알기를 원한다면, 무슬림 각 개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가장 지혜롭고 아름다운 태도로 이슬람에 대해 설명해주어야 한다.

- ▶ 이슬람에서의 숭배 행위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의도되는 것이다. 하루 다섯 번의 정해진 예배 시간들은 사람들에게 삶의 질서와 시간에 대한 이해와 시간을 지키는 것에 대해 훈련시키며 매년 한달 동안의 단식은 인간의 육체적 욕구를 조절하고 통제하도록 훈련시킨다.
- ▶ 이슬람은 청결을 특히 강조한다. 이슬람은 매 예배 전에 육체적 청결을 갖추도록 지시하는 유일한 종교이다.
- ▶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슬람은, 자본주의적 물질주의와 공산주의적 이상향 둘 다 거부한다. 이슬람은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며 부자들을 비난하지 않는다. 이슬람은 부자들로 하여금 가난한 자들에게 희사하라고 명령한다.

더 나아가, 성지순례를 통하여 온갖 국적과 인종의 무슬림들이 같은 일정기간동안에 함께 모이게 함으로써 가장 완벽한 사회 체제를 형성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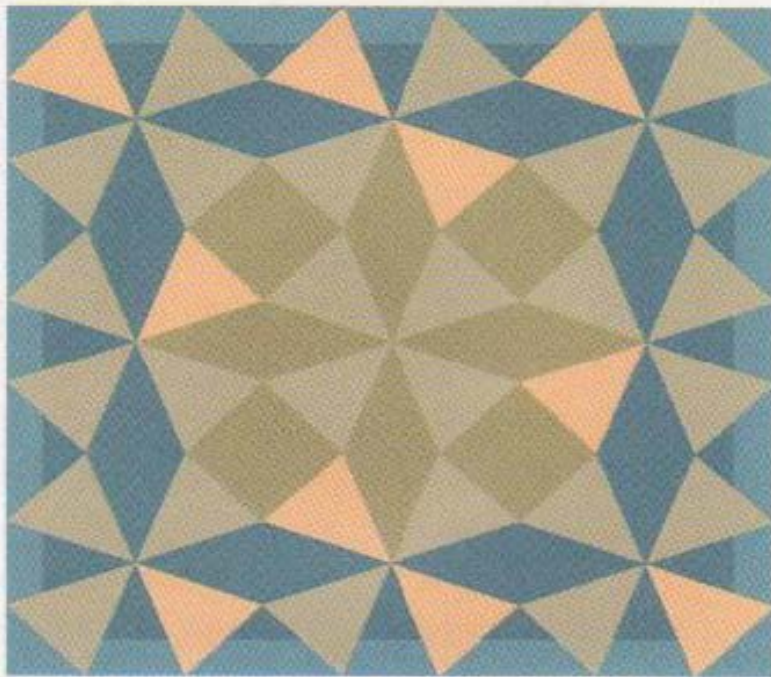
- ▶ 이슬람은 술, 도박, 그리고 마약을 금한다. 세상의 가장 끔찍한 악덕들은 이 세 가지 병폐로부터 생기기 때문이다. 이것들은 개인, 가정, 그리고 사회전체를 파괴한다.
- ▶ 이슬람은 그들의 종교와 상관없이, 가난하고 배고프고 병들고 굶주린 자들과 버림 받은 이들을 돕도록 명령하는 유일한 종교이며, 그와 더불어 동, 식물 등 모든 피조물들에게도 사랑을 베풀

고, 그들을 함부로 죽이거나, 고문하거나, 괴롭히지 않도록 명령한다.

- ▶ 이슬람은 어느 누구에게도 그가 이해할 수 없는 무엇을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다른 종교들과는 달리, 이슬람은 인간의 이해 수준을 넘어선 그 어떤 불가사의한 추상적 개념도 포함하지 않는다. (예: 신에게 아들이 있으며, 그 아들이 또한 신이라는 개념)
- ▶ 이슬람에서는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절차가 있다. 첫째는 꾸란을 가장 기본으로 하는 것이며, 둘째는 꾸란에서 분명한 답을 찾지 못했을 때 순나(선지자 무함마드(S.A.W.)께서 행하신 모범적인 언행)에 의존하는 것이고, 순나에 의해서도 답을 찾지 못했을 때, 이슬람 학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다.
- ▶ 예배는 어디에서나 거행할 수 있다. 하루 다섯 번의 예배를 드릴 때 마다 꼭 마스지(Masjid: 이슬람 성원)에 갈 필요는 없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하나님의 종교(기독교, 천주교, 유대교)의 건물(교회, 성당, 시나고그(synagogue))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허용된다.
- ▶ 이슬람은 여성을 소중히 대우하고 존중하며, 여성들에게 최대의 권리를 제공한다. 이슬람은 한 명 이상의 여성과 결혼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 일부다처는 이슬람에서 허락되지만, 그것은 몇몇 특정한 조건하에서만 가능하며, 또한 그것에 맞는 정해진 규정들을 지켜야 한다. 이슬람이 있기 전의 아랍 부족들은 남성이 결혼할 수 있는 여성의 수에 제한이 없었으며, 또한 여성들을 부양해야 하는 어떠한 책임 없이도 결혼이 가능한 풍습을 가지고 있었다. 이슬람은 이러한 불합리한 관습과 사회체제로부터 여성들을 해방시켰으며, 여성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였다. 선지자 무함마드(S.A.W.)께서는, “천국은 어머니의 발 밑에 있다”고 말함으로써 여성들의 지위를 상승시켰다.
- ▶ 이슬람은 인간에게 일하고, 유용한 지식을 습득하고, 육체적, 정신적 능력을 활용하여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것을 권장한다.

“명상을 하거나 유용한 것들을 하면서 채워진 1시간은, 의무(이슬람에서 명한) 이상의 숭배를 하면서 보낸 1년과 같다”는 금언(金言)을 가지고 있는 종교는 이슬람뿐이다.

- ▶ 이슬람은 정신적인 순결과 육체적인 청결을 중요시한다. 이슬람은 사랑, 친절함 미소, 부드러운 말, 정직함 그리고 자선의 종교이다.
- ▶ 꾸란은 비참한 사람이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원천이다. 꾸란은 인간을 위로하고 달래며 올바른 방향으로 지시하는 무수히 많은 충고의 말씀들을 담고 있다.



참고문헌

Abdullah Yusuf Ali(2001), 'The Meaning of the Holy Qur'an', Islamic Book Service, New Delhi-India.

Abdulwahab Zahid(1997), '꾸란과 꾸란의 편찬사', 전주이슬람성원.

Abdulwahab Zahid(옮긴이:Amina Zahid(곽은미)) (2005), '이슬람 신앙', 전주이슬람성원.

Amina Wadud-Muhsin(1992), 'Qur'an and Woman', Penerbit Fajar Bakti Sdn, Bhd, Kuala Lumpur-Malaysia.

I.A. Ibrahim (옮긴이:Amina Zahid(곽은미), 감수: Huseyin Kirdemir)(2004), '이슬람의 이해를 돕는 간단한 삽화 안내서', 이소북.

Harun Yahya(2002), 'Islam Denounces Terrorism', Tahrike Tarsile Qur'an, U.S.A.

Huseyin Kirdemir&이형주(2003), '이슬람이란 무엇인가?', 이소북.

Huseyin Kirdemir&이형주(2003), '인류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메시지', 이소북.

Huseyin Kirdemir&이형주(2003), '단 하나의 메시지', 한국이슬람연구회.

Huseyin Kirdemir&이형주(2003),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인가?', 한국이슬람 연구회.

Huseyin Kirdemir&이형주(2004), '이슬람에 있어서의 돼지고기', 한국이슬람 연구회.

Huseyin Kirdemir&이형주(2004), '이슬람에 있어서의 단식', 한국이슬람연구회.

Huseyin Kirdemir&이형주(2004), '이슬람의 간명한 소개', 한국이슬람연구회.

Kaleem-ullah Khan(2003), 'Islam the Source of Universal Peace', Goodword Books, New Delhi-India.

Maulana Muhammad Abdullah(2002), 'Islamic Prayers', Idara Ishaat-e Diniyat (P) Ltd, New Delhi-India.

Maulana Wahiduddin Khan(1998), 'Principles of Islam', Goodword Books, New Delhi-India.

Maurace Bucalle(1979), 'The Bible, The Qur'an and Science', Islamic Book Service, New Delhi-India.

Mrs. Ulfat Aziz-us-Samad(1997), 'Islam and Christianity', International Islamic Federation of Student Organizations, Riyadh-Saudi Arabia.

Muhammad Muhsin Khan(1994), 'Summarized Sahih Al-Bukhari, Arabic-English', Maktaba Dar-us Salam Publishers&Distributors, Riyadh-Saudi Arabia.

Shabir Ally(1995), 'Common Questions People Ask about Islam', Islamic Information and Da'wah Centre International, Toronto-Canada.

Suzanne Haneef(2002), 'What Everybody Should Know Islam and Muslims?', Islamic Book Service, New Delhi-India.

Yusuf Islam (옮긴이:Amina Zahid(곽은미), 감수: Huseyin Kirdemir) (2004), '마지막 선지자의 삶', 이소북.

Zakir Abdul Karim Naik (2003), '20 Most Common Questions About Islam', Saba Islamic Media, Kuala Lumpur-Malaysia.

아름다운 이슬람(2002), 1-8호, 한국이슬람연구회.

쿠르쉬드 아흐만(옮김이: 이석훈)(1993), '이슬람 그 의미와 메시지', 우리터.

최영길(1996), '성꾸란 의미의 한국어 번역', 파하드 국왕 성꾸란 출판사, 사우디아라비아.

이슬람 용어 사전

가브리엘 (Gabriel) : 계시의 천사. 예수(A.S.)와 무함마드(S.A.W.) 같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 계시를 전하는 천사.

근본주의 (Fundamentalism) : 이 용어가 사회학적 의미를 부여받은 것은 19세기 기독교의 근본교리(성서의 무오류, 삼위일체, 동정녀 탄생, 그리스도의 재림 등)를 부정하는 '성서비판학'이 대두되자 기독교의 근본교리를 지키기 위한 명분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이슬람의 경우는 전혀 다르다. 1400여 년간의 이슬람 역사에서 근본교리가 도전받거나 거부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슬람에서 경전 '꾸란'은 무슬림들에게는 절대적이어서 비판의 요지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슬람 근본주의란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영국인 '와트'로 그는 자신의 저서인 '이슬람 근본주의와 모더니즘' (1988)에서 이슬람의 전통적 세계관을 수용하고 그대로 실현하려는 자들을 이슬람 근본주의자로 정의한 데서 비롯됐다. 이 이슬람 근본주의라는 말이 언론을 통해서 과격파나 극단파라는 말과 동일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꾸레이쉬 (Quraysh) : 아라비아의 부족 중의 하나. 선지자 무함마드(S.A.W.)는 메카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 활거한 꾸레이쉬 부족의 바누 하심가(家)에서 태어났다.

꾸란 (Qur'an) : 꾸란은 전자전능하신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 그 자체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선지자 무함마드(S.A.W.)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한 기록이다.

끼블라 (Qibla) : 무슬림의 예배 방향

라마단 (Ramadan) : 이슬람력 9월, 단식을 행하는 달.

마스질 (Masjid) : 이슬람 성원. '마스질'이란 단어는 '알라(하나님) 앞에 절하

기 라는 뜻이다. 마스진은 무슬림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절하는 장소이다.

미나렛 (Minaret) : 마스진의 일부분인 높은 탑. 예배 시간을 알리는 무에진이라는 사람이 탑 꼭대기에서 외친다.

메디나 (Madinah) : 사우디 아라비아의 메카에서 북쪽으로 400km 떨어진 도시.

메카 (Makkah) : 메카는 아라비아반도의 한 고대 도시이다. 도시 안에 카아바가 자리잡고 있어 매우 중요하다. 선지자 무함마드(S.A.W.)가 태어난 당시에 메카는 예멘에서 시리아로 교역할 때 들리는 또한 종교적 도시가 되었다.

무에진 (Mu' adhdhin) : 예배시간을 알리는 사람. 이슬람교에서 종을 울리는 대신 미나렛의 꼭대기에서 목소리로 외쳐 예배시간을 알린다.

무함마드 (Muhammad) : 하나님의 인류에게 보내신 마지막 선지자이다. 그는 570년에 메카에서 태어났다. 나이 마흔 살에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최초의 계시를 받아 이슬람을 전세계로 퍼져 나가셨다.

무슬림 (Muslim) :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

사움 (Saum) : 라마단 달의 단식. 1년에 한 번 라마단 달 동안 단식한다. 성인인 모든 무슬림들이 행해야 할 의무이다. 새벽의 여명부터 일몰까지 단식한다. 어떤 음식물, 음료도 금하며 성적 관계도 금지된다. 단식은 무슬림들로 하여금 의지력을 키우며, 동정심을 느끼고, 그들의 몸을 정화시키며, 사회적 관계를 강화시키는 데에 도움을 준다.

샤하다 (Shadah) : 신앙 선언. 그 내용은 "하나님(알라)외에는 신이 없으며 무함마드(S.A.W.)는 하나님의 선지자이심은 선언한다"라는 증언사(證言詞)를 소리 내어 말하는 것이다.

수라 (Surah) : 꾸란의 장. 꾸란은 총 114 수라로 구성.

순나 (Sunnah) : 선지자 무함마드(S.A.W.)의 삶과 언행의 모범. 이것은 무슬림들을 위한 두 번째의 권위적 지침이다.

살라 (Salah) : 예배. 예배는 하루에 다섯 번 수행해야 하는 모든 무슬림의 의무로 예배자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고리이다. 이슬람에는 위

계질서적 권위가 없기에 사제가 없다.

아부 바크르 (Abu Bakr) : 이슬람 제 1 대 칼리파(632~634년). 메카 출생. 쿠레이위족 타임가에서 태어났으며, 선지자 무함마드(S.A.W.)가 이슬람교를 설파하기 시작하자 즉시 그것을 받아들여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었고, 또 성실하고 유능한 협력자로서 그와 행동을 함께 하였다. 선지자 무함마드(S.A.W.)가 죽은 뒤 칼리파(계승자)로 선출되어, 아랍 여러 부족의 반란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633년 이라크·시리아의 정복에 착수함으로써 이슬람 사회의 발전을 위한 기초를 다졌다.

아잔 (Adhan) : 알림. 이 알림의 의도는 멀리 있거나 업무에 열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배시간이 도래했음을 알리는 이슬람의 상징으로 사람의 음성을 통해서 예배시간을 알려주는 것이다.

아~히라 (Akhira) : 내세. 이 세상에 언젠가는 종말이 오며, 사자가 부활하여 공정한 최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쌓은 행적, 우리가 가지는 의향, 우리가 하는 거동, 우리가 입으로 하는 말 하나하나가 모두 헤아려져 정확히 기록 보존된다. 심판일에 이 모든 것이 심리될 것이다. 기록이 좋은 사람은 푸짐한 보상을 받고, 하나님의 천국으로 따뜻한 영접을 받을 것이다. 기록이 나쁜 사람은 형벌을 받아 지옥으로 던져질 것이다.

알라 (Allah) : 아랍어로 하나님. 무슬림들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분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존재이며 그 분에게는 아내도 자식도 없다고 믿는다. 그 분은 태어난 적이 없고 결코 죽지 않으신 분이라고 믿는다.

알리 이븐 아부 탈립 (Ali Ibn Abi Talib) : 선지자 무함마드(S.A.W.)의 사촌 아우이자, 이슬람 제 4 대 칼리파 (656-661년).

예수 (Isa; Jesus) : 예수는 노아, 아브라함, 모세, 무함마드(그 분들 모두에게 평화가 깃드시기를)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선지자들 가운데 한 분이다.

우마르 이븐 알-카탐 (Umar ibn al-Khattab) : 이슬람 제 2 대 칼리프 (634-644년).

우스만 이븐 아판 (Utman ibn Affan) : 이슬람 제 3 대 칼리파 (644-656년).

칼리파 우스만은 꾸란의 몇 권의 교정판을 이슬람 제국의 중심지로 보냈다.

이맘 (Imam) : 예배를 집전하는 무슬림. 천주교의 신부나 개신교의 목사는 어떤 특별한 권능이나 비적을 갖고 있지만 이맘은 예배를 집전하는 것과 선교하는 임무뿐이다.

이슬람 (Islam) : 아랍어로 이슬람이란 하나님에 대한 복종과 그 분의 인도에 헌신함으로써 자신의 평화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과의 평화를 획득함을 뜻한다. 보편종교는 대체로 종교의 창시자(불교나 기독교)나 소속 지명(힌두교) 혹은 인종명(유대교)을 따서 이름을 짓는다. 그러나 이슬람은 이러한 관계를 벗어나 종교의 고유이념인 순종과 평화의 뜻을 그대로 담은 '이슬람'으로 명명한다고 경전 꾸란에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서양에서 부르는 '마호메트교'나 동양에서 쓰는 '회교(回教)나 하는 이름은 적절치 않으므로 삼가야 한다.

일신론 (Tawheed; Monotheism) : 이슬람은 단순히 일신론 즉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다.

자카 (Zakah) :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헌금. 이슬람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자카란 정화와 성장을 뜻한다. 자카는 의무 헌금으로 자발적인 자선과는 다르다. 자카는 년 단위로 행해진다. 그것은 그들의 부를 정화시켜준다. 모금된 기금은 가난한 자들, 과들, 그리고 사회에서 궁핍한 자들에게 배급된다. 자카는 집, 자동차, 그리고 직업적 도구들을 제외하고 축적된 재산의 2.5를 헌금하는 것이다.

잔나 (Jannah) : 천국. 성인(聖人)은 영혼과 육체가 같이 영원함 즐거움을 누릴 장소.

자한남 (Jahannam) : 지옥. 악인(惡人)은 영원히 고통을 당할 장소.

지하드 (Jihad) : 지하드는 '고투' 혹은 '분투'를 의미하며, 누구나 행하는 노력이라고도 할 수 있다. 꾸란과 하디스에는 지하드를 아래에 나오는 몇 개의 문백으로 사용한다.

1.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분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것.
2. 부모, 동료와 사회의 압력에 저항하는 것.
3. 올바른 길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
4. 바른 행동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5. 이슬람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용기와 끈기를 갖는 것.

카아바 (Ka'bah) : 카아바는 사우디 아라비아의 메카에 있는데, 원래 최초의 인간이자 선지자인 아담에 의해 건립된 제단으로서 이후에 선지자 아브라함과 그 분의 아들 이스마엘에 의해 재건축 되어졌으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아브라함에게 모든 인류가 이 곳을 방문하도록 명하셨다. 카아바는 경배의 장소일 뿐 그 자체가 경배의 대상은 아니다.

하디스 (Hadith) : 선지자 무함마드(S.A.W.)가 일생에 걸쳐 이슬람을 선교하는 동안에 보여주었던 그의 행동 및 사례들을 수록 편찬한 '언행록'을 말한다. 선지자 무함마드(S.A.W.) 생존시 그의 교우들은 선지자의 말과 행동 및 사례들을 세밀하게 기록하였다. 이를 선지자 사후 이슬람 초창기의 헌신적이고 독실한 신학자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 심혈을 기울인 연구 조사를 통해 집대성했다. 꾸란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전(原典)이지만, 하디스는 꾸란에 대한 해설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꾸란의 뜻과 교훈을 완전히 이해함에 있어서 하디스의 연구는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서 하디스의 도움 없이는 꾸란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 (Hajj) : 성지순례. 육체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가능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이슬람의 다섯 번째의 의무이다. 하지(성지순례)를 위한 첫 번째 부름은 선지자 아브라함(A.S.)에 의해 이루어졌다. 하지를 통해 아브라함(A.S.)과 그의 가족의 시련을 기념한다. 매년 약 이삼백만명의 무슬림이 성지순례를 행한다.

히잡 (Hijab) : 머리와 몸을 가리기 위해 쓰는 옷

히즈라 (Hijrah) : 서력 622년에 하나님께서는 무함마드(S.A.W.)와 추종자들에게 메카를 떠나 이주하도록 명령하셨다. '히즈라'라고 하는 이 사건으로 그들은 메카를 떠나 북쪽으로 떨어진 메디나를 향하게 되며 이것이 이슬람력의 시작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

Prophets of Allāh

mentioned in the Qur'an

하나님이 인류에게 올바른 길을 알리기 위해 선별한 의들을 선지자라고 부른다.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무라에서 아랍의 선지자들 선지자 25명이다. 이들 중 노아, 이브라힘과 이삭의 아들이인 아브라함, 모세, 예수,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 무함마드 5명을 특히 중요한 선지자로 꼽는다. 하나님 (Allah)의 마지막 메시지는 꾸란에는 25명의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와 설교들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آدم	Ādam	아담	최초의 선지자
إدريس	Idris	이드리스	
نوح	Nūh	노아	
هود	Hūd	후드	
صالح	Ṣālih	살림	
إبراهيم	Ibrāhim	아브라함	
إسماعيل	Ismā'il	이스마일	무함마드의 조상
إسحاق	Ishāq	이삭	아브라함의 조상
لوط	Lūṭ	루트	
يَعْقُوب	Ya'qūb	야곱	
يُوسُف	Yūsuf	요셉	
شُعَيْب	Shu'aib	이드리스	
أَيُّوب	Ayyūb	아유브	
مُوسَى	Mūsā	모세	10가지 계사 7번째
هَارُونَ	Hārūn	하룬	
ذُو الْكِفْلِ	Dhul Kifl	줄카플	
دَاوُد	Dāwūd	다윗	10가지 계사 8번째
سُلَيْمَانَ	Sulaimān	솔로몬	
إِلْيَاس	Ilyās	엘리아	
الْيَسَعَ	Al Yasa'	알야사	
يُونُس	Yūnus	유나	
زَكَرِيَّا	Zakariyyā	자카리야	
يَحْيَى	Yahyā	야히야	
عِيسَى	'Īsā	예수	10가지 계사 9번째
مُحَمَّد	Muhammad	무함마드	최후의 선지자 10가지 계사 10번째

이슬람 및 한국 이슬람에 대한 홈페이지 주소

<http://www.muslimkorea.net>
<http://www.quran.or.kr>
http://www.geocities.com/zubairkhan_99
<http://go.to/islamkorea>
<http://www.isuram.org/kkuran/index.html>
<http://www.koreaislam.org>
<http://www.islamkorea.org>
<http://www.islamkorea.com>
<http://www.islamjeju.or.kr>
<http://muslim.cyworld.com>

이슬람에 대한 영문 홈페이지 주소

<http://islamicity.com>
<http://www.islamworld.net>
<http://www.soundvision.com>
<http://www.talkislam.com>
<http://www.hyahya.org>
<http://www.islamway.net>
<http://www.islam-guide.com>
<http://www.uah.edu/msa/quran.html>
<http://islamicbookstore.com>
<http://www.halalco.com>
<http://www.islamicvoice.com>
<http://www.irf.net/irf/main.htm>

한국이슬람성원 안내

- 서울 중앙성원
(SEOUL CENTRAL MASJID)
서울시 용산구 한남2동 732-21
전화: (02) 793-6908
- 광주성원
(KWANGJU MASJID)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역리 48-9(464-807)
전화: (031) 761-3424
- 안양성원
(ANYANG MASJID)
경기도 안양시 안양5동 618-132(430-828)
전화: (031) 444-7757
- 대구 자미아 마스지드 우스만 이슬람 센터
(TAEGU JAMIA MASJID USMAN ISLAMIC CENTER)
대구광역시 달서구 죽전동 202-6번지
전화: (053) 523-2171
- 포천소흘성원
(POCHUN SOHEUL MASJID)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430-828)
전화: (031) 542-4696
- 알-후다 센터
(Al-Huda Center)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91-8
전화: (032) 433-8966
- 대전 센터(Daejon Center)
대전시 유성구 궁동 404-9, 2층
H.P.: 010-2651-7860
- 김포 센터(Kimpo Center)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고정리 566
H.P.: 010-2131-5163
- 부산성원
(BUSAN MASJID)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30-1(609-811)
전화: (051) 518-9991
- 전주성원
(JEONJU MASJID)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2가 1562-10(561-832)
전화: (063) 243-1483
- 안산성원
(ANSAN MASJID)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41-5
전화: (031) 492-1948
- 부평성원
(BUPYEONG MASJID)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574-19
전화: (032) 512-2612
- 파주성원
(PAJU MASJID)
경기도 파주시 원릉면 영태리 421-9(413-813)
전화: (031) 946-2110
- 광주 이슬람 센터
(KWANGJU ISLAMIC CENTER)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 894-7번지 2층
전화: (062) 972-5136
- 마천-거여 이슬람 센터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186-26
H.P.: 010-7663-4466
- 제주 이슬람 센터
(JEJU ISLAMIC CENTER)
제주도 노형동 939 정한오피스텔 1215호 (690-802)
전화: (064) 712 1215

후세인 크르데미리

1994년, 터키 앙카라 대학교 한국어과 졸업.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에서 국어학 (현대 국어 통사론 전공) 석사 학위를 취득. 2002년, 같은 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현재는 한국이슬람교 중앙회 선교교육국/선교위원(출판)으로 재직 중이며 이슬람과 관련된 책들을 번역하고 있음.

출판한 책으로는 《이슬람이란 무엇인가?(2002)》(공저), 《단 하나의 메시지(2002)》(공저),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인가?(2002)》(공저), 《인류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메시지(2003)》(공저), 《이슬람의 간명한 소개(2004)》(공저), 《이슬람에 있어서의 단식(2004)》(공저), 《이슬람에 있어서의 돼지고기(2004)》(공저), 《이슬람의 이해를 돕는 간단한 삽화 안내서(2004)》(감수), 《마지막 선지자의 삶(2004)》(감수), 《쉽고 재미 있게 풀어쓴 만화 코란(2005)》(감수) 등과 잡지 《아름다운 이슬람(2003.2-2003.9)》 발행. 그 외 다수의 논문이 있음.

이형주 (Fatullah)

1950년 강원도 춘천 출생. 1982년 고려대학교 불문과 졸업 후 30여년간 영어 강사로 있음.

1995년에 이슬람교에 입교하였고, 현재는 이슬람과 관련된 책들을 번역하고 있음.

역서로는 《이슬람이란 무엇인가?(2002)》(공저), 《단 하나의 메시지(2002)》(공저),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인가?(2002)》(공저), 《인류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메시지(2003)》(공저), 《이슬람의 간명한 소개(2004)》(공저), 《이슬람에 있어서의 단식(2004)》(공저), 《이슬람에 있어서의 돼지고기(2004)》(공저) 등이 있음.

한국인들이 이슬람에 대해 궁금해 하는 33 가지!

편자: Huseyin KIRDEMIR

옮긴이: 이형주 (Fathullah)

1판 1쇄 발행 2005. 11. 15

저작권자 © 후세인 크르데미리

이 책의 저작권자는 위와 같습니다.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내용의 일부를 인용하거나 발췌하는 것을 금합니다.

발행처: 아담 출판사

발행인: 이미영

등록번호: 2-4182호

등록일자: 2005년 6월 3일

중구 신당동 842 동아약수하이츠아파트 116-1302 우편번호 100-450

전화: (02)877-9716

팩스: (02)6280-6455

책값은 뒤표지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ISBN 89-956946-0-2 03280

홈페이지: <http://www.adambooks.net>

E-mail: adambooks@naver.com

"Answer to Korean 33 Most Common Questions About Islam"

“이슬람은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종교로 많은 사람들을 위한 지침이자 안정의 기둥이다...”

-Hillary Rodman Clinton(L. A. 타임즈 1996년 3월31일)

“이슬람은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종교이다...”

-뉴욕 타임즈, 1989년 2월21일, 1페이지

“무슬림들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집단이다...”

-USA TODAY, 1989년 2월 17일

“무함마드는 모든 사도들과 종교인사들 중에서 가장 성공한 경우이다.”

-브리태니카 백과사전

“이슬람은 미국에서 계속 성장하고 있고, 누구도 그것을 의심할 수 없다.”

-CNN, 1995년 12월 15일

“이슬람 종교는 세계의 그 어떤 다른 종교보다도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Mike Wallace (60분)

“이슬람의 형제애는 피부색, 인종, 신앙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들에게 적용된다. 이슬람은 이러한 정신을 실제로 실현하여 올 수 있었던 유일한 종교이다. 무슬림들은 세계의 어디에서건 서로를 형제들로 알아본다.”

-R. L. Mellema, 네덜란드, 인류학자, 작가

“이슬람의 칼은 강철로 된 칼이 아니다. 나는 이슬람의 칼이 내 마음 깊은 곳을 찔렀기 때문에 경험상 이것을 안다. 그것은 죽음을 가져오지 않고 새로운 삶을 가져왔다.”

-Ahaed Holt 1975년에 이슬람으로 입교한 영국의 시의원



한권값 10,000원